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 :
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덱스 구축 연구**

Monitoring for the Urban Qualitative Development :
Happiness Index and Megacity Seoul Index

변미리

2013-OR-57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 :
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덱스 구축 연구

Monitoring for the Urban Qualitative Development :
Happiness Index and Megacity Seoul Index

연구진

연구책임	변미리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박민진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김해란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왜 행복연구인가의 의의

○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측정 기준 연구의 필요성

국가나 도시의 발전정도를 GDP나 GNP 등 경제지수로 측정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삶의 질, 행복, 정신적인 만족정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음.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 축에는 행복지표 연구가 자리 잡고 있음. 또한 유엔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부탄 등은 사회발전에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어떻게 증진하느냐는 ‘질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통계청과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삶의 질과 행복지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서울시 역시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지고 ‘포스트 성장 이후의 서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시사회의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근거한 도시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시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질적 성장을 측정하는 포괄지표 : 삶의 질 혹은 행복지표의 이슈들**
정책의 대상으로서 행복연구나 삶의 질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개인의 순간적인 심리에 한정할 경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 리뷰하는 삶의 질 지표나 행복지표의 채택근거는 집단적이고 전반적인 웰빙의 상태를 다루는 지표체계임.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일반적으로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방법은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How happy are you now?)”, “당신은 어제 행복하셨나요?(How happy were you yesterday?)”, “요즘 들어 당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십니까?(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these days?)”라는 세 가지임. 이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외에도 OECD, 세계은행, 부탄의 행복지수처럼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합(합)을 통해 그 지역의 행복지수를 산출하기도 함.

행복과 경제적 상태의 관계성, 즉 사람들은 소득이 높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그 만큼 더 행복해질까? 이것은 행복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이슈이자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임. 행복과 경제적 상태와의 관련성은 공간적,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어떤 하나의 답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더 이상 개인의 행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정책입안자들이 개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부각했다는 점임.

2 **국내외 도시발전의 질적지표(행복지표) 현황 및 특징**

- 도시발전의 상태를 측정하는 질적지표(행복지표)는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음. 다양한 행복지표체계들이 어떤 공통성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표임.

- 즉, 대부분의 지표체계는 개인속성적 요인과 외부속성적(external or social)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적 속성은 거의 공통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 연령, 교육, 건강, 가족요소 등이 그러한 영역임. 외부적 속성은 측정기관의 성격이 일정정도 반영되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나, 일자리, 커뮤니티, 사회적 가치영역, 심리적 안녕, 문화여가 등이 공통적인 영역임.

표 1 해외도시발전 지표의 측정영역과 주요특성

영역	주요측정영역/요소		특성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측정의 중요성을 정책영역으로 끌어들이 • 행복제고가 국가도시 발전의 주요목표임을 각성
	• 직업		
	• 사회적 자본		
	• 가치 및 종교		
	• 건강	• 정신적 건강 • 육체적 건강	
	• 가족관계	• 혼인상태 • 자녀수	
	• 학력		
	• 성별		
	• 연령		
OECD, Better Life Initiative	• 주거	• 주거비 • 1인당 평균사용방수 •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의 안전성과 지표의 종합성
	• 소득	• 평균 가구 순-조정 가처분소득 • 가계재무자산	
	• 일자리	• 직업안전성 • 개인수입 • 고용률 • 실업률	
	• 커뮤니티	• 사회적 유대	
	• 교육	• 교육기간 • 학생역량 • 교육정도	
	• 환경	• 수질오염 • 환경오염	
	• 시민참여	• 법률제정에서의 협의 • 투표율	
	•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기대여명	
	• 생활만족도	• 생활만족도	
	• 치안	• 살인율 • 폭행률	
	• 일과 생활의 조화		

표 계속 해외도시발전 지표의 측정영역과 주요특성

영역	주요측정영역/요소		특성	
영국, National Well-being	• 개인적 행복	•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중간/높은 점수 비율	
		• 어제 자신의 행복수준 평가		• 어제 자신의 불안정도 평가
	• 관계	• 가정생활만족도	• 사회생활만족도	• 지표구성작업의 시민참여적 방식 도입
		• 위기 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 건강	• 기대수명(남/여)	• 장기질병과 장애요인	
		• 건강만족도	• 심리적 장애	
	• 해야할것	• 실업률	• 직업만족도	
		• 레저시간 만족도	• 레저시간 활용만족도	
		• 자원봉사 경험률		
	• 우리가 사는 곳	• 범죄율	• 야간보행 안전도	
		• 녹지공간 방문율	• 이웃소속감	
	• 개인재정	• 중위소득 60% 이하에 살고 있는 가구비중	• 연금자산을 포함한 가구당 평균 재산	
		• 가구소득 만족도	• 재정적으로 어려운 비율	
• 교육과 기술	• 인적자본	• 영어와 수학 수준		
	• 자격증 없는 비율(15~64세)			
• 경제	• 1인당 실질가구소득	• 1인당 순국민소득		
	• GDP 비율에서 영국 공공부문의 순차입금	• 인플레이션		
• 거버넌스	• 등록된 투표인수	• 의회 신뢰도		
	• 정부 신뢰도			
• 자연환경	• 온실가스 배출량	• 미세먼지 오염도		
	• 보호가능한 지역 범위	• 재생에너지 소비량		
일본, Life Reform Index	•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 쓰레기 배출량	
		• 화재사고 발생건수	• 1인당 공원면적	
		• 1인당 재해피해액	• 형사사범 검거율	
		• 시큐리티관리 소프트웨어 출시 수	• 거주실의 면적	

표 계속 해외도시발전 지표의 측정영역과 주요특성

영역	주요측정영역/요소		특성
일본, Life Reform Index	•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 플렉스타임제 채용기업비율	• 자발적 실업자수
		•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이직자 비율	• 이직자 중 전직자 비율
		• 공민직업 소개 기관에 의한 취업건수	• 노동 손실일수
		• 유급 휴가율	
	•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 저축제로 세대비율	• 소비자 물가지수 절대 변화율
		• 실질연간수입	• 공적연금납부율
		• 파트타임 노동자 단위시간당 임금	• 탈세처리건수
		• 관리직 전문직 취업자 비율	• 고졸임금 신장률
	•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 여성 관리직 비율	• 여성 단위노동당 임금
		• 장애인 실고용률	• 고령자 취업률
		• 교육위원회에서 사회교육학급, 강좌수	• 공민관에서 여러 집회의 실시건수
	•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 사회적 활동시간	• 관광여행인수
		• 체육시설 이용자수	
		• 교원1인당 아동학생수	• 특별비상근 강사수
	•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 해외에 체재하는 유학생, 연구자, 교사수	• 연장보육실시 시설수
• 식품품 소비자 위험 정보건수		• 소비자 행정담당 직원수	
• 기분장해 실진료일수		• 체력조사 평균득점	
• 의료관계 소송 신규건수		•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수	
•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 보험 의료비 지출비율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 심리적 행복	• 삶의 만족도	• 긍정적 감정
		• 부정적 감정	• 영적 추구
	• 건강	• 주관적 건강	• 건강일수
		• 장애	• 정신건강
		• 국가발전의 새로운 길 제시	
		• 물질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이고 균형적 측면을 강조한 지표체계	

표 계속 해외도시발전 지표의 측정영역과 주요특성

영역	주요측정영역/요소	특성	
	• 시간활용	• 근로시간	• 수면시간
	• 교육	• 이해능력	• 교육수준
		• 지식	• 가치
	• 문화다양성과 회복력	• 모국어 구사수준	• 예술적 기술
		• 사회문화적 참여	• 규범
	• 굿거버넌스	• 정치참여	• 기본권
		• 서비스 전달	• 정부성과
	• 지역사회 활성화	• 기부	• 지역사회 관계
		• 가족	• 안전성
	• 생태다양성 및 회복력	• 생태문제	• 환경책임
		• 자연환경 파괴	• 도시화문제
	• 생활수준	• 가구소득	• 자산
		• 주거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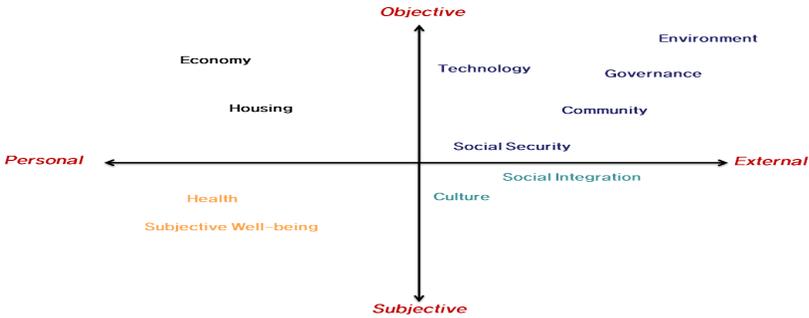


그림 1 도시발전 질적 모니터링 영역(area)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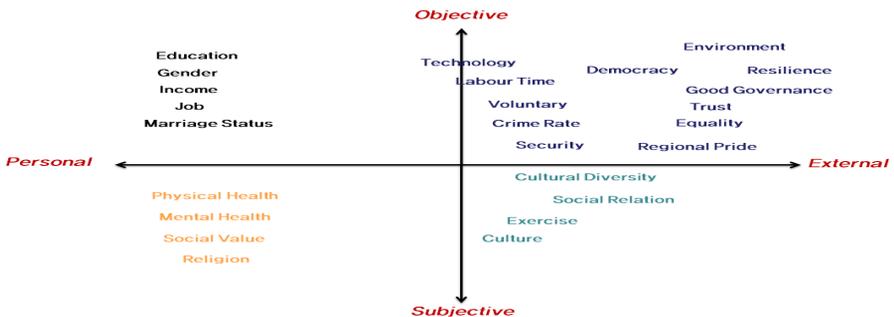


그림 2 도시발전 질적 모니터링 지표(indicators) 종합

서울시의 메가시티 서울인덱스의 특성

○ 지표체계

서울인덱스 지표는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의 양자를 반영하되, 아시아 도시를 주로 평가하고 있는 월드뱅크, OECD Better Life Index, UN의 행복지표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도시민의 행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음.

서울인덱스 지표는 주거, 일자리, 기술혁신과 교육, 교통환경, 문화여가, 사회통합, 건강, 안전 등 8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됨.

표 2 서울인덱스 지표(안)

영역	지표		비고
주거	• 1인당 평균 사용방수, 면적	• 주거비	
일자리	• 고용률	• 총노동시간	
기술혁신과 교육	• 학급당 학생수	• 교육능력	
	• 공교육 평균 교육기간	• 인터넷 보급률	
교통, 환경	• 상수도 공급비율	• 도로포장률	
	• 1인당 공원면적	• 공기질	
	• 에너지 사용량		
문화여가	• 문화시설수	• 여가시간	
사회통합	• 투표율	• 도시빈곤선/빈곤격차	
	• GINI지수	• 노령화지수	
건강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청소년출산율	
안전	• 폭행률	• 자살률	

○ 실행방안

OECD 지표구성단계 권고안을 기준으로 실행방안을 구성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 Megacity Index 실행방안

○ **실행 거버넌스**

Megacity Index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5단계가 필요함. 1단계에서는 서울시, 연구원, 시립대가 Megacity Index 팀을 구성함. 2단계에서는 지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단계에서는 아시아 메가시티 인덱스 네트워크를 구성함. 4단계에서는 1차 Asia Megacity Index Summit를 개최하고 5단계에서는 아시아 메가시티 인덱스 네트워크를 확산시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 Megacity Index 구축 거버넌스

차례

I	왜 행복연구인가	20
1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측정 기준 연구의 필요성	20
2	질적 성장을 측정하는 포괄지표 : 삶의 질 혹은 행복지표의 이슈들	22
II	국내외 도시발전의 질적지표 비교 분석	30
1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30
2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3	37
3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39
4	UN, Human Development Index(HDI)	50
5	OECD, Better Life Initiative(BLI)	60
6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National Well-being	65
7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71
8	New Economic Foundation, Happy Planet Index	81
9	New Zealand, 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Report	85
10	Netherlands, Life Situation Index	91
11	일본,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95
12	국민행복 결정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방안 연구(정지범, 2011)	98
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김승권 외, 2008)	103
14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황명진·심수진, 2008)	113
15	소결 : 행복지표의 종합 및 함의	120

III	Global/Asia Megacity Index 구축	124
1	Global/Asia Megacity Index의 의의	124
2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125
3	Global/Asia Megacity Index 지표	138
	참고문헌	146

표차례

표 2-1	UN, World Happiness Report 변수	32
표 2-2	행복점수 상위 4개국 vs 하위 4개국 비교	36
표 2-3	부탄의 33개 GNH 지표	40
표 2-4	UN, Human Development Index(HDI) 지표정의	52
표 2-5	Human Development Index(HDI), 2013년 순위	57
표 2-6	한국의 연도별 Human Development Index 점수 및 순위	59
표 2-7	행복지수 항목별 OECD 평균과 한국의 수치	61
표 2-8	OECD, Better Life Initiative(BLI) 지표 내용	62
표 2-9	한국의 행복지수 : 영역별 결과비교	64
표 2-10	ONS의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68
표 2-11	ONS의 행복조사결과	70
표 2-12	지표와 산출방식	73
표 2-13	CIW for Individual Domains and Average of Eight Domains, 1994 to 2008년	76
표 2-14	분야별 행복지수 결과(1994~2008년)	77
표 2-15	도시별 표본오차	86
표 2-16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 지표	87
표 2-17	네덜란드 삶의 질 조사 지표	92
표 2-18	일본의 생활개혁지수	96
표 2-19	한국성인들의 주관적 행복감 구성 요인의 1차 범주별 구조화	99
표 2-20	3개 요인 행복 유형 구분 기준	102
표 2-21	7개 요인 행복 유형 구분 기준	103
표 2-22	행복지표 1차안에 따른 우선순위와 영향정도 평균값	106
표 2-23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108

표 2-24	한국인의 행복수준	110
표 2-25	개별 행복지표가 전체 행복수준에 주는 영향도	111
표 2-2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행복 수준	112
표 2-27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과 선형연구들 영역의 비교	115
표 2-28	행복지수의 지표 구성(전체 43개)	117
표 2-29	행복지표체계 종합	121
표 3-1	인구 500만 이상 Megacity	126
표 3-2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인구	128
표 3-3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1인당 GNDP	130
표 3-4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1인당 GRDP	132
표 3-5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인구밀도	134
표 3-6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데이터 출처	141

그림차례

그림 1-1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25
그림 2-1	전 세계 행복 분포도 : 2005~2011년	34
그림 2-2	대륙별 행복 분포도 : 2005~2011년	34
그림 2-3	조사기관별 행복 분석 결과 비교	35
그림 2-4	국가별 평균 행복점수	36
그림 2-5	국가별 행복에 대한 국내 불균등 정도	37
그림 2-6	2005~2007년과 2010~2012년의 행복수준 비교	39
그림 2-7	GNH의 지표	41
그림 2-8	GNH로 행복한 인구 측정	42
그림 2-9	지역별 분야별 행복지수	43
그림 2-10	연령별 행복지수	44
그림 2-11	교육수준별 행복지수	45
그림 2-12	불행(unhappiness) 원인의 이해	46
그림 2-13	GNP와 정책의 연계과정	47
그림 2-14	정책구성과정	48
그림 2-15	부탄의 행복지수 정책 스크리닝 평가과정	49
그림 2-16	MoEA 점수	50
그림 2-17	Integrating Equity into Policy Design	51
그림 2-18	Calculating the Human Development Indices—graphical Presentation	54
그림 2-19	Human Development Indices	56
그림 2-20	한국의 HDI 점수 : 1980~2012년	59
그림 2-21	한국의 영역별 HDI 점수 : 건강, 교육, 소득	60
그림 2-22	Better Life Index 11개 영역	63

그림 2-23	국가별 행복지수 결과	63
그림 2-24	분야별 한국의 행복지수 결과	65
그림 2-25	International Timeline	66
그림 2-26	Developing a Set of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68
그림 2-27	The Mandala of Wellbeing	72
그림 2-28	GDP 대비 Canadian Index of Wellbeing, 1994 to 2008년	76
그림 2-29	색으로 유형화된 국가별 HPI지수	83
그림 2-30	국가별 기대수명	84
그림 2-31	국가별 생활만족도	84
그림 2-32	국가별 생태흔적	85
그림 2-33	삶의 질 향상(1974~2006년)	93
그림 2-34	연령별 삶의 만족도	93
그림 2-35	가구유형별 삶의 만족도	93
그림 2-36	고용유형별 삶의 만족도	94
그림 2-37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	94
그림 2-38	소득집단별 삶의 만족도	94
그림 2-39	생활개혁지수	97
그림 2-40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 종합지수	97
그림 2-41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98
그림 2-42	도시발전 질적 모니터링 영역(area) 종합	122
그림 2-43	도시발전 질적 모니터링 지표(indicators) 종합	122
그림 3-1	세계 도시 인구	127
그림 3-2	1인당 GNDP	129
그림 3-3	1인당 GRDP	131
그림 3-4	인구밀도	133
그림 3-5	Global Megacity의 1인당 GNDP by Population	135
그림 3-6	Asia Megacity의 1인당 GNDP by Population	135

그림 3-7	Global Megacity의 1인당 GRDP by Population	136
그림 3-8	Asia Megacity의 1인당 GRDP by Population	136
그림 3-9	Global Megacity의 Density by Population	137
그림 3-10	Asia Megacity의 Density by Population	137
그림 3-11	Global/Asia Megacity Index 평가대상도시	138
그림 3-12	서울 인덱스 지표	139
그림 3-13	지표구성 단계(OECD 권고안)	140
그림 3-14	Megacity Index 구축 거버넌스	141

I 왜 행복연구인가

- 1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측정기준 연구의 필요성
- 2 질적 성장을 측정하는 포괄지표 : 삶의 질 혹은 행복지표의 이슈들

I 왜 행복연구인가

1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측정 기준 연구의 필요성

국가나 도시의 발전정도를 경제적 수준에서 측정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이 도전을 받고 있다. 즉, GDP나 GNP 등 경제지수로 한 사회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던 프레임에서 삶의 질이나 행복, 정신적인 만족 정도로 한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프레임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변화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UN의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나 OECD의 보다 나은 삶 인덱스(Better Life Index) 등에서도 사회발전의 주요지표인 GDP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행복정도를 사회발전의 주요 기준으로 부각시키면서 보다 나은 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한 축에는 행복지표 연구가 자리 잡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부탄 등은 사회발전에서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어떻게 증진하느냐는 ‘질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부탄의 행복지수가 주목을 받았다. 부탄은 이미 1970년대 국가를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기준으로 통치하겠다고 행복정치를 내세운 것이다. 영국 캐머런정부는 2010년 경제지표로서의 GDP가 국가성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불완전한 방법이므로 이를 대체할 웰빙지표(General Well-Being, GWB)를 중요한 사회의 발전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계청(2011)과 한국행정연구원(2012) 등에서 삶의 질과 행복지표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궁극적으로 도시사회의 발전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한 것이며,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시기에 나타나는 연구경향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역시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지는 시기에, 즉 '포스트 성장 이후의 서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시사회의 질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근거한 도시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시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지표, 예를 들어 사회통합지표, 다양성사회지표, 행복지표 등을 포괄하여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출발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보고서의 성격보다 현안을 다루는 연구(1개월 단기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다뤄진 삶의 질과 행복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요약의 주 내용으로 한다(2장). 이후 이러한 행복지표 연구 리뷰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필요한 '보다 나은 도시발전을 위한 서울인덱스' 초안 작업을 수행한다(3장). 이 작업은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의 성격을 띤다. 서울인덱스를 근거로 인구 500만 이상의 메가시티의 질적 성장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후속연구로 진행될 것이다.

도시발전은 유기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일정한 발전 단계가 지나면 새로운 발전단계가 진행되고 이 과정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는 새로운 기준의 등장을 말한다. 지금까지 도시발전은 도시민의 양적 성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질적 성장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질적 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기준 역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2 **질적 성장을 측정하는 포괄지표 : 삶의 질 혹은 행복지표의 이슈들**

삶의 질은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이어진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인데 이것이 측정 가능한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행복은 다양한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일견 타당하다. 심리학에서 출발한 행복연구는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 행운 등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좋은 상태’(well being)가 지속되는 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정책의 대상으로서 행복연구나 삶의 질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개인의 순간적인 심리에 한정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 리뷰하게 될 삶의 질 지표나 행복지표의 채택근거는 집단적이고 전반적인 웰빙의 상태를 다루는 지표체계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집단의 행복정도를 다루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도 행복은 ‘웰빙’,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와 동일시되었다(Graham, 2011). 각각의 개념은 그 정의와 측정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측정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많은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증진 방법과 국가발전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년간 엄청난 경제성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확산되고 사람들의 불안은 심화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지 않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왜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1 어떻게 행복을 측정하는가? : 행복측정에 관한 이슈들

사람들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람들의 행복상태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행복’, ‘웰빙(well-being)’,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이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들이다. 이 중 가장 범용적으로 같은 의미를 측정하는 것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이다. 더욱이 지역정책이나 공공정책에서 ‘행복’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행복의 개념은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가장 깊이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 3가지이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How happy are you now?)”,
“당신은 어제 행복하셨나요? (How happy were you yesterday?)”,
“요즘들어 당신의 삶은 전반적으로 행복하십니까? (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as a whole these days?)”. 이러한 질문에 근거하여 측정척도는 측정기관에 따라 4점 척도(아주 행복, 행복, 약간 불행, 불

1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주거(housing) 그 자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네이버후드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이 지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이 확장되면서 네이버후드 만족도와 거주이동률과의 관련성을 예측하는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K Gruber & G Shelton, 1986 ; Grinstein-Weiss et al., 2011 등 참고).

행)에서부터 11점 척도(0점에서 10점까지)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질문이외에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OECD나 월드뱅크, 부탄의 행복지수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합(합)을 통해 그 지역의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².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질 높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건강,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네이버후드 특성 등)을 측정하여 그 총합으로서 그 지역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

오늘날 도시공동체에서의 생활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요인들을 개선할 것인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Sirgy et al., 2006). 따라서 도시민의 행복한 삶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관심은 주거, 네이버후드, 가족, 건강, 안정, 위생, 교육 등 지역공동체의 여러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소들에 집중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행복지표 혹은 삶의 질 지표라고 언급되는 이러한 지역사회지표 모니터링은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2 행복은 경제적 상태에 전적으로 종속되는가?

사람들은 소득이 높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면 그만큼 더 행복해질까? 이 질문은 행복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이슈이자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이다. 1972년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개인의 소득증가분이 개인의 행복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한다

²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룰 것이다.

는 것에 긍정적인 답을 하지만 이스털린은 이 과정에서 ‘상대적 선호’가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증가분만큼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saterlin, 1974). 그림에도 또 다른 연구는 지금까지 국가들의 소득과 행복수준이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다음 그래프 참고. Inglehart and Klingeman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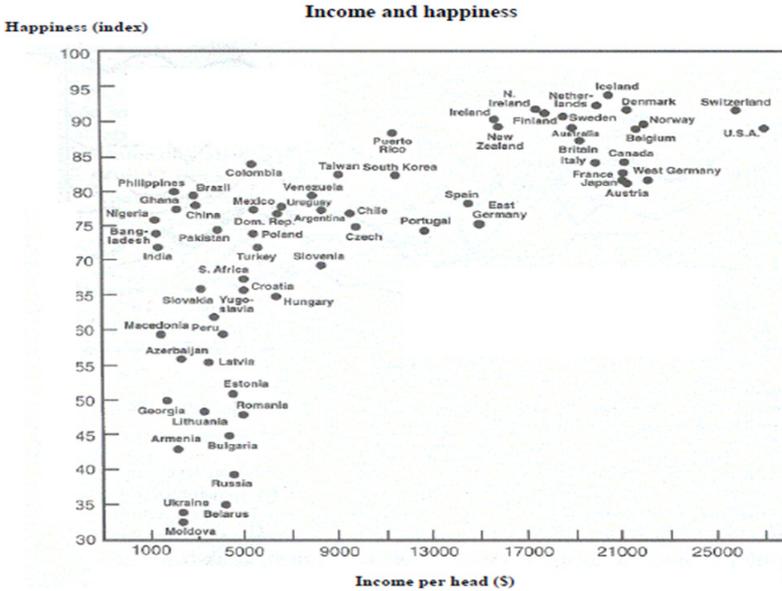


그림 1-1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출처 : Inglehart and Klingemann(2000)

기존의 행복관련 연구를 종합하면서 Graham은 한 국가 혹은 지역 내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지만, 국가들 간 비교나 시계열적 비교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약하게 드러날 뿐이라고 주장한다(Graham, 2005;2011).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 더 행복한 경향은 있지만, 행복정도의 증가분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더는 비례적

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소득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행복증가분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행복연구보고서 역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Layard 등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요소들을 내재적 속성(개인적 속성)과 외부적 속성으로 나눈 다음 어떤 요소들이 개인의 행복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결론은 개인의 내성적 속성과 외부환경적 요소들은 동시에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어떤 요소가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외부적 요소들 중에서도 소득, 일, 커뮤니티, 거버넌스, 가치, 종교 등의 요소들이 개인의 행복증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임을 강조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외부환경적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Lyrd et al., 2012). 이스털린은 최근 중국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다룬 연구에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인의 경제성장률과 행복증가 정도를 비교하면서, 지난 20년간 중국의 엄청난 양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정도가 경제성장의 총량만큼 증가했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Easterlin, Morgan, Swotek and Wang, 2012).

이상에서 우리는 행복과 경제적 상태의 관련성이 공간적,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어떤 하나의 답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연구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더 이상 개인의 행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정책입안자들이 개입해야 하는 대상으로 부각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와 도시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복’ 측정을 다양한 사례(가령 World Happiness Report, OECD Better Life Initiativ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등)

가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정책결정자가 행복 측정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복 측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UN의 최근 권고는 많은 정부가 국민(시민)행복을 위해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공공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행복'에 관여하는 정책지향을 드러내야만 한다.

II 국내외 도시발전의 질적지표 비교 분석

- 1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 2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2013
- 3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 4 UN, Human Development Index(HDI)
- 5 OECD, Better Life Initiative(BLI)
- 6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National Well-being
- 7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 8 New Economic Foundation, Happy Planet Index
- 9 New Zealand, 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Report
- 10 Netherlands, Life Situation Index
- 11 일본,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
- 12 국민행복 결정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방안 연구(정지범, 2011)
- 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김승권 외, 2008)
- 14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황명진·심수진, 2008)
- 15 소결 : 행복지표의 종합 및 함의

II 국내외 도시발전의 질적지표 비교 분석

1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1.1 개요

-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에 비해 행복도가 평균적으로 0.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은 북유럽국가들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 4개국은 평균 7.6점(10점만점)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제국들로, 토고, 베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시에라리온 등 4개국은 평균 3.4점에 불과함
- 선진국가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행복한 반면,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음. 빈곤한 나라에서는 절대적 소득이 행복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상대적 소득이 중요함. 물론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한 경향이 있으나, 소득이 행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소득 이외의 다른 많은 사회적 변수가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수들은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정치적 자유, 강한 사회적 유대감(공동체), 부패의 부재 등임.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 증대에 필요한 사회제도 개선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수준의 분석단위에서 행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신적·육체적 건강”, “타인에 대한 신뢰”, “직업 안정성”, “안정된 가정”이 핵심 요인임. “실업”은 “사별/이혼”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 직업 안정성과 동료들과의 좋은 유대감은 높은 연봉과 편리한 근무시간보다 훨씬 더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난할수록 소득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나(불충분한 소득이 채워질수록,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 또한 증가), 일단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이 충족되면 소득은 더 이상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하면 기초 생활수준이 행복의 필수조건인 반면, 그 기초선을 넘어서면 소득보다 인간관계의 질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가 행복과 직결됨
- 행복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중년(40~50세) 세대가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U자형 함수 형태를 보임. 다시 말하면 중년세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음. 과거의 경험(낙관적/비관적)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비관적 경험보다 낙관적 경험이 2~3배 더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

1 2 조사 방법

1 2 1 변수 및 데이터 수집

- the Gallup World Poll(GWP), the World Value Survey(WVS), the European Social Survey(ESS)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각 국가의 인구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

1 2 2 척도

- 0~10점 기준(0점 : 행복하지 않음/불만족, 10점 : 행복함/만족)

1 2 3 변수

-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로서, 각 요인변수가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

표 2-1 UN, World Happiness Report 변수

구분	독립변수(행복 결정 요인)	종속변수	
외부적 요인 (external)	소득 (+)	Well being (행복 / 생활만족도)	
	직업		- 실업 (-) - 직업의 질 (+) - 자영업 x - 은퇴 x
	커뮤니티 및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 신뢰 (+) - 결속형 자본과 연계형 자본 ³ (+) (Bonding and bridging capital) - 자유 (+) - 평등 (+)
개인적 요인 (personal)	가치 및 종교	- 종교 x - 이타주의 (+) - 물질만능주의 (-) - 환경(environment) (+)	
	정신적 건강 (+)		
	육체적 건강 (+)		
	가족 관계	- 혼인상태(이혼/별거/사별) (-) - 자녀수 (-)	
	학력 (+)		
성 (여자 +)			
연령 (-)(+)			

주 : 각 요인은 행복과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를 가짐

(ex. 학력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시에 행복은 개인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침)

(ex. 건강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시에 행복은 건강에 영향을 미침)

1.3 조사기관별 데이터 특징 및 결과

1.3.1 the Gallup World Poll(GWP)

-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150개국 이상, 15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

3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나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묶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배타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앞세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반면,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은 “외부 지향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체성과 호혜성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종차별운동처럼 공동의 대의명분을 가진 운동에 참여한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으로 설문하였으며, 0~10점 기준, II-point ladder scale(칸트릴 척도 (Cantril ladder) 참고)을 사용함. 응답유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26.2%가 중간점수인 5점을 선택(0~10점 기준)하였으며, 이 서베이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대해 차지하는 영향은 42% 정도로 나타남

- 가장 행복한 상위 4개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은 평균 7.6점, 하위 4개국(토고, 베닌,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시에라리온)은 평균 3.4점이며 한국은 56위임. 행복점수가 높은 상위 국가들(예 :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 내 행복 편차가 적은 반면, 10위와 11위를 차지한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국가 내 행복 편차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국가별로 국가 평균과 표준편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으나,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국가 행복 평균이 높을수록 행복 편차가 적은 반면, 그 외 국가에서는 평균이 높을수록 표준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됨
- OECD의 최근 보고서는 지난 20년 이상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소득 불평등 증가와 행복 불균등 증가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 없음

132 the European Social Survey(ESS)

- 10점 척도(0~10점 기준)로 29개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균 행복점수는 7.01점
- GWP 05-11의 결과와 유사

133 the World Value Survey(WVS)

- 4점 척도 : Very Happy, Quite Happy, Not Very Happy, Not at all Happy
- GWP 05-11의 결과와 유사

the European Value Survey(EVS)

- 4점 척도 : Very Happy, Quite Happy, Not Very Happy, Not at all Hap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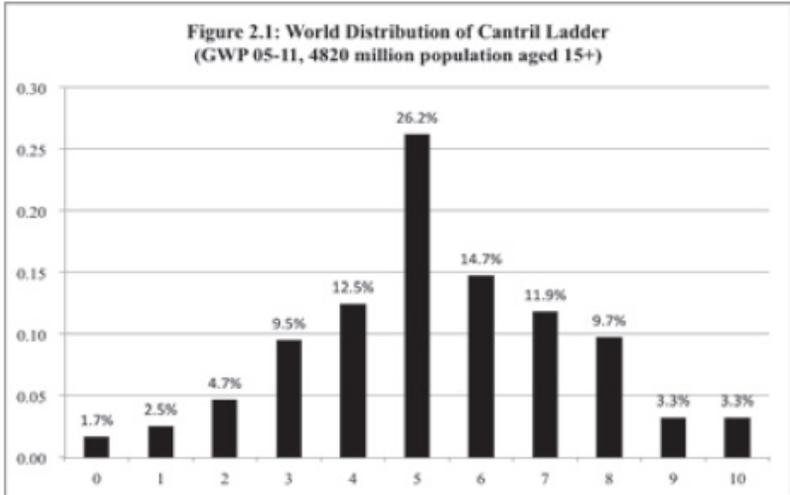


그림 2-1 전 세계 행복 분포도 : 2005~2011년(총 4,820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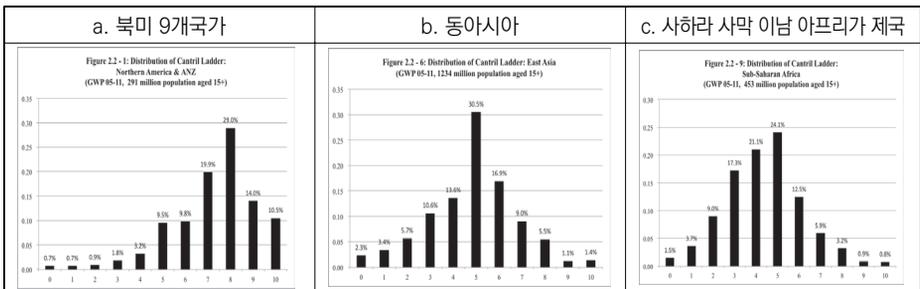


그림 2-2 대륙별 행복 분포도 : 2005~2011년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contain much less that differs from one community or country to another (as shown in Table 2.1), but if collected in suitable ways can unravel important aspects of life as it is actually experienced.

Table 2.1 Inter-Country Shares of Total Variance

Data Source	Well-Being Measures	Inter-Country Share of Total Variance
GWP 05-11	Cantril Ladder (life evaluation)	0.222
GWP 07-10	Life Satisfaction (life evaluation)	0.327
GWP 05-11	Happiness (yesterday)	0.068
GWP 05-11	Positive Affect (yesterday)	0.072
GWP 05-11	Negative Affect (yesterday)	0.042
GWP 05-11	Net Affect (yesterday)	0.061
GWP 05-11	Log of Income	0.422
ESS round 4	Life Satisfaction (life evaluation)	0.172
ESS round 4	Happiness (life evaluation)	0.146
ESS round 4	Log of Income	0.384
WVS 3-5	Life Satisfaction (life evaluation)	0.143
WVS 3-5	Happiness (four point scale)	0.115

척도

10점 만점
(0-10)

10점 만점
(0-10)

4점 척도

Notes: (1) To construct numerical income from the categorical income class in ESS round 4, we use midpoints for non-top income categories and 1.5* (bottom boundary) for the top income category. Household income in local currency units in ESS round 4 is converted to international dollars by multiplying by the PPP conversion factor from WDI (2011). Note that the PPP conversion ratio for Slovakia is for euro and international dollar, however, the household income is measured by Slovak crown in the survey. Household income for Slovak respondents is then divided by 30.126, the official exchange rate between Slovak crown and euro, before applying the PPP conversion factor. (2) WVS 3-5 refers to the WVS round 3-5 and EVS round 4-5.

그림 2-3 조사기관별 행복 분석 결과 비교

- 주 : 1) Positive Affect (yesterday) : (과거 경험)즐거움, 웃음, 행복에 관한 평균 빈도 <yes(1) or No(0) 응답>
 2) Negative Affect (yesterday) : (과거 경험)걱정, 슬픔, 분노, 좌절에 관한 평균 빈도 <yes(1) or No(0) 응답>
 3) Net Affect (yesterday) = Positive Affect (yesterday) - Negative Affect (yester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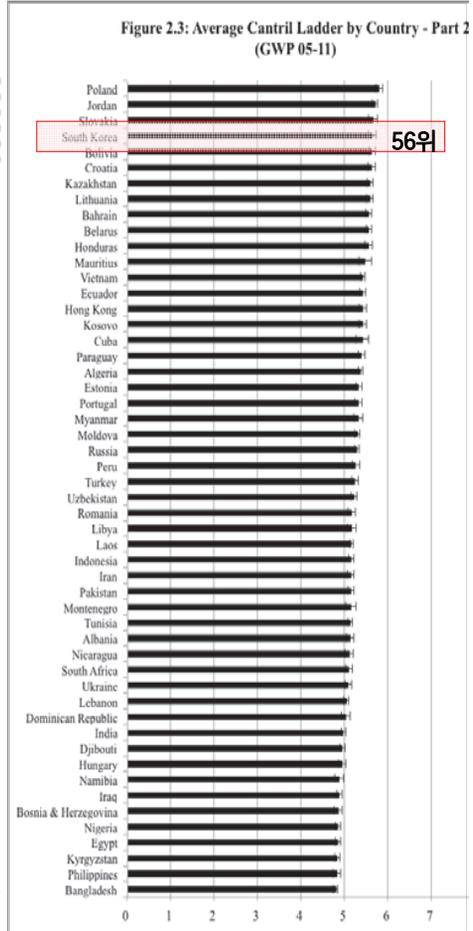


그림 2-4 국가별 평균 행복점수(95% 신뢰수준)

주 : 1) 2005~2011년 자료를 통합하여 산출

2) 상위 4개국은 평균 7.6점, 하위 4개국은 평균 3.4점(한국은 56위 차지)

표 2-2 행복점수 상위 4개국 vs 하위 4개국 비교

변수	상위 4개국	하위 4개국
소득	하위 4개국에 비해 40배 정도 소득 높음	-
건강수명	하위 4개국에 비해 28년 더 높음	-
대인관계	95%	48%
정치적 자유 또는 개인의 선택 등	94%	63%
정부와 기업의 부패 정도	33%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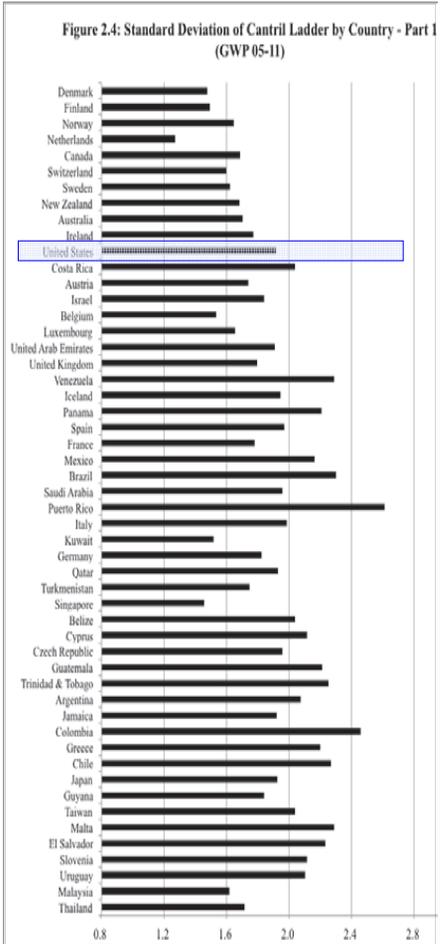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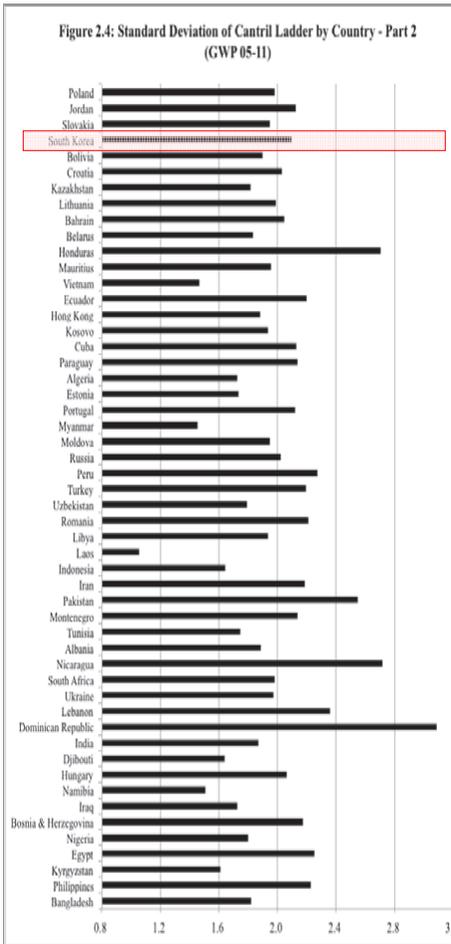


그림 2-5 국가별 행복에 대한 국내 불균등 정도(표준편차) (그림 2-4의 정렬 순서 유지)

- 주 : 1) 표준편차를 통해 국가 내 행복에 대해 인식하는 불균등 정도를 보여줌
 2) 이때, 나라마다 행복에 대한 불균등 정도를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값)로 계산한다면, 그림 5는 그림 4의 순위에 따라 불균등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그래프로 도식화됨

2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3

2.1 개요

- 2007~2008년의 재정위기가 행복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세상은 더 행복한 곳이 되고 있음. 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

리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부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유럽이 사회구조의 질을 계속 수렴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기 때문이며 행복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함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삶의 질이 개선된 반면, 서유럽과 다른 서유럽 산업국가는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삶의 질이 감소하였으며,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재정위기, 정치 및 사회의 불안정성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졌음. 특히 유로존의 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서유럽 4곳은 소득감소나 실업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2.2 조사방법

- UN지속가능개발대책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캐나다선행연구소, 런던 정치경제대학 등의 연구원들이 전 세계 156개국을 공동 연구하였음
- 2012년부터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Gallup World Poll 삶의 평가(life evaluations)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수준의 행복수준을 평가함
- 1인당 GDP, 사회적 지지, 기대수명,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부패로부터의 자유, 관용이라는 6가지 변수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함

2.3 조사결과

- 가장 행복한 상위 5개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순이며 가장 불행한 하위 5개국은 토고, 베냉,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부룬디, 르완다임
- 한국은 6.267점으로 2012년 56위에서 2013년 41위로 상승함
- 2005~2007년과 2010~2012년의 행복수준을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그림 2-6과 같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

고, 중동과 북아메리카가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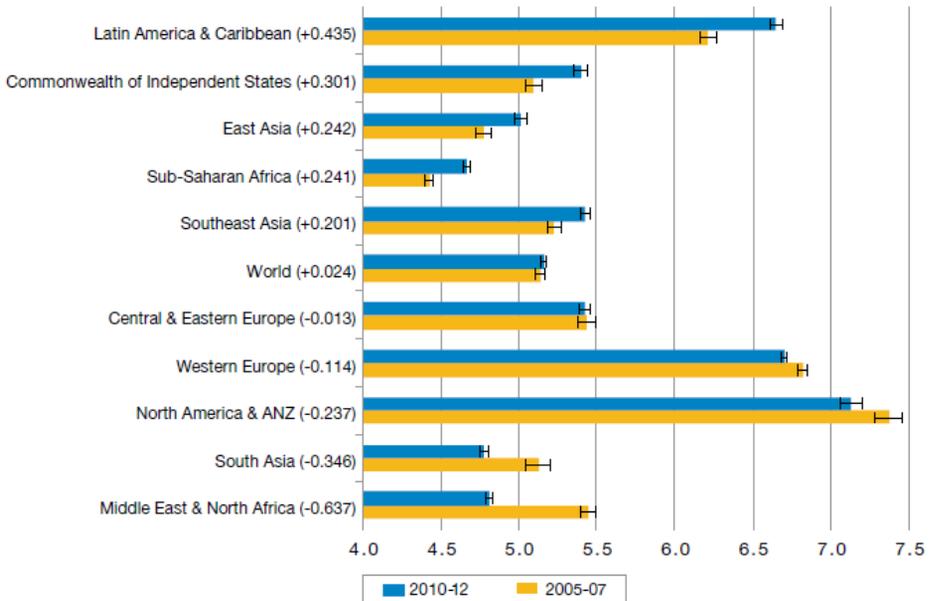


그림 2-6 2005~2007년과 2010~2012년의 행복수준 비교

3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3.1 개요

-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부탄국왕(Jigme Singye Wangchuck)은 취임 2년 만인 1974년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 GNH)을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함
- 국민총행복 개념은 크게 좋은 정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문화 보존, 환경보전이라는 4가지 틀로 설명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이 4가지 틀을 다시 9가지 범주(심리적 행복, 건강, 교육, 시간활용, 문화적 다양성과 회복력, 굿거버넌스, 지역사회 활성화, 생태적 다양성과 회복력, 생

활수준)로 구분함

- 제66차 UN총회(2012년 4월 2일)에서 지그메 툰리 부탄총리는 복지와 행복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발전 정도를 GDP나 GNI가 아닌 GNH에 의해 측정할 것을 주장함
- 2006년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 1차조사, 2010년 2차조사가 실시되었고, 2014년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3.2 조사방법

3.2.1 GNH Survey 2010

- 7,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영역은 건강, 시간 활용 방법, 생활수준, 공동체, 심리적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올바른 정치 등 9개 분야
- 2010년 조사에서는 2006년 행복지수(GNH)결과를 개선하여 반영
- 9가지 영역안에 3~4가지의 세부영역과 총 33개의 지표로 구성
- 각 분야의 가중치는 동일하지만 자체평가할 수 있는 분야는 객관적인 분야에 비해 가중치가 더 낮음

표 2-3 부탄의 33개 GNH 지표

영역	변수	가중치
심리적 행복(4)	삶의 만족도	33%
	긍정적 감정	17%
	부정적 감정	17%
	영적 추구(Spirituality)	33%
건강(4)	주관적 건강상태	10%
	건강일수	30%
	장애	30%
	정신건강	30%
시간활용(2)	근로시간	50%
	수면시간	50%

표 계속 부탄의 33개 GNH 지표

영역	변수	가중치
교육(4)	이해능력	30%
	교육수준	30%
	지식	20%
	가치	20%
문화다양성과 회복력(4)	모국어 구사수준	20%
	예술적 기술	30%
	사회-문화적 참여	30%
	규범	20%
굿거버넌스(4)	정치참여	40%
	기본권(정치적 자유)	10%
	서비스 전달	40%
	정부 성과	10%
지역사회 활성화(4)	기부(시간과 비용)	30%
	지역사회 관계	20%
	가족	20%
	안전성	30%
생태다양성 및 회복력(4)	생태문제(오염)	10%
	환경에 대한 책임	10%
	자연환경 파괴(농촌)	40%
	도시화문제	40%
생활수준(3)	가구소득	33%
	자산	33%
	주거의 질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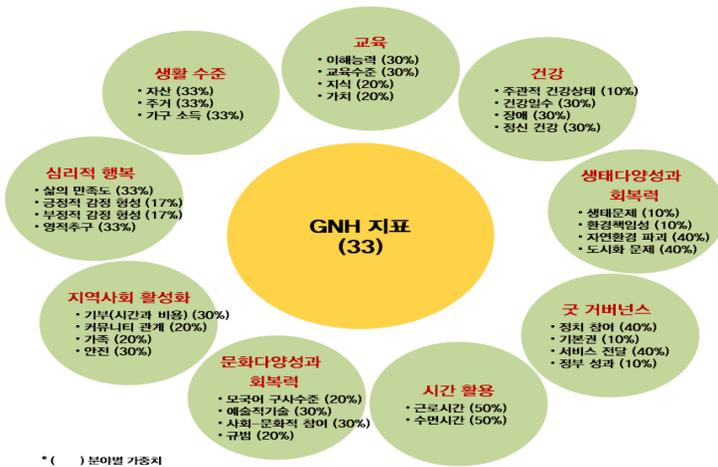


그림 2-7 GNH의 지표

GNH 방법론

- Alkire Foster(2007, 2011)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다차원의 개념으로 행복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만족도 (sufficiency)를 고려해 그룹을 행복/불행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눔
- Alkire Foster법을 이용해 GNH Index와 2개의 숫자를 사용함
 1. headcount ratio : 행복한 사람들의 퍼센트
 2. Breadth :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만족도(sufficiency)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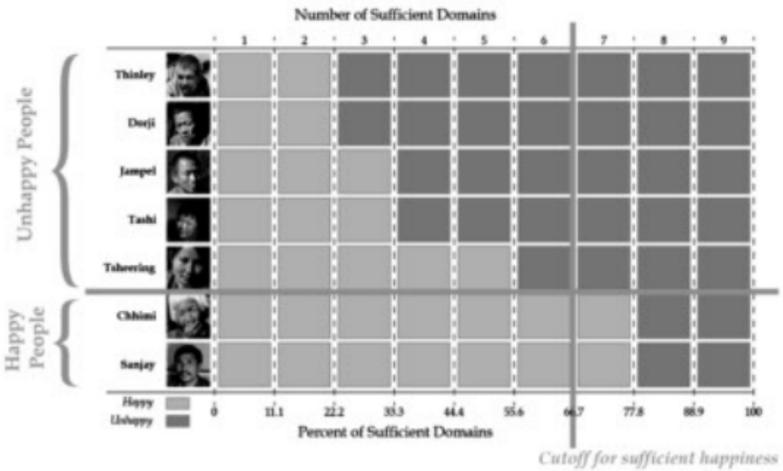


그림 2-8 GNH로 행복한 인구 측정

조사결과

결과 요약

- 부탄의 GNH value는 0.737로, 48%의 인구가 행복하다고 생각함(행복의 기준 : 6개의 범주 중 4가지를 성취)
- 대부분의 부탄 시민이 안전, 모국어, 가족, 정신건강, 도시화 논의 주제, 환경 책임, 생활만족도,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함

- 시민의 50~60%만 생태계 논쟁, 부정적 감정 형성, 지역사회 관계 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
- 절반 이하의 부탄 시민이 읽기쓰기, 주택공급, 기부, 서비스, 직장, 교육, 문화 참여에 대해 만족함. 연구결과, 제일 행복하지 않은 시민들은 소득이 비교적 낮은 이주자들로 나타남

3.3.2 도시와 지방 간의 행복지수 차이

- 지방 거주자가 대체적으로 도시 거주자보다 덜 행복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음
- 지역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다름
- 지방에서는 지역사회, 문화적 다양성, 정부의 공정성이 중요시된 반면, 도시에서는 생활기준, 교육, 건강이 더 중요한 행복요소로 파악됨



그림 2-9 지역별 분야별 행복지수

333 세부결과

1) 성별

- 전반적으로 남성(0.783)은 여성(0.701)보다 행복지수가 높음(전체평균 : 0.737)
- 남성은 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심리적 행복이 높게 평가됨

2) 연령

- 0~10점 기준(0점 : not a very happy person 10점 : very happy person)
- 부탄에서는 청년형 인구가 가장 행복한 그룹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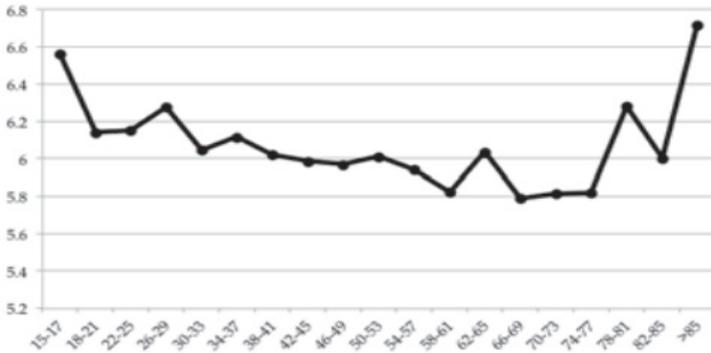


그림 2-10 연령별 행복지수

3) 교육수준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기준, 교육의 행복지수는 증가하지만 통치와 문화에 대한 기대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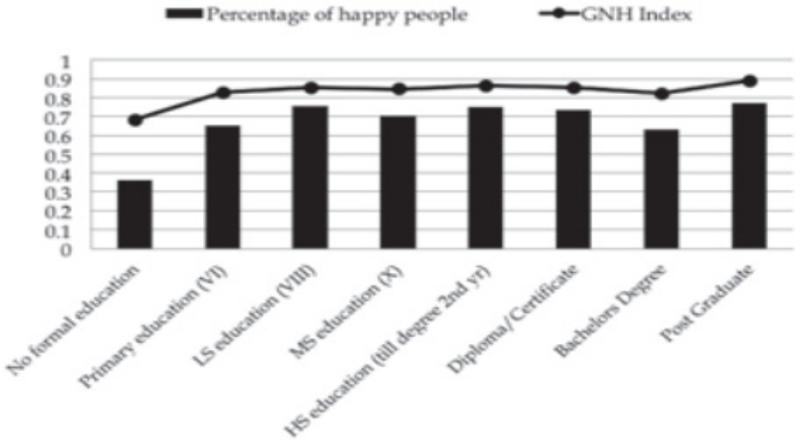


그림 2-11 교육수준별 행복지수

4) THE DEEPLY HAPPY

- 인구의 8.6%는 9개의 분야에서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함
- 다양한 개인 배경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농부이며, 그다음이 공무원으로 조사됨
- 9개의 분야 중 건강, 생활기준, 시간 활용법, 심리적 행복이 가장 높게 평가됨

2/3 남, 1/3 여
 69% 지방, 31% 도시 거주
 59% 40대
 84% 결혼, 12% 미혼, 나머지 이혼/widow
 26% 정식 교육 받지 못함. 28% 초등학교 졸업

5) THE UNHAPPY

- 인구의 10.4%가 9개의 분야에서 행복하지 않음(불행)으로 나타남

69% 여성, 31% 남성
 84% 지방 거주
 57% 40대 이상
 75% 결혼함
 90% 정식 교육 못 받음

6)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

- GNH Index의 장점은 정부뿐만 아니라 누구든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 GNH Index의 전체 값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의 수를 늘리거나, “not-yet-happy” 사람들의 만족 영역(domain) 비중을 증대시켜야 함
- 9개 분야 중에서 교육문제가 가장 큰 불행의 원인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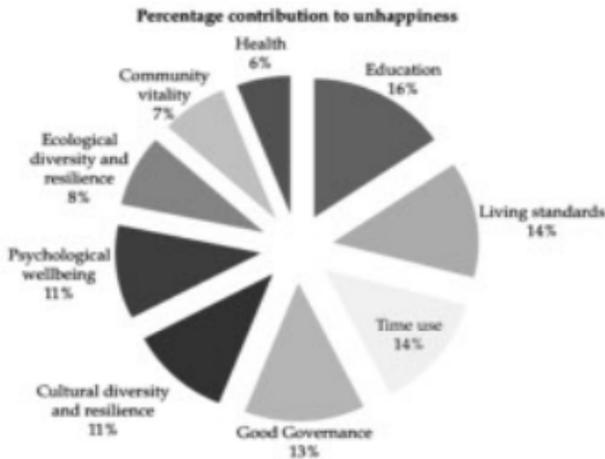


그림 2-12 불행(unhappiness) 원인의 이해

3.4 GNP 정책스크리닝

- 목표
- 이는 GNH 관련 공공정책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영향을 GNH의 주요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행복영향사전평가제와 같은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프로젝트 구축 과정에서 모든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젝트 전개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법을 지원

- 잠재적 영향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프로젝트에 반영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 간에 프로젝트 영향에서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
- GNP 정책 스크리닝
- 국민들의 행복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하고, 어디서 부족감을 느끼는지 질문해야 함. 즉,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함. 또한 이러한 분석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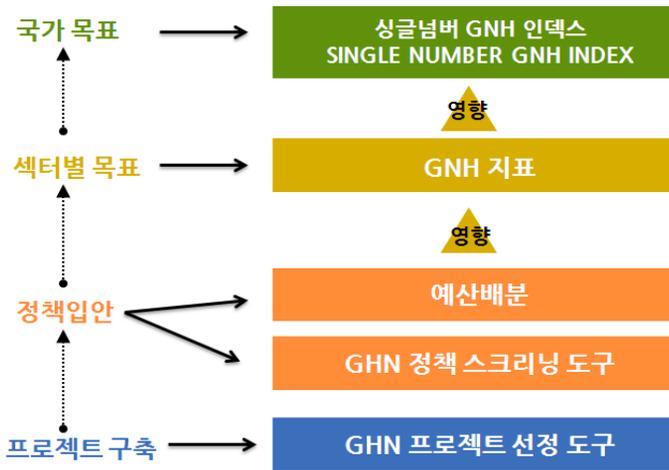


그림 2-13 GNP와 정책의 연계과정

- GNH 정책 스크리닝 도구를 통한 정책평가 영역
- HRD 정책 2010
 - 3차 교육 정책 2010
 - 국가 보건 정책 2011
 - 재생 에너지 정책

- 국가 청소년 정책
 - 국가 토지 정책
 - 광업 개발 정책
 - 국가 관개수로 정책
 - MSME 정책
 - RNR 리서치 정책
- 정책구성 과정
 - 정책 초안은 각 해당 섹터 및 CNHCS에서 (각각 별개로) 국민총행복 (GNH) 정책 스크리닝 도구 측으로 전달
 - 정책 심의를 위한 스크리닝 실시 이전에 제안 섹터와 GNH 위원회 사무국 간에 양자회의를 열어 GNH 지표가 해당 정책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
 - 스크리닝 과정은 참여 사안별로 별도로 이루어짐(정책 초안 및 스크리닝 도구는 회의 며칠 전에 공유)
 - 사안마다 개별적인 결과는 스크리닝 회의에서 논의 및 편집
 - 최소한 15인 이상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석
 - 제안 섹터의 성별 핵심 담당자(Gender Focal Point), 환경 부문 대표 및 기타 외부 관계자들이 스크리닝 과정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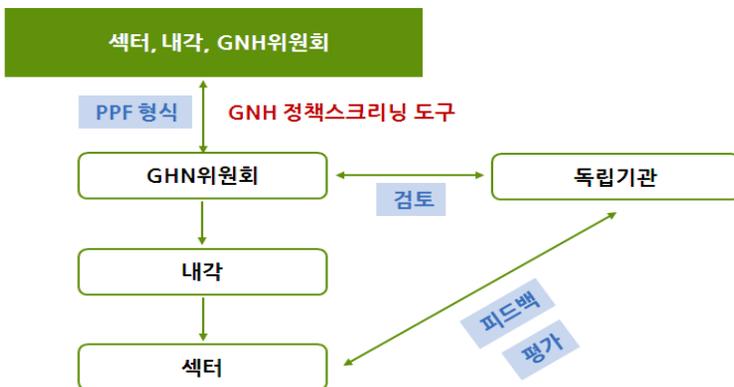


그림 2-14 정책구성과정

○ GHN 정책 스크리닝 틀의 기준

재산 가치	권리	동물 보존
경제적 안정	성평등	사회적 지지
물질적 웰빙	정보	가족
생산적 활동에 참여	학습	자연
의사 결정의 기회	건강	레크리에이션
부패	수질 오염	문화
사법 제도 효율성	공기 오염	가치
사법 제도 접근성	토질 저해	영적인 추구
	식물 보존	스트레스

○ 정책 스크리닝 평가 과정

- 다양한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주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수정
- 정책 스크리닝 예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2-15 부탄의 행복지수 정책 스크리닝 평가과정

- 정책스크리닝 결과 : 재생에너지 개발정책-MoEA GNH 정책 스크리닝 도구 결과

- 전체점수 : MoEA : 86.46점 /GNHC : 83.40점
- 재산 가치, 부패, 사회적 평등 및 스트레스 등에서 공통적으로 3점 이하를 받으면 개선이 필요
- 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GHN 정책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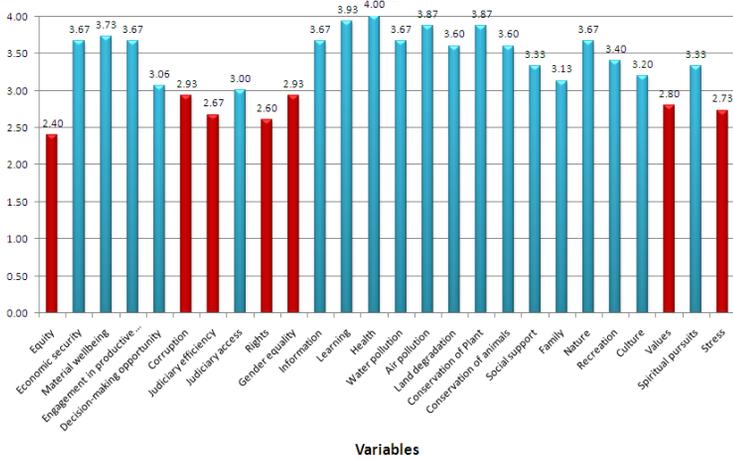


그림 2-16 MoEA 점수

4 UN, Human Development Index(HDI)

4.1 개요

- o 인간개발지수(HDI)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의해 매년 각국의 ‘평균 수명(a long and healthy life), 교육수준(Knowledge), 생활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임
- 2006년부터 매년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사회·경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웰빙을 정량화하려는 UNDP의 대표적 업적으로 자리매김함

- 1990년부터 Human Development Reports(HDRs)를 통해 각 영역 구성 지표들의 평균 성취도를 측정(총 206개 지표)
- o ‘Human Development’는 인간의 자유와 능력의 확장된 개념으로, HDI는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적 지수로, HDI 랭킹을 따로 선진국 랭킹 또는 삶의 질 랭킹으로도 불림
- 소득, 교육, 빈곤, 실업, 환경, 건강, 종교 등 인간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요소를 기초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행복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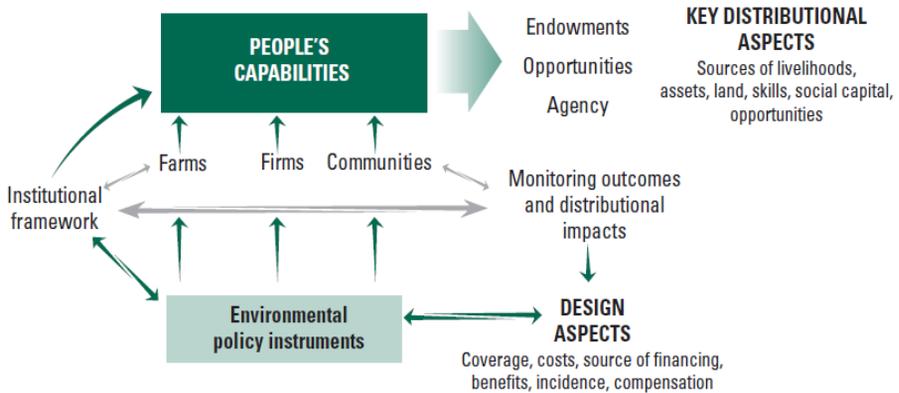


그림 2-17 Integrating Equity into Policy Design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4.2 조사방법

- o 총 192개 UN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을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하며,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분류
- o IMF에서 제공하는 PPP기준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외에 UNDP 자체조사인 각국 초·중·고등 교육수준, 문맹률, 기대수명, 의료수준 등의 자료 포함

- HDI를 산출할 때, GDP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핵심요소가 아니므로 1인당 소득이 비슷해도 결과는 큰 차이가 남
- 1인당 소득이 비슷한 뉴질랜드(2만 3,737달러)와 바하마(2만 3,029달러)는 2011년 HDI 순위에서 각각 5위와 53위를 기록

표 2-4 UN, Human Development Index(HDI) 지표정의

구분	영역	지표	
Human Development Index (HDI)	건강 및 기대수명	0세 기준 기대 수명	
	교육수준	평균 교육기간	
		교육 예상 기간	
생활수준	1인당 GNI(PPP\$)		
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IHDI)	건강 및 기대수명	불평등 조정 기대여명	
	교육수준	불평등 조정 평균 교육기간	
		불평등 조정 교육 예상 기간	
생활수준	불평등 조정 소득 지표 1인당 GNI(PPP\$)		
Gender Inequality Index (GII)	건강	모성 사망 비율 청소년 출산율	
	능력	중등교육 이상 여성/남성 인구 여성과 남성의 의회 의석 수	
	노동시장	여성과 남성의 노동 참여율	
	여성 생식 건강	피임률(15-49세 기혼 여성) 출산율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건강	빈곤 인구수 유아 및 영아 사망률	
	교육수준	교육 기간 입학률	
		생활수준	조리 연료(나무, 숯, 배설물 등) 위생(화장실 등) 수질 전기 방충수 자산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	1차 에너지 공급률 (화석 연료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태양열, 풍력, 바이오 매스, 지열, 수력 및 해양 자원 및 일부 폐기물 등)

표 계속 UN, Human Development Index(HDI) 지표정의

구분	영역	지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	1차 에너지 공급률 (화석 연료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태양열, 풍력, 바이오 매스, 지열, 수력 및 해양 자원 및 일부 폐기물 등)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 환경 오염(미세먼지 농도) 자연 자원 고갈 비율(%) 담수 유출량(%) 산림지역(%) 산림지역 용도 변경률 멸종 위기 동물 비율					
		웰빙	생활만족도(0~10점)				
			환경	지구 온난화(% yes) 기후 변화 위험도(% 심각성) 환경 단체 참여율 배출량 감축 관련 정부 활동 만족도 환경 보호 노력 만족도 대기 만족도 수질 만족도			
		교육		성인 문맹 퇴치율(15세 이상) 초중고 입학률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전문교사 비율			
				건강	예방접종 비율(홍역, 백신 등) 5세 이하 사망률 성인 사망률 HIV 감염률 건강 기대 수명		
					인구	총인구(7월 1일 기준) 연평균 인구 성장률 도시인구율(7월 1일 기준) 중위연령(하위 50% 이상~ 상위 50% 이하)	
						경제	부양비(생산연령(15~64세)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0~14세+65세 이상)의 비율) 1인당 GDP 외국인 직접 투자율 공적 개발 원조 보조율 해외 송금률 교육비 의료비

출처 : Survey Questions in Gallup,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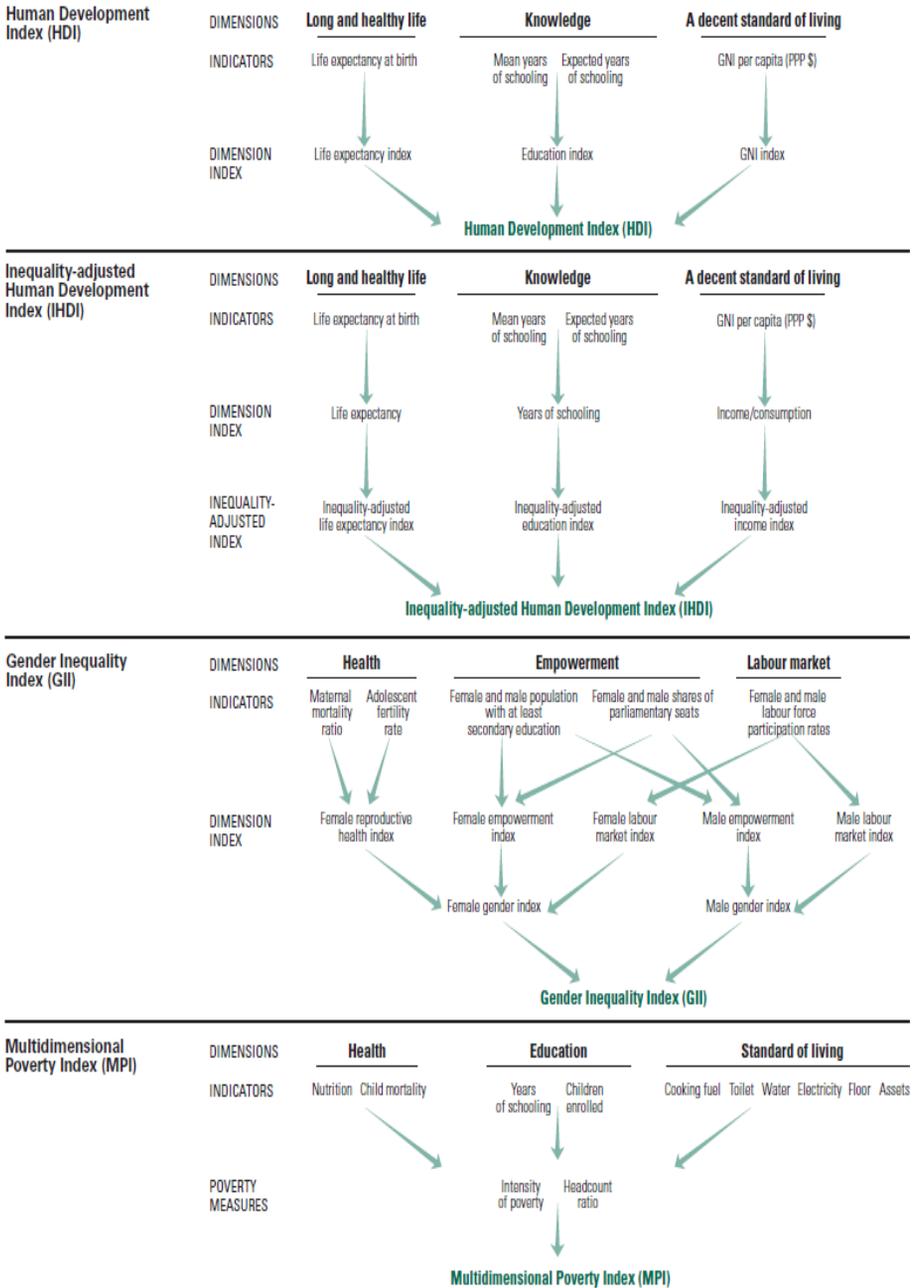


그림 2-18 Calculating the Human Development indices-graphical Presentation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조사결과

- 2012년(총 186개국) 한국은 12위를 기록하며 HDI가 매우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11년에는 총 187개국 가운데 한국은 15위, '98년에는 총 137개국 가운데 37위 차지)
- 노르웨이(0.955), 호주(0.938), 미국(0.937), 네덜란드(0.921), 독일(0.920), 뉴질랜드(0.919), 아일랜드(0.916), 스웨덴(0.916), 스위스(0.913), 일본(0.912), 캐나다(0.911), 대한민국(0.909) 순
- 일부 유럽 국가는 한국보다 1인당 GDP, GNI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낮음

HDI rank	Human Development Index	Inequality-adjusted HDI		Gender Inequality Index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Value	Value	Rank	Value	Rank	Value	Year
VERY HIGH HUMAN DEVELOPMENT							
1	Norway	0.955	0.894	1	0.065	5	..
2	Australia	0.938	0.864	2	0.115	17	..
3	United States	0.937	0.821	16	0.256	42	..
4	Netherlands	0.921	0.857	4	0.045	1	..
5	Germany	0.920	0.856	5	0.075	6	..
6	New Zealand	0.919	0.164	31	..
7	Ireland	0.916	0.850	6	0.121	19	..
7	Sweden	0.916	0.859	3	0.055	2	..
9	Switzerland	0.913	0.849	7	0.057	3	..
10	Japan	0.912	0.131	21	..
11	Canada	0.911	0.832	13	0.119	18	..
12	Korea, Republic of	0.909	0.758	28	0.153	27	..
13	Hong Kong, China (SAR)	0.906
13	Iceland	0.906	0.848	8	0.089	10	..
15	Denmark	0.901	0.845	9	0.057	3	..
16	Israel	0.900	0.790	21	0.144	25	..
17	Belgium	0.897	0.825	15	0.098	12	..
18	Austria	0.895	0.837	12	0.102	14	..
18	Singapore	0.895	0.101	13	..
20	France	0.893	0.812	18	0.093	9	..
21	Finland	0.892	0.839	11	0.075	6	..
21	Slovenia	0.892	0.840	10	0.080	8	0.000 2003
23	Spain	0.885	0.796	20	0.103	15	..
24	Liechtenstein	0.883
25	Italy	0.881	0.776	24	0.094	11	..
26	Luxembourg	0.875	0.813	17	0.149	26	..
26	United Kingdom	0.875	0.802	19	0.205	34	..
28	Czech Republic	0.873	0.826	14	0.122	20	0.010 2002/2003
29	Greece	0.860	0.760	27	0.136	23	..
30	Bhunei Darussalam	0.855
31	Cyprus	0.848	0.751	29	0.134	22	..
32	Malta	0.847	0.778	23	0.236	39	..
33	Andorra	0.846
33	Estonia	0.846	0.770	25	0.158	29	0.026 2003
35	Slovakia	0.840	0.788	22	0.171	32	0.000 2003
36	Qatar	0.834	0.546	117	..
37	Hungary	0.831	0.769	26	0.256	42	0.016 2003
38	Barbados	0.825	0.343	61	..
39	Poland	0.821	0.740	30	0.140	24	..
40	Chile	0.819	0.664	41	0.360	66	..
41	Lithuania	0.818	0.727	33	0.157	28	..
41	United Arab Emirates	0.818	0.241	40	0.002 2003
43	Portugal	0.816	0.729	32	0.114	16	..
44	Latvia	0.814	0.726	35	0.216	36	0.006 2003
45	Argentina	0.811	0.653	43	0.380	71	0.011 2005
46	Seychelles	0.806
47	Croatia	0.805	0.683	39	0.179	33	0.016 2003

그림 2-19 Human Development Indices

주 : Not available, 0 or 0.0 Nil or negligible, - Not applicable, < Less than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표 2-5 Human Development Index(HDI), 2013년 순위

Very High Human Development		High Human Development		Medium Human Development		Low Human Development	
1	Norway	48	Bahrain	95	Tonga	142	Congo
2	Australia	49	Bahamas	96	Belize	143	Solomon Islands
3	United States	50	Belarus	96	Dominican Republic	144	Sao Tome and Principe
4	Netherlands	51	Uruguay	96	Fiji	145	Kenya
5	Germany	52	Montenegro	96	Samoa	146	Bangladesh
6	New Zealand	52	Palau	100	Jordan	146	Pakistan
7	Ireland	54	Kuwait	101	China	148	Angola
7	Sweden	55	Russian Federation	102	Turkmenistan	149	Myanmar
9	Switzerland	56	Romania	103	Thailand	150	Cameroon
10	Japan	57	Bulgaria	104	Maldives	151	Madagascar
11	Canada	57	Saudi Arabia	105	Suriname	152	Tanzania, United Republic of
12	Korea, Republic of	59	Cuba	106	Gabon	153	Nigeria
13	Hong Kong, China (SAR)	59	Panama	107	El Salvador	154	Senegal
13	Iceland	61	Mexico	108	Bolivia, Plurinatin	155	Mauritania
15	Denmark	62	Costa Rica	108	Mongolia	156	Papua New Guinea
16	Israel	63	Grenada	110	Palestine, State	157	Nepal
17	Belgium	64	Libya	111	Paraguay	158	Lesotho
18	Austria	64	Malaysia	112	Egypt	159	Togo
18	Singapore	64	Serbia	113	Moldova, Republic	160	Yemen
20	France	67	Antigua and Barbuda	114	Philippines	161	Haiti
21	Finland	67	Trinidad and Tobago	114	Uzbekistan	161	Uganda
21	Slovenia	69	Kazakhstan	116	Syrian Arab Repub	163	Zambia
23	Spain	70	Albania	117	Micronesia, Feder	164	Djibouti
24	Liechtenstein	71	Venezuela, Bolivari	118	Guyana	165	Gambia
25	Italy	72	Dominica	119	Botswana	166	Benin

표 계속 Human Development Index(HDI), 2013년 순위

Very High Human Development		High Human Development		Medium Human Development		Low Human Development	
26	Luxembourg	72	Georgia	120	Honduras	167	Rwanda
26	United Kingdom	72	Lebanon	121	Indonesia	168	Côte d'Ivoire
28	Czech Republic	72	Saint Kitts and Nev	121	Kiribati	169	Comoros
29	Greece	76	Iran, Islamic Repub	121	South Africa	170	Malawi
30	Brunei	77	Peru	124	Vanuatu	171	Sudan
31	Cyprus	78	The former Yugoslav	125	Kyrgyzstan	172	Zimbabwe
33	Andorra	78	Ukraine	125	Tajikistan	173	Ethiopia
33	Estonia	80	Mauritius	127	Viet Nam	174	Liberia
35	Slovakia	81	Bosnia and Herzegov	128	Namibia	175	Afghanistan
36	Qatar	82	Azerbaijan	129	Nicaragua	176	Guinea-Bissau
37	Hungary	83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30	Morocco	177	Sierra Leone
38	Barbados	84	Oman	131	Iraq	178	Burundi
39	Poland	85	Brazil	132	Cape Verde	178	Guinea
40	Chile	85	Jamaica	133	Guatemala	180	Central African Republic
41	Lithuania	87	Armenia	134	Timor-Leste	181	Eritrea
41	United Arab Emirates	88	Saint Lucia	135	Ghana	182	Mali
43	Portugal	89	Ecuador	136	Equatorial Guinea	183	Burkina Faso
44	Latvia	90	Turkey	136	India	184	Chad
45	Argentina	91	Colombia	138	Cambodia	185	Mozambique
46	Seychelles	92	Sri Lanka	138	Lao People's Dem	186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47	Croatia	93	Algeria	140	Bhutan	186	Niger
		94	Tunisia	141	Swaziland		

표 2-6 한국의 연도별 Human Development Index 점수 및 순위

연도	점수	순위
2012	0.909	12
2011	0.907	15
2010	0.905	14
2009	0.898	14
2008	0.895	14
2007	0.890	15
2006	0.882	17
2005	0.875	18
2000	0.839	22
1990	0.749	30
1980	0.640	36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10310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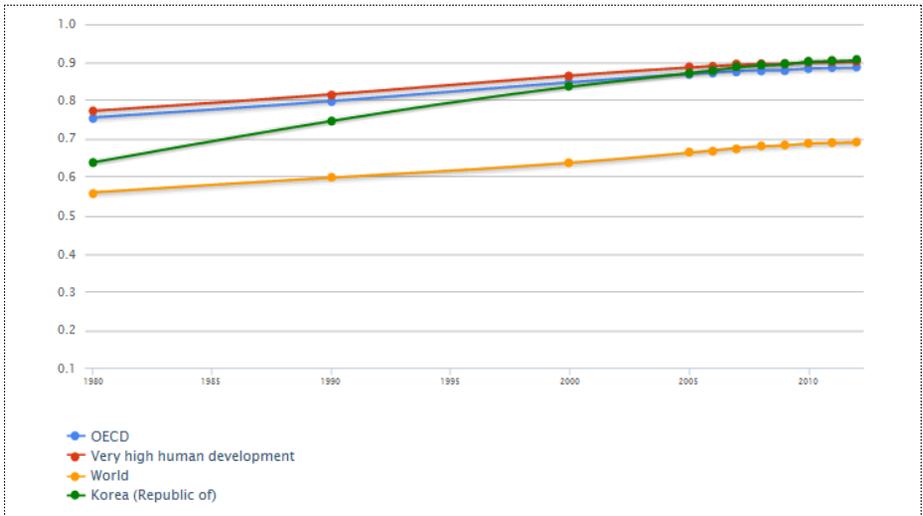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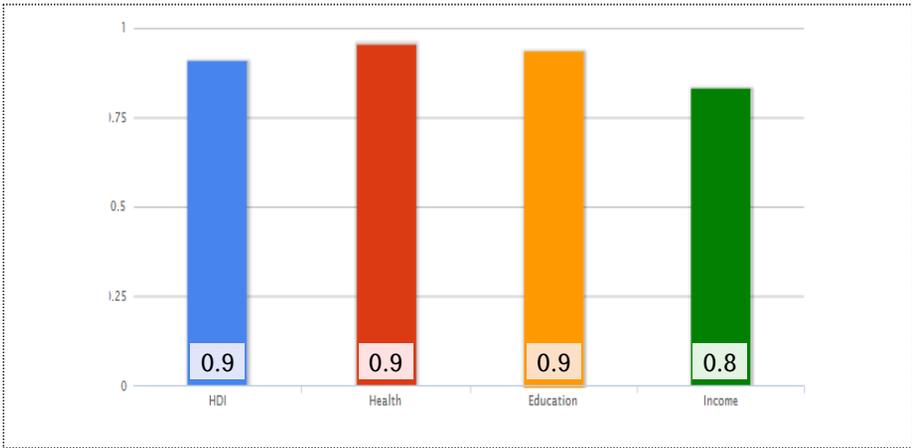


그림 2-20 한국의 HDI 점수 : 1980~2012년



출처 : <http://hdrstats.undp.org/en/countries/profiles/KOR.html>

그림 2-21 한국의 영역별 HDI 점수 : 건강, 교육, 소득

5 OECD, Better Life Initiative(BLI)

5.1 개요

- OECD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을 맞아 시작한 행복지수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
- 주거, 소득, 일자리, 커뮤니티,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생활 만족도, 치안, 일과 생활의 조화 등으로 각국의 점수는 경제지표 혹은 여론조사 등의 세 가지 자료에 근거해 측정(예컨대 일자리의 경우 실업률 지표와 근로시간, 임금 등)되며, 이 과정에서 개별 회원국 국민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의 삶의 질을 측정(다수 시민이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자문하는 구도)
- 이제까지 GDP는 경제와 사회발전을 측정 및 이해하기 위한 주요 요소였으나 치안, 여가, 소득재분배와 깨끗한 환경 등과 같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음. 즉, 행복지수는 경제발전과 함께 회원국 국민의 소득이 늘어났으나

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⁴에 주목하여 개발한 지표체계임

- OECD의 “Your Better Life Index”는 ‘더 나은 삶’ 혹은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중간 결과물 성격으로 국제수준에서 비교 및 분석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임
- OECD는 이 조사를 계기로 각국의 국민 후생을 제대로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유도
- 각 항목의 평균 점수에서 1위는 호주가 차지했고 이어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순
- 한국은 교육, 일자리, 치안, 시민참여 등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전체 순위는 26위를 기록
- 교육(2위), 일자리(11위), 치안(11위) 등에 비해 주거(28위), 환경(29위), 일과 생활의 조화(30위), 커뮤니티(33위) 등에서 한국은 하위권

표 2-7 행복지수 항목별 OECD 평균과 한국의 수치

OECD 평균을 0으로 봤을 때		
교육 +2.5	일자리 +1.3	치안 +0.7
시민참여 +0.6	일과 생활의 조화 -1.3	소득 -1.3
환경 -1.7	보건 -1.7	생활만족도 -1.8
주거 -2.3	커뮤니티 -6.1	

출처 : OECD

5.2 조사방법

- 전통적인 측정방법인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지역환경, 개인 안정과 전체적인 생활만족도 등 11개 영역에 대한 조사

⁴ 경제성장과 비례해 인류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자살 등 사회문제는 심각

- 11개 영역 : 커뮤니티,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주거, 소득, 일자리, 생활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조화
- o 34개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OECD 주요 파트너들의 Your Better Life Index 파악
- o 총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됨

표 2-8 OECD, Better Life Initiative(BLI) 지표 내용

영역	지표	산출방식
주거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1인당 평균 사용방수	방수/가구원수
	기본 시설 측면	화장실 수/가구원수
소득	평균 가구 순-조정 가처분 소득	세금 등을 제외한 연간소득
	가계재무자산	가계재무자산 가치(저금, 주식 등) - 대출비
일자리	직업안전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개인수입	정규직의 연간 평균 수입
	고용률	15~64세의 고용률(연간)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교육	교육기간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학생역량	PISA 점수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환경	수질오염	수질 만족도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시민 참여	법률 제정에서의 협의	법률제정에서 투명성 수준
	투표율	최근선거에서의 투표율(투표인수/등록인수)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나쁘다로 평가 "How is your health in general?"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생존연수
생활 만족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평가(0~10점)
치안	살인율	인구 100,000명당 살인발생건수
	폭행률	폭행률
일과 생활의 조화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잠자고 먹는 시간을 포함해서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장기근무시간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

- Your Better Life Index는 각 주제에 각기 다른 가중치 부여



그림 2-22 Better Life Index 11개 영역

5.3 조사결과

- OECD 행복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 항목의 평균 점수에서 호주가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순이며, 한국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26위, 일본은 19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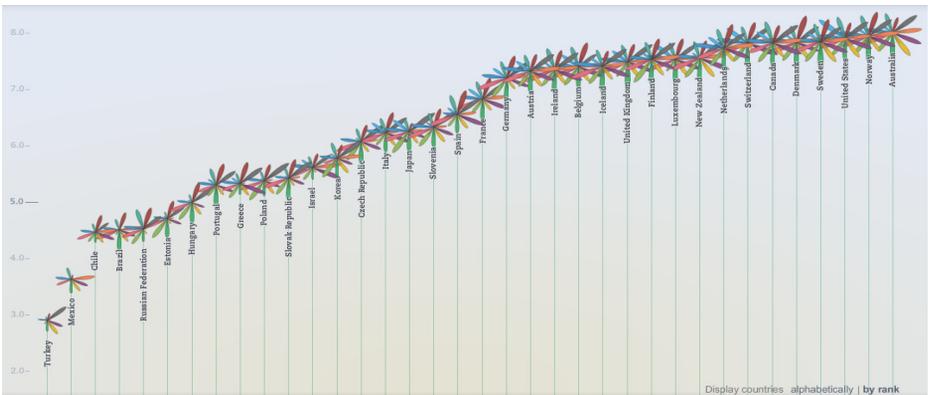


그림 2-23 국가별 행복지수 결과

- 한국은 교육, 치안, 일자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커뮤니티, 일과 생활의 조화, 주거, 소득 등에서는 최하위 그룹에 속함
- 사회적 유대를 측정하는 커뮤니티 영역에서 한국은 36개 국가 중 35위를 기록해 최하위에 해당함.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1%로 OECD 평균인 91%에 훨씬 못 미침

표 2-9 한국의 행복지수 : 영역별 결과비교

영역(점수)	지표	순위	한국	OECD
주거	주거비	2/36	평균 순가처분 소득의 16%	22%
	1인당 평균 사용방수	23/36	1.4개	1.6개
	기본 시설 측면	29/36	95.8%	97.8%
소득	평균 가구 순-조정 가처분 소득	27/36	연간 16,570\$	연간 22,387\$
	가계재무자산	20/36	23,715\$	36,238\$
일자리	직업안전성	36/36	25.8%	
	개인수입	23/36	연간 31,733\$	연간 34,033\$
	고용률	23/36	63% (남성 74%, 여성 53%) ⁵	66%
	실업률	1/36	0.01%	3.0%
커뮤니티	사회적 유대	35/36	81%	91%
교육	교육기간	20/36	17.2년	-
	학생역량	2/36	541점	497점
	교육정도	18/36	80%	74%
환경	수질오염	25/36	82%	85%
	환경오염	31/36	30.8 micrograms per cubic meter	22.0 micrograms per cubic meter
시민참여	법률 제정에서의 협의	6/36	10.4 index	
	투표율	29/36	63%	73%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34/36	38%	70%
	기대여명	16/36	80.7년	80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16/36	6.9점	6.7점
치안	살인건수	29/36	2.8	2.1
	폭행률	6/36	2.09%	4.0%
일과 생활의 조화	레저와 자기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21/36	14.63시간	14.8시간
	장기근무시간	33/36	22.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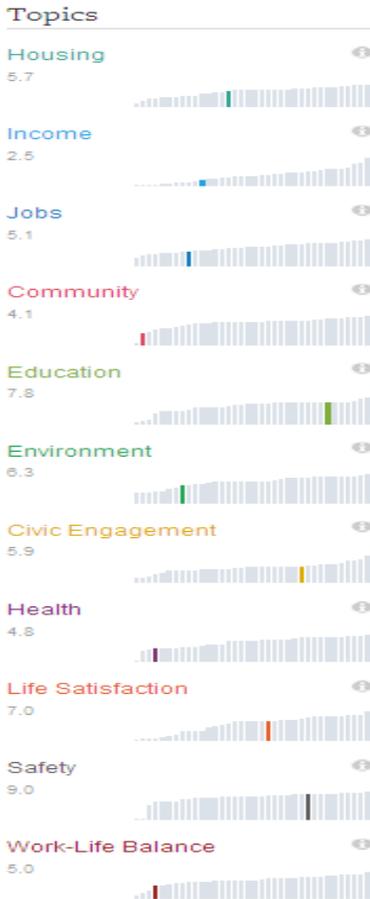


그림 2-24 분야별 한국의 행복지수 결과

6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National Well-being

6.1 개요

- 영국의 '경제성과 및 사회혁신 평가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5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는 21%로 OECD 평균 13%보다 많음. 성불평등성에서 30/31로 나타남.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는 2009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측정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측정으로의 변화가 적절했다”고 강조함

-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유럽 위원회와 OECD의 사회혁신 평가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소개함으로써 영국 통계청에게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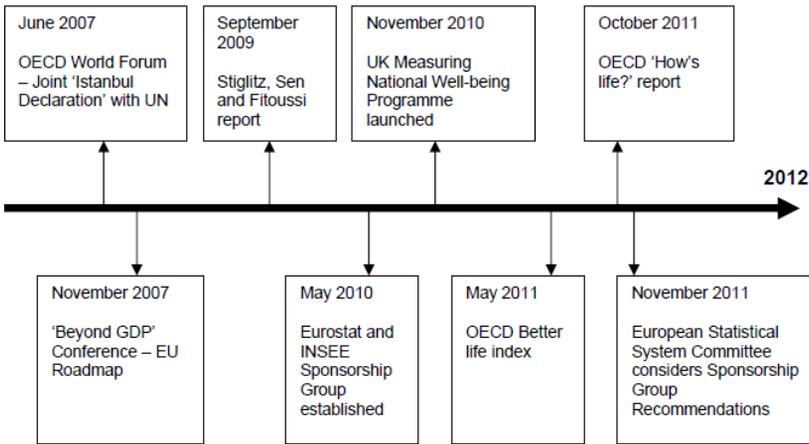


그림 2-25 International Timeline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1)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행복지수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05년 노동당 당수직에 도전하면서 행복지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블레어 전 총리도 행복지수 조사를 추진했다가 계량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였음
- 2010년 11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GDP가 국가성장을 측정하는 불안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GWB(General Well Being)가 중요하며 행복지수를 통해 영국인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재평가해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함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ONS는 국가 복지와 관련한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에 착수
- 이 기관의 목적은 영국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은 물론, 경제 성장과 환경 및 지속가능한 문제들을 포착하는 데 있음
- well-being과 관련한 보다 나은 측정방법을 개발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영국 정부는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을 수립함
- 영국의 이 같은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40년 전에 이미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경제적 성과는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 경제적 통계 자료 보다는 사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좋은 통계 자료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경향(social trend)이 기저에 깔려 있음
- ONS는 국가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킬 때, GDP 외에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과 well-being 측정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함
- ONS는 최근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한 대중협의회(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National Well-being의 측정과 관련한 측정 범위 및 주요 지표들을 공유함
- 대중협의회는 대국민 토론을 통해 제안된 well-being의 측정 범위와 방법이 well-being의 광범위한 영역을 반영하는지,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등에 관해 대중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함임

6.2 조사방법

- National well-being 측정 방법은 다음의 3단계를 통해 결정됨



Figure 1 Commonly used words in the national well-being debate



그림 2-26 Developing a Set of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1)

- ONS에서 측정하는“National Well-being Programme”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됨

표 2-10 ONS의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구분	내용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가치 정도, 행복 또는 불안감 정도
Measuring further questions of Life Quality	건강, 가족 및 친구 관계, 여가, 직업 만족, 경제적 안전, 교육 환경 조건, 공동체 의식 등
Measuring economic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국가 경제 요인 : 가구 소득, 가구 지출, 가구 자산 등 기타 국가적 요인 : 환경, 가정 생산(household production), 인적 자본(human capital) 등
Measuring children's well-being	

- 2011년 4월~8월에 ONS가 실시한 가구조사에서 행복 관련 질문(4개)이 최초로 수록됨
- 이 가구조사는 영국의 ‘경제성과 및 사회혁신 평가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여,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가치 정도, 행복 또는 불안감 정도’에 대해 질문함
- 모든 질문은 0점~10점 기준이며, 0점은 “not at all”, 10점은 “completely”로 측정
 - 전반적으로, 당신은 요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당신은 인생이 어느 정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제 얼마나 행복을 느꼈나요?
 -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제 얼마나 불안함을 느꼈나요?
- ONS 가구조사는 16세 이상, 20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63 조사결과

- 설문조사 및 기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2011/2012년도 행복조사결과는 표 2-11과 같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임. 첫째, 어제 행복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1.1%, 어제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1%로 나타남. 둘째, 친구 및 사회생활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사회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셋째, 재정만족도는 2008~2009년의 경기 침체로 60.2%에서 58.5%로 하락함. 넷째, 일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1/5(22.2%)은 직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11 ONS의 행복조사결과

개인적 행복(individual well-being)	날짜	최근자료	출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2011/2012	75.9	ONS/SWB APS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중간/높은 점수 비율	2011/2012	80.0	ONS/SWB APS
어제 자신의 행복수준 평가	2011/2012	71.1	ONS/SWB APS
어제 자신의 불안정도 평가	2011/2012	60.1	ONS/SWB APS
관계(Our relationship)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10점만점)	2007	8.2	Eurofound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	2008/09	67	BHPS
위기 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비율	2007/08	96.8	BHPS
건강(Health)			
기대수명(남성)	2008-10	64	ONS
기대수명(여성)	2008-10	66	ONS
장기질병과 장애 비율	Apr-June 2012	20	ONS/SWB APS
건강에 대한 만족도	2009/10	68.3	Understanding Society
심리적 장애 또는 정신건강 경험률	2009/10	18	Understanding Society
해야 할 것(What we do)			
실업률	Jun - Aug 2012	7.9	ONS/LFS
직업 만족도	2009/10	77.8	Understanding Society
레저시간에 대한 만족도	2009/10	62.3	Understanding Society
레저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	2008/09	65.6	BHPS
1년에 한번 이상 자원봉사 경험률	2008/09	19	BHPS
우리가 사는 곳(Where we live)			
1,000명당 범죄율	2011/12	83	ONS/CSEW
야간보행 시 안전하다고 느낀 비율	2010/11	75.1	ONS/CSEW
영국에서 적어도 1번 정도 녹지공간을 방문한 비율	2010/11	53	Natural England
이웃에 대한 소속감	2009/10	66	Understanding Society
개인재정(Personal finance)			
주거소득을 제외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에 살고 있는 가구비중	2010/11	21	FRS, DWP
연금자산을 포함한 가구당 평균 재산	2008/10	£236,973	ONS/WAS
가구소득 만족도	2009/10	57.2	Understanding Society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비율	2009/10	12.3	Understanding Society

표 계속 ONS의 행복조사결과

개인적 행복(individual well-being)	날짜	최근자료	출처
교육과 기술(Education and skills)			
인적자본-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기술, 지식, 역량의 가치	2010	£17,120	ONS
영어와 수학이 5레벨 또는 GCSE's A*-C 이상 비율	2009/10	52.9	DfE; WG; SG; NIDoE
16-64세 중 자격증이 없는 사람 비율	2011	10.7	ONS/LFS
경제(The economy)			
1인당 실질가구소득	2011	£17,862	ONS
1인당 순국민소득	2011	£20,556	ONS
GDP 비율에서 영국 공공부문의 순 차입금	2011/12	66.2	ONS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 것)	Sep-12	2.2	ONS
민주주의와 신뢰와 관련된 거버넌스(Governance involvement in democracy and trust in how the country is run)			
등록된 투표인수	2010	65.8	IIDEA
의회 신뢰도	Spring 2012	23	Eurobarometer
정부 신뢰도	Spring 2012	21	Eurobarometer
자연환경(The natural environment)			
온실가스 배출량	2011	549.3	DECC
미세먼지 오염도	2010	144.23	ONS/EA
영국에서 보호 가능한 지역의 범위	2011	7.522	Defra
재생에너지 소비량	2010	3.2	AEA Energy/ Environment & ONS/EA

출처 : <http://www.ons.gov.uk/ons/rel/wellbeing/measuring-national-well-being/first-annual-report-on-measuring-national-well-being/art-measuring-national-well-being-annual-report.html#tab-Annex-A--Measuring-National-Well-being-Programme-Domains-and-Measures>

7 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7.1 개요

- 캐나다 행복지수는 1999년 앳킨스 자선재단(Atkinson Charitable Fund)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는 온타리오주 워털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 건강과학 응용학부에서 실시 중임

- 이 조사는 행복(wellbeing)에 관해 캐나다인이 바라는 요구와 가치에 대한 경험연구를 통해 어떻게 행복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국가 단위의 연구임
- 캐나다 행복지수는 건강한 인구, 생활 수준, 커뮤니티 활력, 교육, 환경, 시간 활용, 민주적 참여, 레저와 문화라는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행복(wellbeing)을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영역
- 캐나다의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서 행복은 만다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행복은 개인자원, 공공자원, 생태자원이라는 3가지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음. 3가지 원으로 표현되는 각각의 자원은 캐나다 행복지수 체계의 주요영역임. 첫째, 건강한 인구, 교육, 시간 활용으로 구성되는 개인적 자원은 우리가 개인적 행복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둘째, 생활수준, 커뮤니티 활력, 레저/문화, 민주적 참여는 광범위한 사회부터 지역사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셋째,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환경의 생태자원은 가장 포괄적인 것임. 이들 3가지 영역(자원)들은 개별적이라기보다 전체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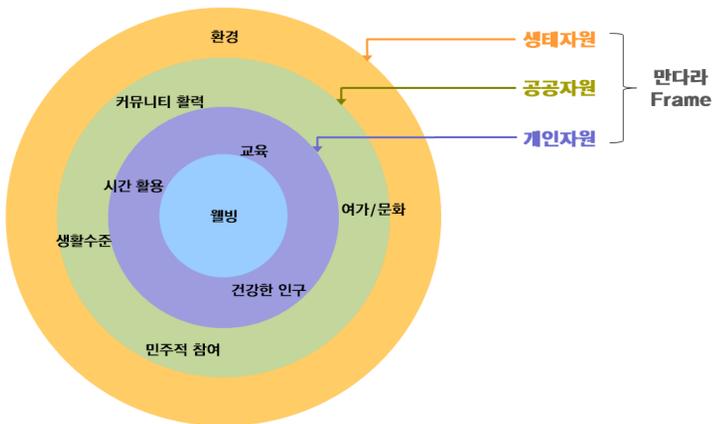


그림 2-27 The Mandala of Wellbeing

출처 : Michalos, A. et al. 2011, Canadian Index of Wellbeing, p7

조사방법

- 지표선정 기준 : ① 주요 타깃 고객의 관심과의 관련성 여부 ② 이해하기 쉬운 ③ 신뢰성, 타당성, 변화에 민감한 ④ 정치적 편견 ⑤ 적시에 취득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⑥ 관할 권역 및 조직 내의 비교 가능 ⑦ 객관적 또는 주관적 ⑧ 긍정적 또는 부정적 ⑨ 행복을 구성 하거나 결정하는 요소 ⑩ 생물 또는 무생물의 개인이나 그룹에 기여 ⑪ 개방적, 투명성, 민주적인 협의 검토 과정을 거침 ⑫ 캐나다의 복지에 대한 일관성 있고 종합적 관점에 기여
- 이론과 경험적 방식을 통한 지표 검토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총 8개 영역의 종합지표가 구성됨. 8가지 영역은 건강한 인구, 생활수준, 커뮤니티 활력, 교육, 환경, 시간 활용, 민주적 참여, 레저와 문화이며 자세한 지표와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음

표 2-12 지표와 산출방식

지표	산출방식	
커뮤니티 활력	조직활동의 참여 비율	+
	가까운 친구가 6명 이상 있는 비율	+
	인구 100,000명당 재산범죄율	-
	인구 100,000명당 폭력범죄율	-
	밤거리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밤거리 안전도)	+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덜 걱정되는지에 대한 불일치 비율	+
	다른 사람을 위해 자원봉사(무보수)하는 비율	+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커뮤니티 소속감)	+
민주적 참여	연방선거에서의 투표율	+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비율	-
	연방선거의 투표하기 위한 시민의 의무에 강력하게 동의하는지의 여부	+
	민주적 업무 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의 비율	+
	연방정부의 정책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비율	+
	해당 유권자의 등록 비율	+
	의회 내 여성 비율	+
	국민총소득 비율에 따른 순공적개발원조	+

표 계속 지표와 산출방식

지표	산출방식	
교육	0~5세 어린이 보육공간 비율	+
	성장 도메인 5가지를 잘 성취하는 어린이의 비율	+
	공립학교에서 교사대비 학생 수	-
	12~13세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 점수 평균	+
	13~15세의 기본지식과 능력지수	+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PISA 점수 비율	-
	20~24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	+
	25~64세의 대졸자 비율	+
환경	지표 오존 수치	-
	GHGs 배출량(연간 CO ₂ 의 메가톤)	-
	국내 에너지 총생산(페타줄스 : petajoules)	+
	남부캐나다의 물 생성량(km ³)	+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매장량 지수	+
	금속 매장량 지수	+
	캐나다 지구생존지수 ⁶	+
해양영양지수	+	
건강한 인구	주관적 건강 인식 비율(우수 또는 매우 좋음)	+
	자기기입에 따른 당뇨병 비율	-
	출생 시 기대수명	+
	12~19세 청소년 중 매일 또는 가끔 담배를 피우는(흡연자) 비율	-
	우울증 비율	-
	우수하거나 좋은 환자서비스방식의 등급 비율	+
	(65세 이상) 독감예방 접종 비율	+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기대수명	+
레저와 문화	사회적 여가활동의 평균 시간	+
	예술과 문화활동의 평균 시간	+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조직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평균 시간	+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는 평균 빈도(월별)	+
	지난 한 해 문화예술공연에 관람한 횟수	+
	지난 한 해 국립공원과 유적지를 방문한 횟수	+
	지난 한 해 휴가로 집에서 80km를 떨어진 곳에 방문했을 경우 평균 숙박일수	+
	지난 한 해 전체가구지출에서 문화와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사용한 비용	+

6 2500종 이상의 동물을 모니터링해 생태계 건강성 분석

표 계속 지표와 산출방식

지표	산출방식	
생활수준	세금 떼고 경제성 있는 가구의 위에서 밑 5분위 수 비율	-
	가구의 과세 중위소득	+
	저소득 비율	-
	CSLS 경제보장의 측정된 값	+
	장기 실업비율	-
	고용비율	+
	고용품질 CIBC 지수(1994 QI=100)	+
	RBC 주택구입능력지수	-
시간활용	20~64세 중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	-
	20~64세 중 시간압박수준이 높은 비율	-
	20~64세 중 노인에게 무급돌봄을 제공하는 비율	-
	(65세 이상) 매일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	+
	(65세 이상) 매년 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비율	+
	하루 2시간 이상 TV시청을 하거나 비디오게임을 하는 12~17세 어린이 비율	-
	매주 또는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6~9세 어린이 비율	+
	부모에 의해서 매일 책을 읽는 3~5세 아동 비율	+

73 조사결과

-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행복지수는 1994년 100.0에서 2008년 111.1로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복지수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2008년의 경우 생활수준, 커뮤니티 활력, 민주적 참여, 교육 등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GDP와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줌

표 2-13 CIW for Individual Domains and Average of Eight Domains, 1994 to 2008년

Year	DOMAINS								Avg. of eight domains	GDP per capita
	Living Standards	Healthy Populations	Community Vitality	Democratic Engagement	Leisure and Culture	Time Use	Education	Environment		
199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5	101.0	101.2	102.2	98.5	100.3	99.4	100.1	107.2	101.3	101.8
1996	100.3	102.9	103.5	96.8	100.3	98.2	101.2	106.8	101.3	102.3
1997	101.6	102.9	105.6	99.2	100.2	98.0	102.5	104.4	101.8	105.6
1998	105.6	103.1	105.8	108.2	99.8	97.9	102.5	99.8	102.9	109.0
1999	110.3	100.8	105.9	117.7	99.5	97.4	104.3	98.7	104.4	114.1
2000	111.4	99.2	106.2	126.9	100.3	96.9	105.7	97.3	105.5	119.0
2001	117.9	98.1	107.7	119.7	98.7	98.0	107.3	95.8	105.5	119.8
2002	115.5	100.1	109.9	115.1	97.7	98.4	108.0	94.7	105.0	122.0
2003	114.4	102.7	111.1	107.8	97.8	99.2	109.2	93.8	104.6	123.2
2004	115.3	105.4	113.1	102.9	94.3	98.1	110.7	97.0	104.7	125.8
2005	116.2	108.7	114.9	111.5	96.3	98.1	113.7	96.0	107.0	128.4
2006	118.5	107.1	116.2	117.9	96.9	99.0	116.6	98.0	108.9	130.7
2007	125.2	105.7	118.5	117.3	97.2	98.6	117.6	99.8	110.0	132.1
2008	126.4	106.6	120.7	119.3	97.0	99.4	118.7	99.7	111.1	131.2

-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의 행복지수 경향을 살펴본 결과, GDP는 CIW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생활수준은 1997년 이래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0년 최고치를 보임. 아래의 그림은 어떤 영역이 강한지, 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 집중분야가 어떤 곳인지 짐작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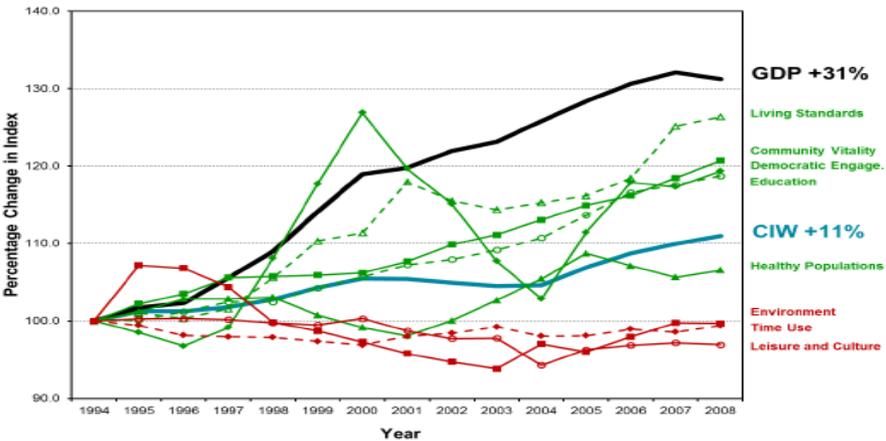


그림 2-28 GDP 대비 Canadian Index of Wellbeing, 1994 to 2008년

표 2-14 분야별 행복지수 결과(1994~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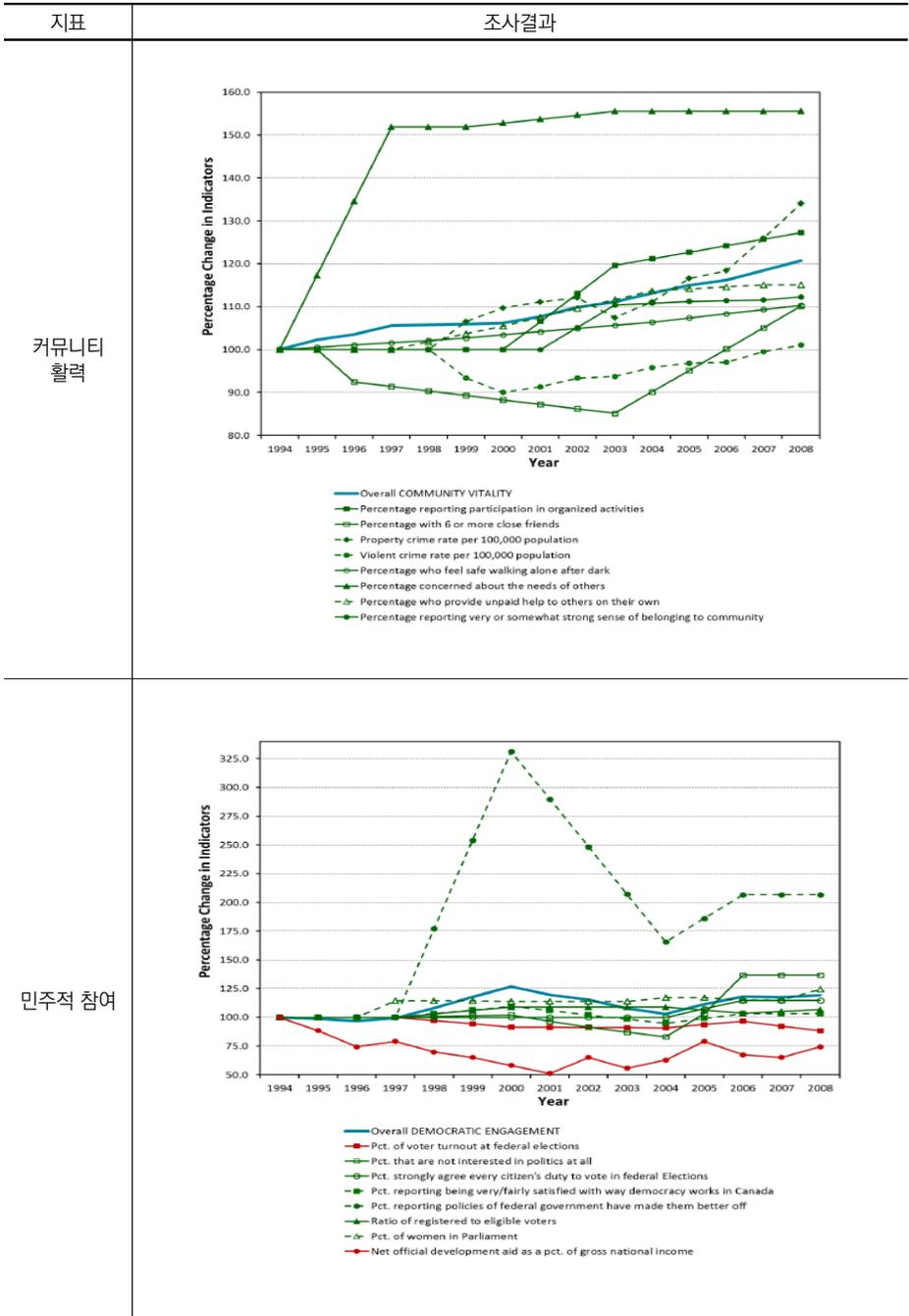


표 계속 분야별 행복지수 결과(1994~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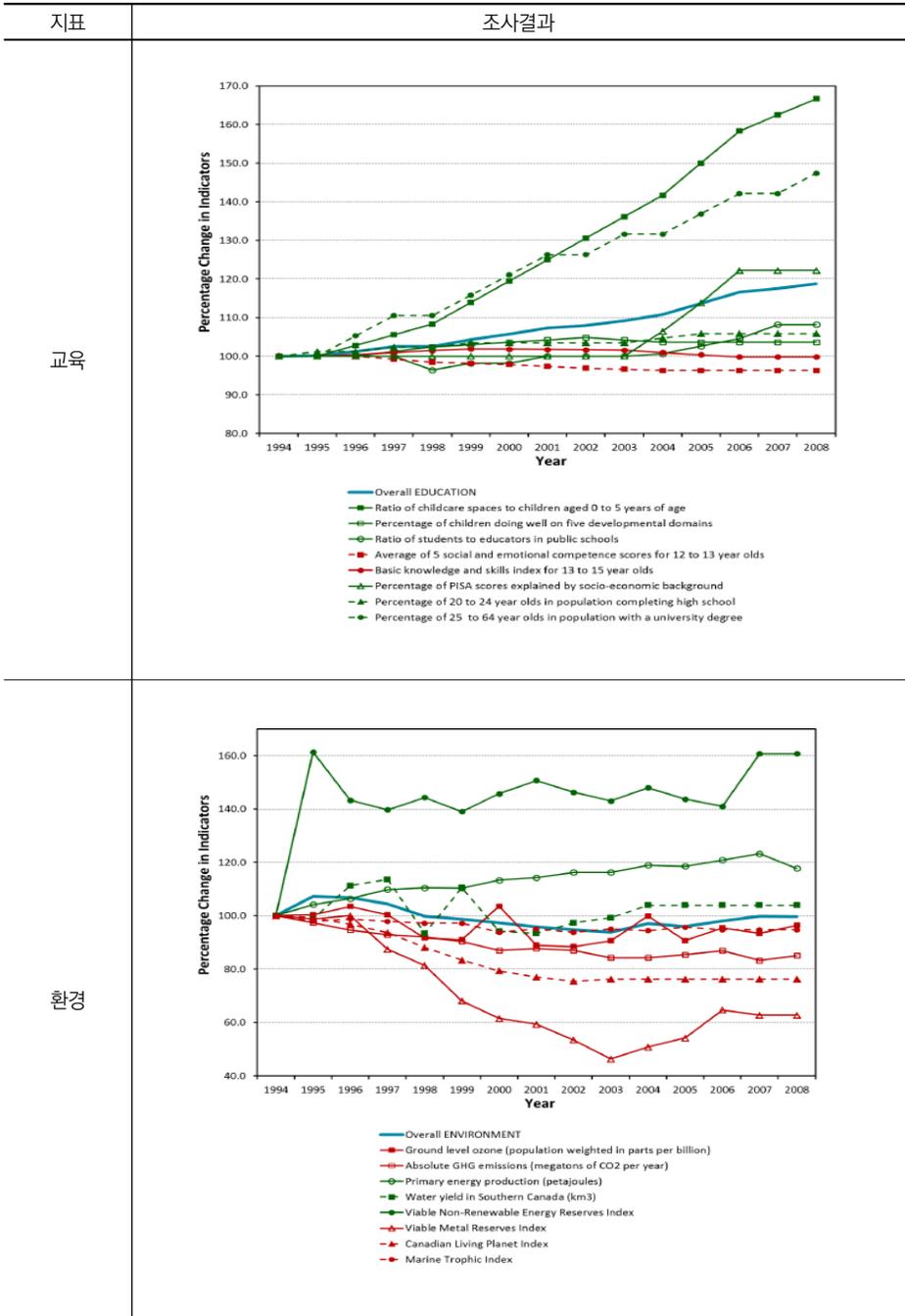


표 계속 분야별 행복지수 결과(1994~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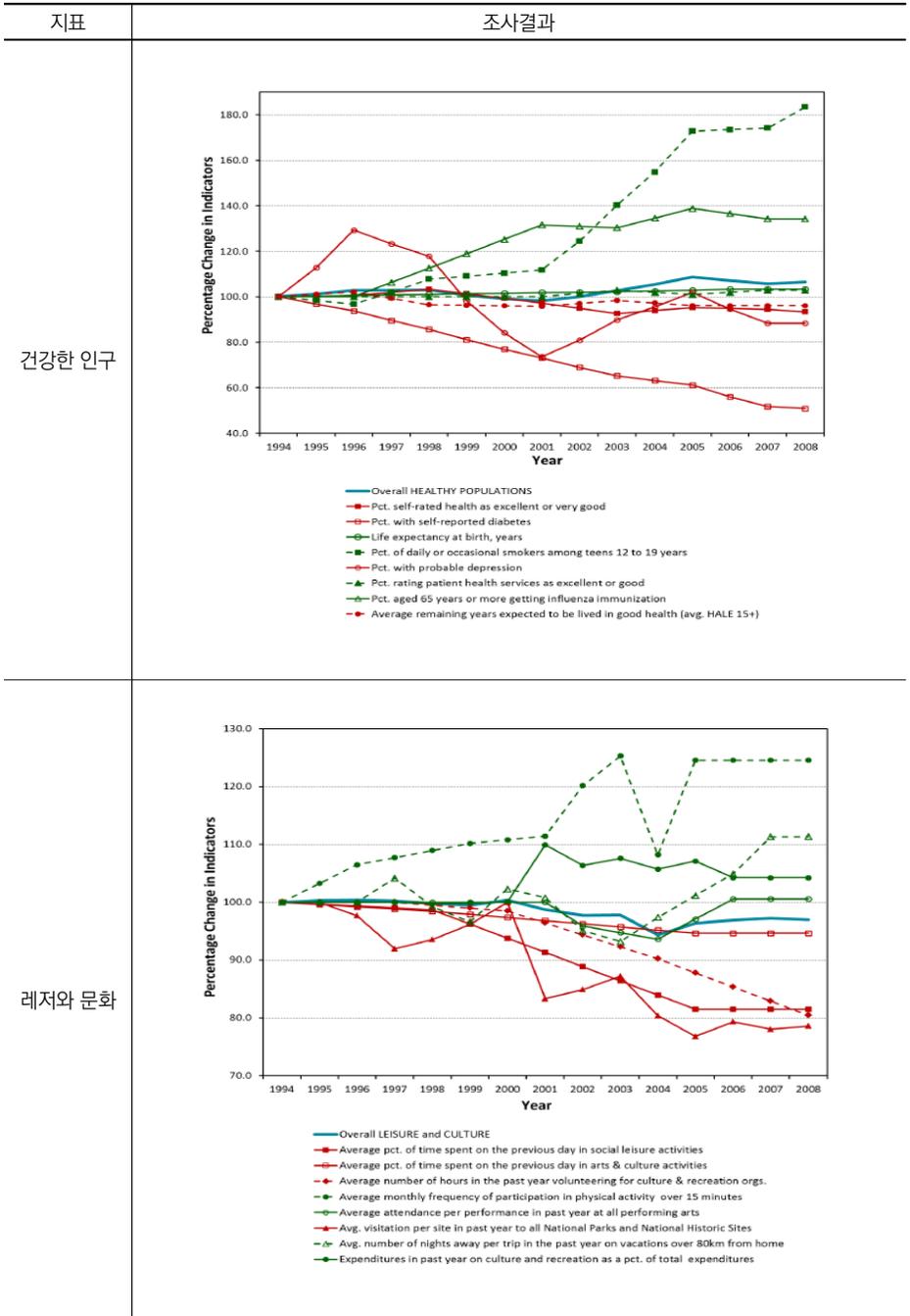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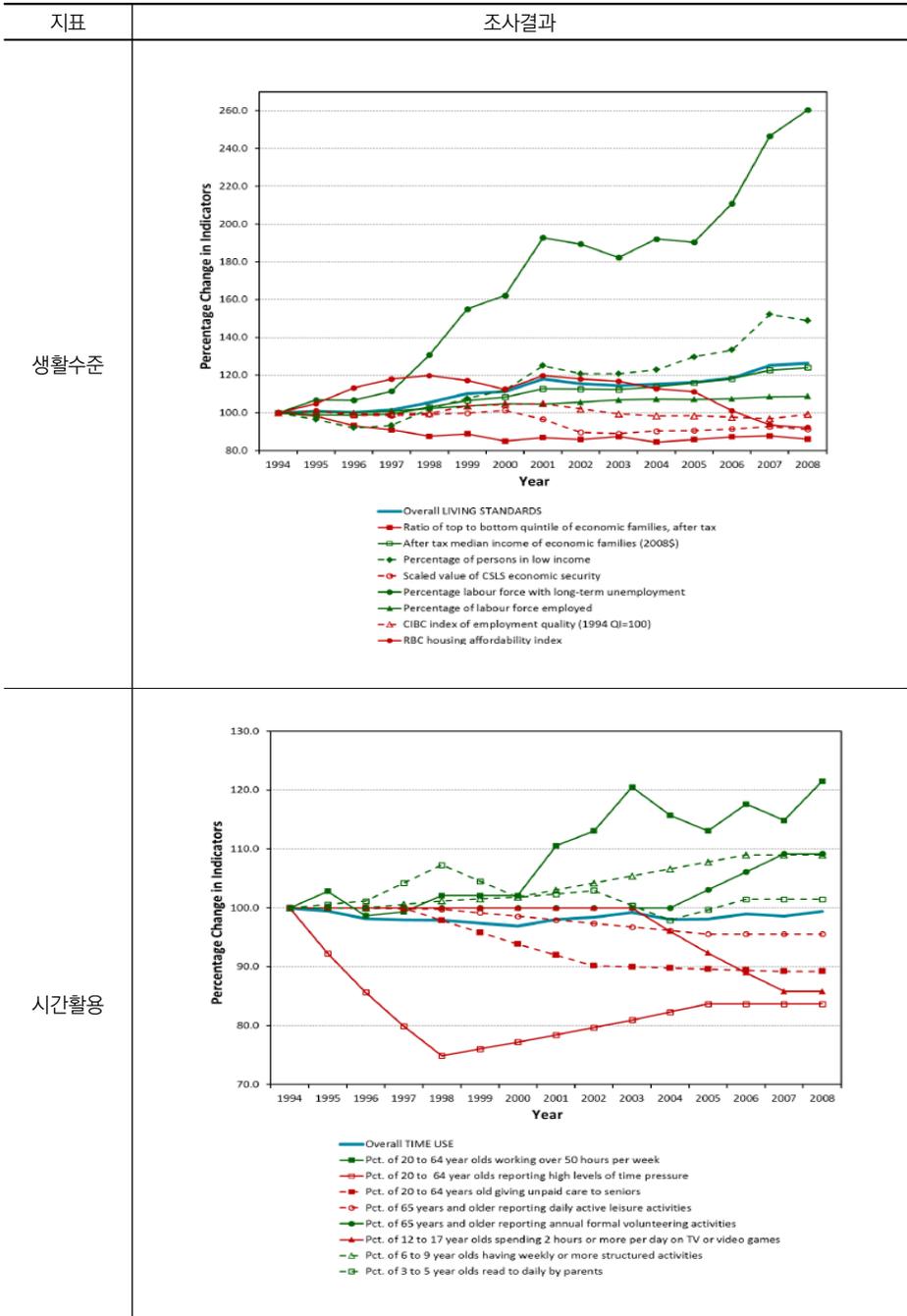


표 계속 분야별 행복지수 결과(1994~2008년)



8.1 개요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신경재재단(NEF)이 산출하여 발표하는 행복지수(HPI : Happy Planet Index)는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학적 관점이 반영됨. HPI는 ① 주관적 생활만족도 ② 기대수명 ③ 생존에 필요한 면적 및 에너지 소비량인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생태흔적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활용하는 면적(작물재배, 목초지, 어장, 시가지 등)과 기타 활용 가능한 가용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을 의미함. 여기에서는 GDP를 비롯한 소득 및 경제적 조건들은 배제됨
- 이와 같은 지표들을 활용하여 2012년에 발표된 세계 151개국 행복지수 결과에 따르면 코스타리카가 64점으로 1위에 올랐고 베트남이 60.4점으로 2위, 그다음이 콜롬비아(59.8점), 벨리즈(59.3점), 엘살바도르(58.9점) 순으로 나타남. 미국 105위, 영국 40위, 프랑스 50위, 독일 46위로 경제력과 HPI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 43.8점으로 64위를 기록함

8.2 조사방법

8.2.1 생활만족도

- 설문조사로 본인의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게 함. 본인의 기준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한 이슈를 평가하며 가중치를 정해 종합적인 답을 하는 형식임
- 리스트 형식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만한 교육, 수입, 안정성 등을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측정하고 지표로도 만드는 형식도 가능하지만, 무엇을 포함하고 결합할지의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생활 만족도는 “Ladder of Life”라는 Gallup World Poll 형식과 유사하게 11점 척도로 평가(0점 worst possible life, 10점 best possible life)

8 2 2 기대수명

- 기대수명 자료는 2011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를 참고함
- 기대수명과 생활만족도를 사회학자 Ruut Veehoven이 개발한 ‘Happy Life Years’라는 지표에 통합(Happy Life Years는 ‘Quality Adjusted Life Years’란 지표를 참조하여 만들)

8 2 3 생태흔적(ecological footprint)

- 현재 생활 만족도가 높아도 소비량이 너무 많아 미래 세대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적인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사고방식
- 2008 Ecological Footprint Data를 참고함
- 생태흔적은 생존에 필요한 면적, 활용 가능한 가용 면적, 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함
- 본토와 수입품에서 온 배출로 측정을 함
- 예) 핸드폰이 중국에서 생산되어도 칠레에서 구입하면 칠레의 생태흔적으로 판단됨

8 2 4 HPI 계산 : Happy Planet Index 공식

- 생활만족도와 기대수명을 통합하여 행복한 생활시간(Happy Life Years)을 구함
- 자원 이용당 행복한 생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행복한 생활시간을 생태흔적으로 나눔

$$\text{Happy Planet Index} \approx \frac{\text{Experienced well-being} \times \text{Life expectancy}}{\text{Ecological Footprint}}$$

8 2 5 HPI Score

- 신호등체계로 각 나라의 HPI 점수를 발표함 : 좋음(초록), 보통 (황색), 나쁨(빨간)
- 초록색을 받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다 우수해야 함. 만약 두 가지가 우수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보통이면, 중간 색상(밝은 초록 등)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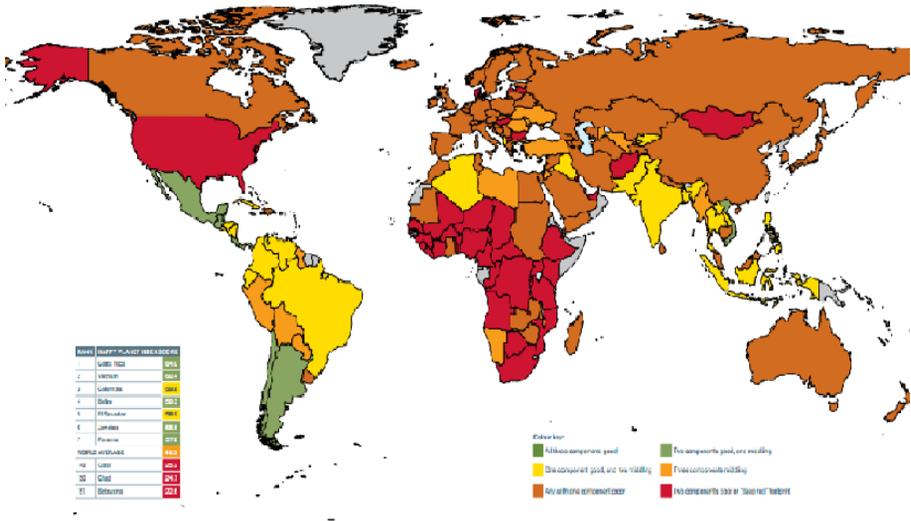


그림 2-29 색으로 유형화된 국가별 HPI지수

8 3 조사결과

- 생활만족도가 높고 지속가능한 나라는 없고, 9개 국가만이 목표달성에 근접함. 그 중 8개의 국가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나라들임

- HPI점수가 아주 높은 톱40 나라 중 1인당 국민 소득이 15,000달러가 넘는 나라는 4개뿐
- 151개의 국가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유럽국가는 29위인 노르웨이이며, 미국은 105위임
- 고소득 나라들은 너무 많은 양의 생태흔적 때문에 점수가 많이 떨어짐
- 국가들의 목표는 도표의 왼쪽 맨 윗부분 높은 행복지수(happy life years)와 1.8g Ha이하의 낮은 생태흔적

RANK	LIFE EXPECTANCY	
1	Japan	83.4
2	Hong Kong	82.8
3	Switzerland	82.3
4	Australia	81.9
5	Italy	81.9
6	Iceland	81.8
7	Israel	81.6
WORLD AVERAGE		69.9
149	Congo, Dem. Rep. of the	48.4
150	Central African Republic	48.4
151	Sierra Leone	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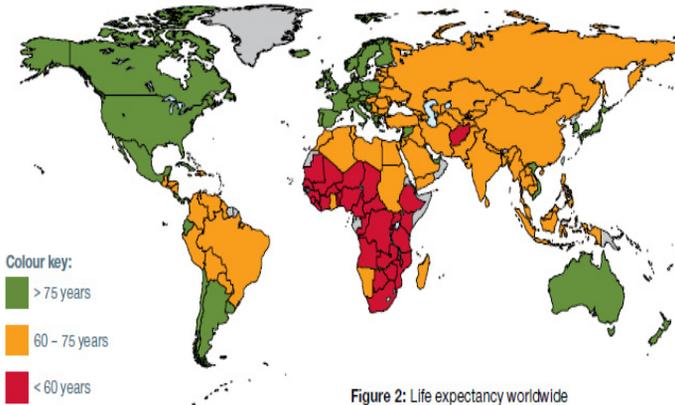


Figure 2: Life expectancy worldwide

그림 2-30 국가별 기대수명

RANK	EXPERIENCED WELL-BEING	
1	Denmark	7.8
2	Canada	7.7
3	Norway	7.6
4	Switzerland	7.5
5	Netherlands	7.5
6	Sweden	7.5
7	Venezuela	7.5
WORLD AVERAGE		5.3
149	Botswana	3.6
150	Tanzania	3.2
151	Togo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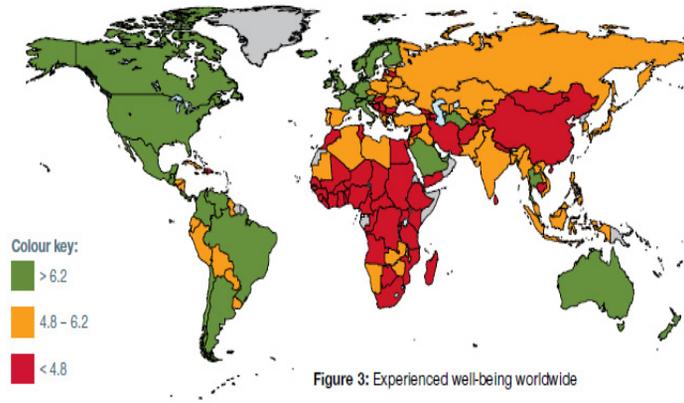


Figure 3: Experienced well-being worldwide

그림 2-31 국가별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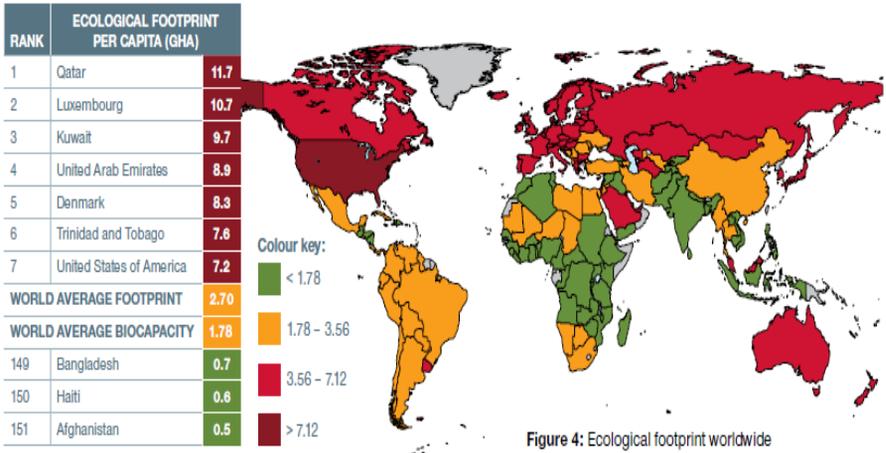


그림 2-32 국가별 생태흔적

9 New Zealand, 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Report

9 1 개요

-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수행하며, 2012년 조사기관은 닐슨으로 뉴질랜드 6개 지역위원회(오클랜드, 포리루아, 허트,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삶의 질, 건강과 웰빙, 범죄와 안전, 커뮤니티, 문화와 사회네트워크,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환경, 공공교통, 라이프스타일-일과 학습 등 8개 항목을 평가함

9 2 조사방법

- 2012년 이전까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CATI)로 설문이 수행되었으나, 2012년에는 순차적 통합방식(sequential-mixed methodology)을 사용하였음. 선택된 거주자들은 온라인 서베이나 우편을 통해 제공받은 하드카피

를 이용해 설문에 응할 수 있음. 현장조사는 2012년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됨

- 응답자는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6개 지역의 거주자를 임의선택함. 2012년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18,650명이며 이 중 5,151명이 설문에 응답함. 즉 오클랜드시 주민 2,593명, 포리루아시 주민 432명, 허트시 주민 468명, 웰링턴시 주민 504명, 크라이스트처치시 주민 567명, 더니든시 주민 587명이 설문에 참여함
- 2012년 조사는 95% 신뢰수준 ± 1.4 의 표본오차를 가지며, 도시별 표본오차는 표 2-15와 같음

표 2-15 도시별 표본오차

위치	모집표본	유효부수	최대 표본오차 (95%신뢰수준)
오클랜드	3,200	2593	$\pm 1.9\%$
허트	500	468	$\pm 4.5\%$
포리루아	500	432	$\pm 4.7\%$
웰링턴	500	504	$\pm 4.4\%$
크라이스트처치	500	567	$\pm 4.1\%$
더니든	500	587	$\pm 4.1\%$
합계	5,700	5,151	$\pm 1.4\%$

-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는 총 9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지표는 표 2-16과 같음.

표 2-16 뉴질랜드 삶의 질 조사 지표

영역	지표
삶의 질	
건강과 웰빙	(일반적인) 건강상태 (일반)의사와의 접근정도 신체적 활동 빈도 정서적 웰빙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의) 지원가능여부
범죄와 안전	범죄 및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인식 안전정도 어린이 안전
커뮤니티, 문화와 사회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네트워크 고립감 문화 다양성 신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환경	도시에 대한 자부심 녹지 접근성 쓰레기와 오염에 대한 인식
공공교통	대중교통 이용빈도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라이프스타일-일과 학습	고용상태 일과 다른 삶 영역과의 균형정도 생활비용

93 조사결과

931 삶의 질

- 6개 지역 주민의 80%(19% 아주만족 + 61% 만족)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함
- 6개 지역 주민의 1/4(24%)가 지난 1년전과 비교하여 삶의 질이 상승함

932

건강과 웰빙

-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6개 지역 주민의 82%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민의 18%는 지난 1년간 그들이 필요할 때 (일반)의사를 만나지 못했다고 응답함. 그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한 이유로는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의 이유가 너무 경미하거나 의사를 만나러 갈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로 그 뒤를 이음
- 주민의 48%가 일주일에 5회 또는 그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며 전체 주민의 71%(매우 행복 17% + 행복 54%)가 정서적 웰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민의 68%가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
- 주민의 18%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
- 주민의 91%는 자신이 질병, 부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답함

933

범죄와 안전

- 지난 1년간 공공기물파손행위, 자동차 도난, 난폭운전 등이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 주민의 47%가 공공기물파손행위가 지역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도난이나 차량손상 문제에 대해 59%,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69%,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59%가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함
- 주민의 96%가 낮 동안 집에 있을 때 안전감을 느끼며 밤에는 90%만이 집에 있을 때 안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밤에 동네를 혼자 걸을 때 안전감을 느끼는 주민은 58%였으며, 낮동안 도심이 안전하다는 주민은 91%, 밤에 도심이 안전하다는 주민은 42%로 파악됨
- 주민의 71%가 아이들이 동네에서 지내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함

934

커뮤니티, 문화와 사회네트워크

- 주민의 73%가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53%만이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함.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이유로는 생활이 바빠서가 42%로 가장 많았고, 이웃과 의사소통하지 않기 때문이 41%, 이웃대신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회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 37%로 그 뒤를 이음
- 주민의 52%는 뉴질랜드가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고 응답함.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적 영향은 음식이나 레스토랑을 포함하여 도시가 보다 활기차고 흥미롭게 된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영향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나 문화가 뉴질랜드 사회와 통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높게 나옴
- 가장 일반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장과 학교에서 형성된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나 포럼 등과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형성된다는 응답이 46%로 그 뒤를 이음
- 주민의 65%는 지난 1년간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주민의 47%가 지역이나 도시에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현장이 있다고 답함
- 주민의 62%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935 지역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 주민의 29%만이 지역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주민의 56%는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하며 36%는 위원회가 그들의 도시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의사를 결정한다고 응답함. 또한 주민의 40%는 대중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936

환경

- 주민의 76%가 자신의 도시/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58%는 도시/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자부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과 공원, 오픈스페이스, 정원 등이 각각 55%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범죄와 안전문제가 39%, 교통시스템이 33%로 나타남.
- 주민의 91%가 도시 또는 지역에서 공원이나 그린스페이스로의 접근성이 좋다고 응답함
- 지난 1년간 주민의 52%가 쓰레기 문제를, 61%가 낙서를, 25%가 대기 오염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43%가 수질오염을, 41%는 소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37

공공교통

- 주민의 20%만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의 46%가 대중교통 비용이 저렴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5%는 안전하다고 답함. 73%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6%는 대중교통이 자주 운행되고 있다고 답함. 또한 48%가 대중교통은 믿을만하다고 응답함

938

라이프스타일-일과 학습

- 주민의 52%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16%는 파트타임임
- 주민의 61%는 일과 삶의 다른 영역과의 균형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의 12%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충분한 돈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10.1 개요

- Life Situation Index는 네덜란드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1974년 네덜란드 사회연구소(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개발한 것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만족정도는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국민들이 삶속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둬
- LSI는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삶의 질 설명, 긍정적과 부정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 평가, 시계열 변화 관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세부 하위 지표들의 발전과정 추적, 더 넓은 개념틀 안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설명 시도라는 5가지 목적으로 개발, 도입됨
- LSI는 1974년 네덜란드 사회연구소와 네덜란드 통계청이 처음 조사하였으며, 1974년부터 1989년까지는 네덜란드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여 매 2년마다 조사됨. 이후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조사가 실시됨. 1997년에는 CBS가 생활여건에 대한 상시조사를 하였고 2년마다 하였으나, 2002년에 중단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는 네덜란드 연구소에서 실시함
- 네덜란드 사회연구소는 2001년 이후 2년에 한 번씩 Life Situation Index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는 2009년에 발간됨. 또한 삶의 질과 관련된 보고서로는 Jeroen Boelhouwer가 1974년 이후의 네덜란드의 삶의 질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음

10.2 조사방법

- 삶의 질의 개념을 총 8개 영역(19개 질문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영역과 지표는 표 2-17과 같음

표 2-17 네덜란드 삶의 질 조사 지표

영역	지표
건강(health)	집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여행,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주거(housing)	주택유형 소유여부 방의 수 거실크기
이동성(mobility)	자동차 소유 대중교통 이용권 소유
휴가(holidays)	지난 12개월 동안 휴가일수 해외여행 일수
내구재(ownership of durable consumer goods)	가정용품의 수
사회-문화적 레저활동	취미용품의 양 취미활동의 수 사회문화 여가활동의 수 단체, 협회 등 회원가입
(사회적) 참여/사회적 고립	자원봉사활동 사회격리(정도)
스포츠	스포츠 활동 횟수(1주) 스포츠 활동의 수

103 조사결과

- 1974년부터 2006년까지의 삶의 질 조사 결과, 지난 30년간 네덜란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전체), 연령별, 가구유형별, 고용형태별, 교육수준별, 소득집단별 삶의 질의 차이는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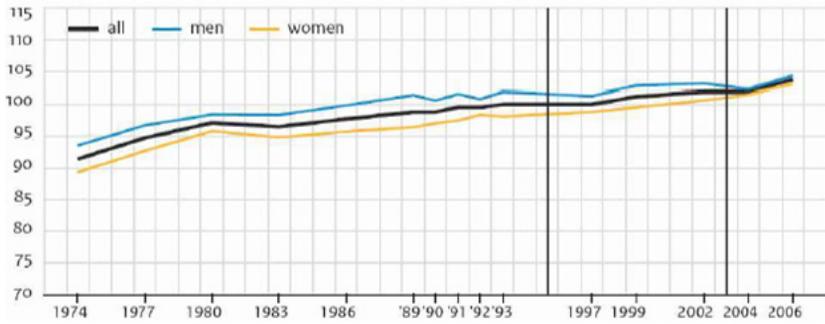


그림 2-33 삶의 질 향상(1974~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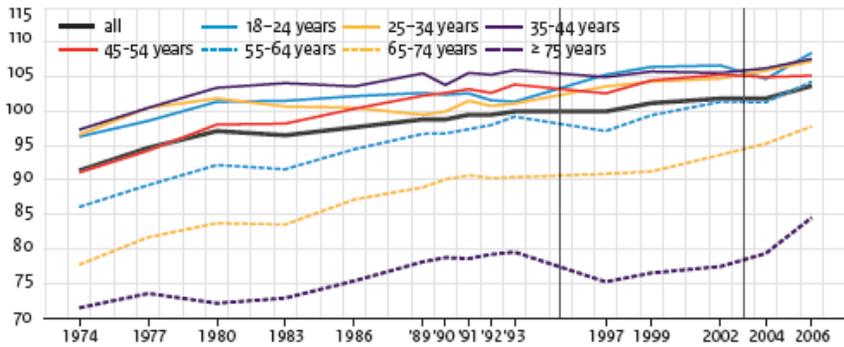


그림 2-34 연령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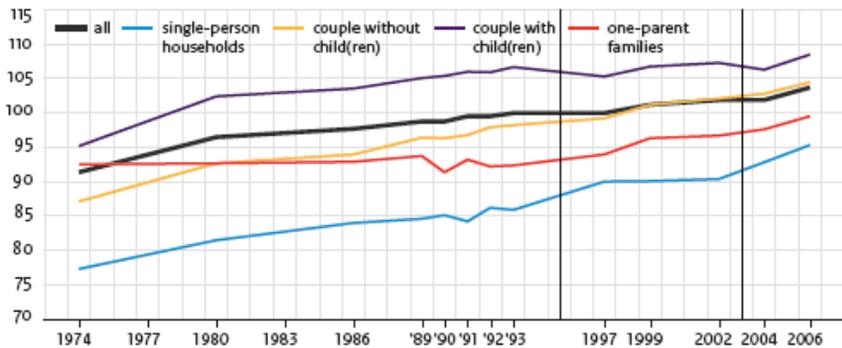


그림 2-35 가구유형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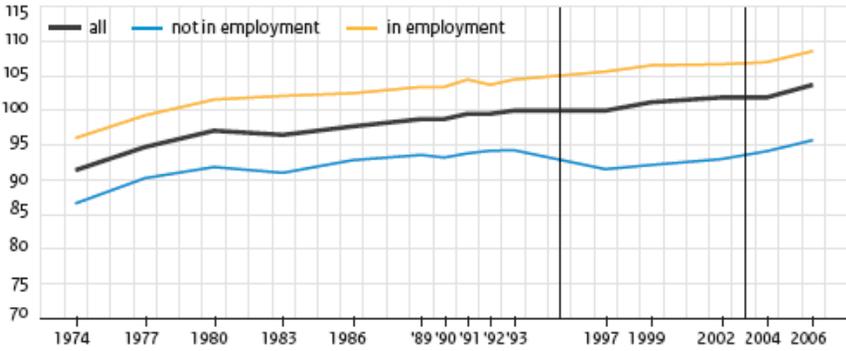


그림 2-36 고용유형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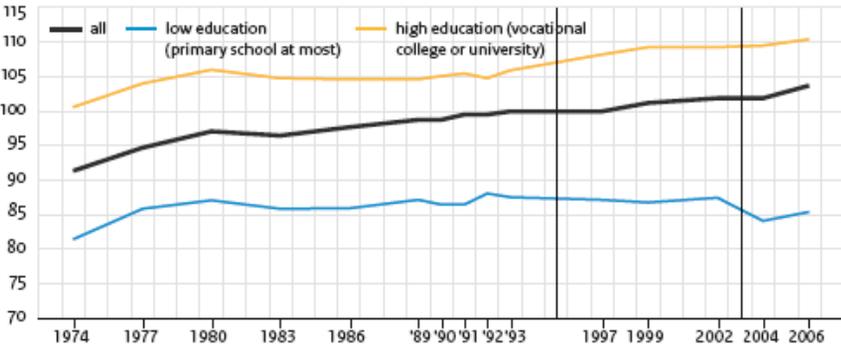


그림 2-37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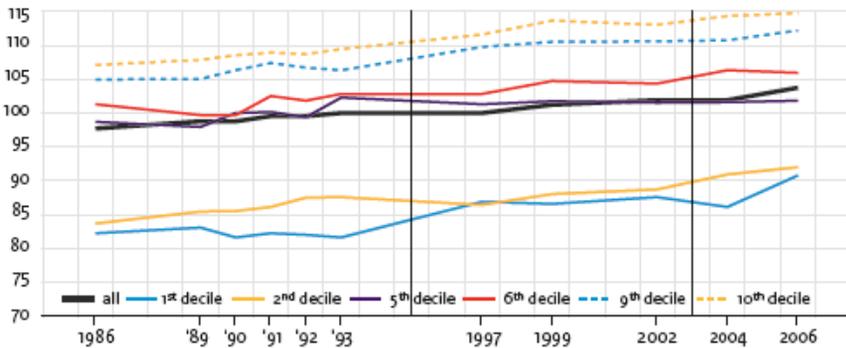


그림 2-38 소득집단별 삶의 만족도

11 일본,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⁷

11.1 개요

- 일본은 1970년 사회정책위원회에서 처음 사회발전 지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1971년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본부 조사위원회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1974년 261개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공표하였음. 이후 1984년 사회지표에 대한 프레임의 재검토를 거쳐 1986년 새로운 사회지표(New Social Indicator : 136개 지표)가 공표되었고, 1991년에는 생활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생활수준, 풍요를 측정하기 위해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ex : 170개 지표)를 공표하여 1999년까지 계속되었으나 2000년부터 중단됨
- 2002년에는 일본의 국민생활심의회 종합정책본부 조사위원회(Research Committee of Quality-of-Life Policy Council)가 구조개혁의 성과를 국민생활의 시점에서 여유와 안심 등의 비화폐적 측면을 평가하고, 생활개혁의 진척의 정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생활개혁지수(Life Reform Index)를 만들

11.2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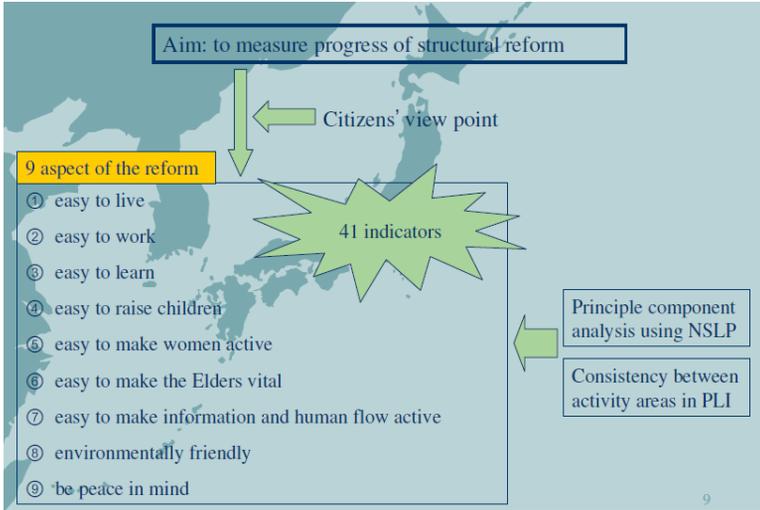
- 지수화는 변화율표준화지수를 사용하며 1990년부터 2001년의 자료를 사용함.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2년간 각 연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여 기준년(1990년)이 100이 되도록 지수화함
- 지표는 거주하기 편한 사회, 일하기 편한 사회 등의 총 7개 영역 61개 지표로 구성되며, 2004년도 개정된 지표체계는 표 2-18과 같음

7 한국사회학회, 2010, 국민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보고서에서 인용

표 2-18 일본의 생활개혁지수

구조개혁의 측면	지표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쓰레기 배출량 화재사고 발생건수 1인당 공일면적 1건당 재해피해액 형사사범 검거율 시큐리티관리 소프트 출하 라이센스수 거주실의 면적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플렉스타입제 채용기업비율 자발적 실업자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이직자 비율 이직자 중 전직자 비율 공민직업소개기관에 의한 취업건수 노동 손실일수 유급 휴가율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저축제로 세대비율 소비자 물가지수 절대 변화율 실질연간수입 공적연금납부율 파트타임 노동자 단위시간당 임금 탈세처리건수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관리직 전문직 취업자비율 고출임금 신장률 여성 관리직 비율 여성 단위노동당 임금 장애인 실고용률 고령자 취업률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회교육학급, 강좌수 공민관에서 여러 집회의 실시건수 사회적 활동시간 관광여행인수 체육시설 이용자수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교원일인당 아동학생 수 특별비상근 강사수 해외제재하는 유학생, 연구자, 교사수 연장보육실시 시설수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식품품 소비자 위험 정보건수 소비자 행정담당 직원수 기본장해 실진료일수 체력조사 평균특점 의료관계 소송 신규건수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수 보험 의료비 지출비율

- 현재에는 총 9개 영역 41개 지표로 구성됨.



Yoshiaki TAKAHASHI, 2010, p.9

그림 2-39 생활개혁지수

11.3 조사결과

- 생활개혁지수를 종합한 결과,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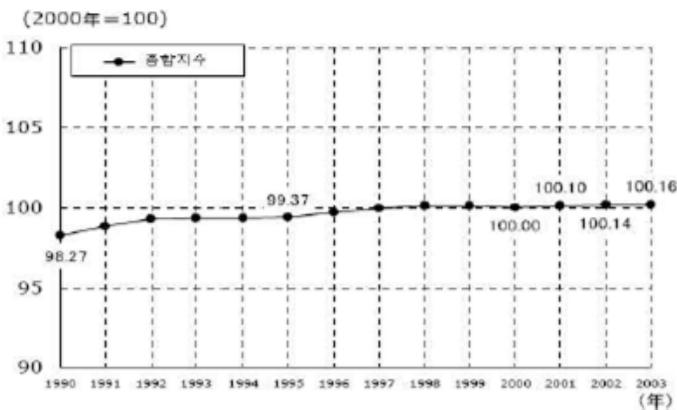


그림 2-40 생활개혁지수의 변화 : 종합지수

-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는 뚜렷한 개선을 보였고 경제적 여유 및 전망과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보호는 약화되었음. 또한 사람들 간의 교류나 기회의 부여 측면에서는 완만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일하기 좋은 측면이나 양질의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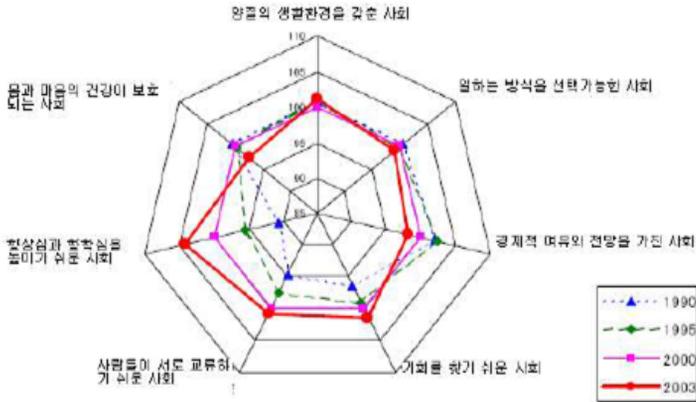


그림 2-41 생활개척지수의 변화

12 국민행복 결정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방안 연구(정지범, 2011)

12.1 개요

- 이 연구는 국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즉,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주관적 심리상태인 행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적 질적·심리학적 접근법을 활용함.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Q방법⁸을 활용하여 유형화 작업을 수행하며 2차적으로 설문 조사를 활용함

행복결정요인

- 국민행복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녹취 분석자료, 관련 문헌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행복감을 특징짓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2-19와 같음
- 1차 범주화 및 문항 재조정 작업을 거쳐 2차로 개별문항을 정리하고, 응답자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문항으로 전환함. 전환된 문항은 심층 인터뷰 응답자와 3인의 전문가를 통해 적합성을 교차 평정하고 최종 93개 문항을 행복 경험을 구성하는 행동 진술문 표본으로 선정함

표 2-19 한국성인들의 주관적 행복감 구성 요인의 1차 범주별 구조화

대범주	세부항목	소범주
출생가족배경	가족분위기 가정형편	
경력	꿈의 실현	꿈이 중심
		꿈과 타협
		꿈의 부재
	시간 관리	경쟁
		여유
	경력 발달	전문성
		배움
		도전성취감
		탐험과 확장
		침체
	성취감의 원천	보람
명분과 공익		
재미		
책임		
사회적 인정과 자기가치감	협력	
	사회적 인정	
목표 명료성	자기가치감	
	목표 명료성	
통제 소재	역할 혼란	
	주도권	
직업 안정성/불안정성	통제불능감	
	직업불안정성	

8 Q방법은 1953년 스티븐슨이 창안한 주관성 연구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 혹은 경험하는 사람 전체', 즉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학적 맥락을 포괄하는 주관성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음.

표 계속 한국성인들의 주관적 행복감 구성 요인의 1차 범주별 구조화

대범주	세부항목	소범주	
공동체	소속감	소속감	
		공동체 운영형태	
	사이버 공동체 활용방식	자율형	
		생활형	
		사회적기업형	
		적극적 활용	
	소극적 적응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돈	돈과 행복의 관계 인식	돈은 행복의 충분조건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	
		돈과 행복의 분리	
		돈에 대한 높은 통제감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음	
신체	현재 건강상태	건강하고 규칙적인 습관	
		신체 활력 저하	
	신체 이미지 변화	임신과 노화	
		질병체험	
인간관계	일반적인 대인관계 패턴	상호존중/상호 지지적	
		타인기대 충족/인정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	
		자기 독립적	
		다양성	
	조직 내 인간관계	상사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결혼관계	상호존중/상호지원	상호존중/상호지원
			도구적
			의존적
			독립적
			정서적 어려움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관계	상호지원적
			사회적 인정
			대리양육
			양육불안/분리와 애착
사교육			
대인신뢰			
부모님과 질병과 사망			
가족 내 갈등			
타인비교			
일과 인간관계의 균형			

표 계속 한국성인들의 주관적 행복감 구성 요인의 1차 범주별 구조화

대범주	세부항목	소범주
취미와 여가	문화예술 향유형	
	소모임 답소형	
	자연 친화형	
	음주 가무형	
	운동형	
	미디어 의존형	
	여행형	
	지역 공동체 참여형	
	여가 부재형	
신앙, 죽음, 노후대책	삶의 유한성 자각	
	인간의 한계 자각	
	규칙적인 신앙생활	
	노후대책	
주거환경	도심형	
	자연 친화형	
	귀농형	
	사회안전망	
스트레스 대처	경험 수용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	
	스트레스 대응방법	
	행복한 감정이나 느낌	
	미디어 정책	
	시설보다 프로그램에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개인의 자율성 보장	
	정신 건강 지원	
	질병 관리 지원	
	공동체 의식 함양	
	평생 교육 지원	
	자기가치/행복프로그램	
여가 관리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지역전문가와 중앙부처의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자/사회적기업 지원		
국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		
교육제도 개선		
세금/연금 혜택		
제도 지원 관리		*정부지원정책방향 : 장기성, 다양성, 현장성, 구체성, 실효성 제고

- 2차적으로 질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행복감 및 가치관, 행복인식유형, 가치관, 희망정책, 인구통계 등에 대한 설문지 구성

12.3 분석결과

-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6가지임. 첫째, 소득의 증가는 국민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나타남.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 및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셋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결혼상태가 중요함. 넷째, 정규직과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복감 및 만족도가 높음. 다섯째,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음. 여섯째, 국민들은 행복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 영역으로 복지와 안전, 정부의 공정성을 우선시함
- Q 방법론에 기반하여 한국성인들의 주관적 행복인식을 3개 유형과 7개 유형으로 구분함
- 첫째, 한국 성인들의 주관적 행복인식 3개 유형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현상을 특징짓는 생애주기이론에 근거하고 행복 인식의 심리적 참조점을 중심으로 개인성취형, 가족관리형, 사회적 의미형으로 구분됨

표 2-20 3개 요인 행복 유형 구분 기준

구분기준	요인1	요인2	요인3
행복유형	개인성취형	가족관리형	사회적 의미형
행복 인식의 심리적 참조점	개인	가족	사회
Erikson의 성인기 심리사회 발달 과업	정체성 형성 대 역할 혼미	친밀감 대 고립	생성감 대 자아탐닉

- 둘째, 한국 성인들의 주관적 행복인식 7개 유형은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지향점을 중심으로 자아실현형, 공동체참여형, 목표성취형, 타인 인정형, 문화향유형, 물질적 성공형, 자녀중심형으로 구분됨

표 2-21 7개 요인 행복 유형 구분 기준

구분기준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행복유형	자아 실현형	공동체 참여형	목표 성취형	타인 인정형	문화 향유형	물질적 성공형	자녀 중심형
행복가치	자아 실현	소속감	목표 성취	사회적 지위	삶의 여유	물질적 성공	자녀 양육

- 행복유형에 따른 행복 정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 행복 1유형(개인성취형)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재미와 보람, 가치를 느끼는 일이 직업과 일치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 지원이 필요함. 둘째, 행복 2유형(가족관리형)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체계의 확립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가족개입 정책이 필요함. 셋째, 행복 3유형(사회적 의미형)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 확보가 필요함

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김승권 외, 2008)

13.1 개요

- 이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 결정요인을 개발 및 분석하며,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보다 행복해지기 위한 개인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외국과의 비교가 어렵고, 둘째, 행복지수의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수준

측정을 위한 가치 있는 연구로 판단됨

13.2 분석방법

- 이 연구의 수행방법은 크게 4가지임. 첫째, 행복과 관련한 이론, 선행연구 등을 국내외 기존문헌을 통해 검토함
- 둘째,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0개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영역별 세부요인에 대한 우선순위와 영향정도로 구성된 델파이조사를 통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응답자의 견해를 분석하여 향후 전화조사에 반영
 - 일반인 133명, 전문가 189명 등 총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셋째, 개발된 행복지표에 대한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행복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일반국민(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수행함
 - 전국 16개 시·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표본 추출 방식(층화비례할당 방식)에 의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 조사로 추진함
- 넷째,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함

13.3 행복결정요인 및 행복지수 선행연구 검토

-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상이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구자들은 삶의 질에 대한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에서는 주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략을 택해 온 반면, 주관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느낌, 혹은 행복감을 측정해옴

- 대다수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의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결정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적 자원과 사회경제적 자원,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그러나 삶의 질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음. 첫째, 이론적인 논의들이 부재하거나, 이론적 토론을 하더라도 개인수준의 삶의 질에 머물고 있음. 둘째, 사회적 관계나 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전제한 후 그 위에서 개인들에 미치는 객관적인 효과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조나 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함. 셋째, 삶 자체가 구성되는 영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조건변수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넷째,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이고 비이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간의 사회적 관계 면을 소홀히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삶의 질과 차이를 가진 사회적 질 개념 및 지표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측정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EFSQ에서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적 질 지표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룸

13.4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안) 개발 및 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아직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사회적 질 개념에 의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함
- 지금까지는 주로 삶의 질(QOL : Quality of Life)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질이 삶의 질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옴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제1단계로 영역을 개발하였으며, 제2단계로 영역별 행복지표(안)를 개발함
- 각 단계의 작업과정에서 특히 고려한 점은 국내 선행연구, 주요 외국의 행복관련 연구, 행복관련 이론,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임
- 그리고 행복지표 개발의 제3단계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 행복지표를 선정하였음
- 델파이 조사에서는 영역의 우선순위를 제안토록 하고, 이어 각 영역 내에서의 지표 우선순위와 지표의 절대적 영향도(10점 기준)를 제안토록 함

13 4 1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안) 개발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하는 행복지표 1차안으로 10개 영역의 41개 지표가 개발됨
- 10개 영역은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등이며, 영역별로 개발된 행복지표(안)는 아래 표와 같음
- 행복을 결정하는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순위는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적 관계, 일, 일상생활,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 지역사회 순으로 나타남

표 2-22 행복지표 1차안에 따른 우선순위와 영향정도 평균값

영역	행복결정요인(안)	평균	평균
		우선순위(점)	영향정도(점)
심리적 안정	①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2.4	8.0
	②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및 유연성	4.3	6.5
	③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2.8	7.9
	④ 자신의 청소년기 성장환경에 대한 만족도	5.5	5.0
	⑤ 자기계발에 대한 목표 설정 여부 및 달성도	3.1	7.4
	⑥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2.9	7.9

표 계속 행복지표 1차안에 따른 우선순위와 영향정도 평균값

영역	행복결정요인(안)	평균 우선순위(점)	평균 영향정도(점)
가족·결혼	① 결혼을 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3.7	7.3
	② 현재의 가족(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1.5	8.7
	③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2.1	8.1
	④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2.8	7.7
개인적 관계	①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	9.1
	②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2	8.5
	③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2.4	7.6
	④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 정도	3.7	6.2
지역사회	① 지역사회에 참여여부 및 정도	1.9	5.3
	②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1.3	6.6
일상생활	① 식생활의 규칙성	3.4	5.7
	② 식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	2.7	6.7
	③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2.1	7.6
	④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1.8	8.0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성(Gender)	8.4	6.1
	② 연령	7.4	6.6
	③ 혼인상태	6.8	7.1
	④ 취업여부	5.0	8.5
	⑤ 종사상 지위	5.4	7.5
	⑥ 직업	3.1	8.2
	⑦ 개인소득 수준	3.9	8.5
	⑧ 가구소득 수준	5.1	8.1
	⑨ 종교생활여부 및 신앙 수준	8.3	7.1
경제적 안정	① 다른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만족감	2.2	7.0
	②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1.9	7.4
	③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1.9	7.4
일	① 일을 할지에 대한 선택에서 자율성 보장 정도	3.4	6.6
	②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1.8	8.5
	③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2.5	8.1
	④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2.4	8.7
건강	①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	1.6	9.0
	② 가족의 건강수준	1.8	8.7
	③ 규칙적인 운동 여부	2.7	7.3
주거	①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1.2	7.8
	②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1.8	6.9

주 : 영향정도는 매우 영향이 적다 0점, 보통이다 5점, 매우 영향이 많다 10점을 기준으로 산출됨

출처 : 김승권 외(2008 : 65-67; 172)

-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지표선정의 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1단계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분석하여 행복지

수를 산출할 때 영향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8.0 이상의 10개 지표를 선정함. 2단계에서는 우선순위가 3위(1위 : 심리적 안정, 2위 : 건강, 3위 : 가족·결혼) 이내인 영역은 최소 3개의 지표가 선정되도록 조정하여 4개 지표를 추가함. 3단계에서는 4개 추가지표 중 최소 영향정도인 7.1 이상인 지표를 선정하여 3개 이상이 선정된 영역은 제외함(동일 영역에서 중복성 감안, 5개 지표). 4단계에서는 하나의 지표도 선정되지 못한 영역은 최소 한 개의 지표가 선정되도록 하였고, 1개 지표가 추가되었으며, 이러한 절차에 의해 넷째 단계까지 총 24개 지표가 선정됨. 5단계에서는 24개의 지표 중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 선정된 3개 지표(취업여부, 직업, 개인소득 수준)는 경제적 안정, 일 영역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지표에서 제외함. 이 과정에서 3단계에서 선정된 9개 지표 중 3개가 탈락됨.

- 최종적으로 21개의 지표를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행복결정요인으로 확정하였으며, 선정된 21개 지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23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영역	행복결정요인(안)	우선 순위(점)	영향 정도(점)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2.4	8.0	◎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2.8	7.9		○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2.9	7.9		○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1.5	8.7	◎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2.1	8.1	◎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2.8	7.7		○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	9.1	◎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2	8.5			◇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2.4	7.6			◇	
지역사회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1.3	6.6				△
일상생활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2.1	7.6			◇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1.8	8.0	◎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1.9	7.4			◇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1.9	7.4			◇	

표 계속 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영역	행복결정요인(안)	우선	영향	1	2	3	4
		순위(점)	정도(점)	단계	단계	단계	단계
일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1.8	8.5	◎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2.5	8.1	◎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2.4	8.7	◎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	1.6	9.0	◎			
	가족의 건강수준	1.8	8.7	◎			
	규칙적인 운동 여부	2.7	7.3		○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1.2	7.8				◇

출처 : 김승권 외(2008 : 189)

13 4 2 분석결과 :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수준

- 행복결정요인으로 선정된 21개 행복지표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지표별 우선 순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됨
- 가중치 결정은 다음 세 단계의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음. 첫째, 분야별로 선정된 지표에 대한 영향정도 결정, 둘째, 분야별 영향정도 결정, 셋째, 각 지표의 영향도와 분야별 영향도를 고려한 각 지표의 가중치 결정
- 행복에 영향을 주는 개별지표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측정한 결과, 가장 행복한 수준인 100점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행복수준은 67.8점으로 나타남
- 즉, 50점이 평균이고, 80점 이상을 매우 행복한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한국인은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됨

표 2-24 한국인의 행복수준

영역	행복지표	가중치 적용 전 행복수준 (10점 기준)	가중치	가중치 적용 후 행복지수	가중치 적용 후 행복수준 (100점 기준)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7.03	0.057	0.40071	4.0071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7.13	0.056	0.39928	3.9928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6.57	0.054	0.35478	3.5478
가족·결 혼	현재의 가족(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7.43	0.058	0.43094	4.3094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6.94	0.054	0.37476	3.7476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7.88	0.049	0.38612	3.8612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7.98	0.050	0.39900	3.9900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7.39	0.047	0.34733	3.4733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7.27	0.045	0.32715	3.2715
지역 사회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6.18	0.026	0.16068	1.6068
일상 생활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6.25	0.041	0.25625	2.5625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82	0.039	0.26598	2.6598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5.46	0.044	0.24024	2.4024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5.84	0.044	0.25696	2.5696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6.70	0.047	0.31490	3.1490
일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6.18	0.050	0.30900	3.0900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6.28	0.047	0.29516	2.9516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	6.80	0.055	0.37400	3.7400
건강	가족의 건강수준	7.38	0.057	0.42066	4.2066
	규칙적인 운동 여부	5.39	0.046	0.24794	2.4794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6.54	0.034	0.22236	2.2236
	계	-	1.000	6.7842	67.842

출처 : 김승권 외(2008 : 242)

- 개별 행복지표가 전체 행복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 결과, 전체 21개 행복지표 중 영향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족·결혼생활 만족도’로 6.35%였으며, ‘가족의 건강수준’도 6.20%로 높게 나타남

표 2-25 개별 행복지표가 전체 행복수준에 주는 영향도

영역	행복지표	가중치 적용 후 행복수준 (100점 기준)	전체 행복수준에 주는 영향도
심리적 안정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정도	4.0071	5.91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3.9928	5.89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3.5478	5.23
가족·결혼	현재의 가족(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4.3094	6.35
	현재의 부부생활(이성교제)에 대한 만족도	3.7476	5.52
	출산 및 자녀성장에 대한 만족도	3.8612	5.69
개인적 관계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3.9900	5.88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4733	5.12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3.2715	4.82
지역사회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1.6068	2.37
일상생활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2.5625	3.78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2.6598	3.92
경제적 안정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2.4024	3.54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2.5696	3.79
일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3.1490	4.64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3.0900	4.55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2.9516	4.35
건강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	3.7400	5.51
	가족의 건강수준	4.2066	6.20
	규칙적인 운동 여부	2.4794	3.65
주거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2.2236	3.28
계		67.842	100.0

출처 : 김승권 외(2008 : 243)

- 또한, 한국인의 특성별 행복수준을 분석한 결과, ①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6.84점)가 중소도시(6.78점) 및 군지역(6.51점) 거주자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 ② 남성(6.75점)보다 여성(6.82점)의 행복수준이 높았음. ③ 연령별로는 행복수준이 30대(6.94점), 40대(6.86점), 20대(6.85점), 50대 이상(6.60점) 순으로 높았으며, ④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6.83점)가 미혼(6.74점)이나 이혼·사별·별거자(5.95점)보다 훨씬 높았음. ⑤ 최종학력별로는 행복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7.08점)이 2~3년제 대졸(6.87점)이나 고졸 이하(6.61점)보다 높았으며, ⑥ 학생(7.07점)의 행복수준이 가장 높고, 취업자(6.79점)가 미취업(6.72점)보

다 행복수준이 높았음. ⑦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135 정책적 함의 : 사회적 측면에서의 행복수준 향상 방안

-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행복요인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소득유지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제공되어야 함

표 2-2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행복 수준

특성	한국인의 행복수준 (가중치 적용 후 100점 기준)	
전체	67.8	
거주지역	대도시	68.4
	중소도시	67.8
	군	65.1
성	남자	67.5
	여자	68.2
연령	20대	68.5
	30대	69.4
	40대	68.6
	50대 이상	66.0
혼인상태	미혼	67.4
	유배우	68.3
	이혼·사별·별거	59.5
교육수준	고졸 이하	66.1
	2~3년제 대졸	68.7
	4년제 대졸 이상	70.8
취업여부	취업	67.9
	미취업	67.2
	학생	7.0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62.5
	101~200만원	65.4
	201~300만원	68.8
	301~400만원	69.3
	401~500만원	72.3
	501만원 이상	73.0
무응답	62.6	

출처 : 김승권 외(2008 : 270)

- 둘째, 가족정책을 강화하여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응집력을 강화하며, 위기 가족의 위기 요인을 제거하는데 정책 집중이 요구됨
- 셋째,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부터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넷째,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강화되고,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14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황명진·심수진, 2008)

14.1 개요

- 한국사회의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로서, ‘행복’을 개인의 가치관, 개인적 목표의 성취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달성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당면과제로 의미를 상정함
- 한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만족감을 객관화, 계량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복측정을 위한 지표 구성 및 지수 작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 지표개발의 가능성을 살펴봄
- 이를 위해 기존의 통계청 자료(한국의 사회지표, 사회통계조사) 활용 가능성과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지표들에 대해 검토함

14.2 지표 검토 및 개발

14.2.1 통계청 지표 검토

-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1987년, 1995년, 2004년 세 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쳐 2011년 13개 영역의 489개 지표로 구성됨
- ‘한국의 사회지표’의 구성에서 그 기준은 1) 사회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

해야 하고, 2) 사회의 변동, 안녕의 변동을 양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며, 3)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하고, 4) 사회적 관심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성을 가지고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5) 특정인구집단의 안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분해 가능해야 하고, 6) 시계열적 통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이러한 기준을 기초로 사회지표는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그리고 정부와 사회참여의 1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통계조사’ 역시 인구와 정보통신 영역을 제외하고 구성 영역이 동일함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지표의 13개 영역을 기초로 행복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구성 및 개발하고자 함
-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조사 자료가 행복지수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을 포함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 이러한 지표를 기본자료로 이용할 경우 기존의 자료 안에서만 내용이 한정되는 단점이 있지만, 자료구축과 검증에 관련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표의 개발과정과 개편과정을 거쳐 검증된 지표체계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14.2.2 선행연구 검토

- 한국의 사회지표가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타당한지에 대해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봄(다음 표 참조)

표 2-27 한국의 사회지표 영역과 선행연구들 영역의 비교

	UNDP HDI	EIU 삶의 질 지수	NEF HPI	WHO QOL	캐나다 CIW	부탄 GNH	호주 웰빙 지수	한국인 삶의 질	서울시 행복 지수	일본 PLI	홍콩 삶의 질 지수	OECD 사회 지표
인구												
가구/가족		○					○					
소득/소비	○	○			○	○	○	○	○	○	○	○
노동		○					○	○		○		
교육	○				○	○	○	○		○	○	○
보건	○	○	○	○	○	○	○	○		○		○
주거/교통							○		○	○		○
정보/통신												
환경		○	○	○	○	○			○		○	○
복지												
문화/여가					○	○	○	○			○	○
안전							○		○			○
정부/사회 참여		○		○	○	○			○	○		

출처 : 황명진·심수진(2008 : 102)

- 대부분 선행연구는 행복측정지표를 사회지표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행복측정 체계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사회지표(13개 영역) :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 참여
- 사회통계조사(11개 영역) :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 참여
-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환경,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 영역을 토대로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사회신퇴)'의 10개 영역, 68개 지표로 통합·재구성함
- 인구영역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함

- 인구밀도는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인구밀도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방향성 제시가 어려운 지표이며, 주로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대부분임
- 노령화 지수 등은 필요하다면 가족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주거와 교통, 복지 영역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주거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
- 정보와 통신 영역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단말기,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률이 이미 포화상태이며, 다른 영역보다 중요성이 낮은 부분이고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전체적인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함

14.2.3 지표 개발 방법

- 기존 선행연구들의 지표구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참고로 1차 지표를 구성한 후,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와 통계개발원 내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루어짐
- 조사방법은 1차 지표구성안에 대해 영역별로 지표에 대한 타당한 정도를 7점 척도(1점 : 전혀 타당하지 않음~7점 : 매우 타당함)로 측정하였고, 전체적인 지표구성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됨
- 조사결과 전체 23부의 설문이 완료되었고, 전체적으로 표준편차의 값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 지표의 타당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였음
- 지표의 타당도 평가기준은 타당한 정도에 대한 지표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체 평균값이 5.36으로 5점 미만이거나 한 영역에서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지표 중 평균값이 낮은 지표를 제외하였음
- 사회지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개 영역의 43개 지표로 최종 구성함⁹⁾

14.3.1 영역별 지표 구성

- 객관적 지표를 사용할 경우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지표보다 더 보편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에 따라, 행복이 물질적인 삶, 주관적인 감정, 만족감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물질적 조건과 함께 개인들의 만족감 측정 지표를 포함시킴

표 2-28 행복지수의 지표 구성(전체 43개)

영역	지표	자료출처	주기
가족 (3)	조이혼율	인구동태 통계	1년(80~05)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통계 조사 2006	4년(98, 02, 06)
	소년소녀 가장 가구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년(95~05)
경제 (5)	1인당 GDP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1년(81~05)
	소득 집중도(지니계수)	가계조사	1년(98~05)
	소득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4년(99, 03)
	소비생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3	4년(99, 03)
직업 (3)	생활물가지수	통계청, 물가연보	1년(00~06)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81~06)
	주당 근로시간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	1년(85, 90, 95, 00~05)
교육 (4)	근로여건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8, 02, 06)
	교육기회의 충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 04)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년(85, 90, 95, 00~06)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 04)
건강 (6)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 04)
	주관적 건강평가*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 03, 06)
	스트레스 인식정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4년(01, 05)
	유병률	사회통계조사 2006	4년(95, 99, 03, 06)
	기대수명	생명표	1년(01~05)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3년(98, 02, 05)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1년(95~05)

9 이들 지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조사' 안에서 구성된 지표로 지표구성에서 매우 한정적일 수 있으며,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포함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표 계속 행복지수의 지표 구성(전체 43개)

영역	지표	자료출처	주기
주거 (4)	도시주택가격지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1년(92~06)
	주택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 01, 04)
	방당 거주인수	인구주택총조사	5년(80~85)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 01, 04)
환경 (4)	대기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99~05)
	수질오염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99~05)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 01, 05)
	소음공해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년(02~05)
안전 (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 01, 05)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회통계조사 2005	4년(97, 01, 05)
	범죄발생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82~05)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년(82~05)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3년(97, 01, 04)
	화재발생건수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1년(82~05)
문화와 여가 (4)	문화예술 시설수	문화관광부	1년(95~05)
	여가활동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4년(00, 04)
	평균 여가시간*	생활시간조사	5년(99, 04)
	공공체육시설수	문화관광부, 체육시설현황	1년(96~05)
정부와 사회참여 (4)	사회단체참여율*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 03, 06)
	자원봉사자 비율*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 03, 06)
	사회이동의 가능성*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 03, 06)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3년(99, 03, 06)

주 : * 표시된 지표는 주관적 평가 항목임
출처 황명진·심수진(2008 : 108-109)

14 3 2 지수산출을 위한 고려사항

- 위와 같은 종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함. 첫째, 지표들의 자료 구축연도가 동일하여야 하고, 둘째, 지표들 간 자료 구축 단위의 표준화가 가능해야 하며, 셋째, 가중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의 사회지표'의 세부지표들이 자료의 출처도 다양하고 주기도 다양함에 따라, 지수산출 과정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자료 구축기간도 길지 않고 지표별로 구축연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연도에 대해 추정치를 사용하는 등 표준화 과정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 중에서 구축 가능한 연도가 상이한 자료들은 추세변동, 계절성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적합(fitting) 및 예측하는 ‘지수평활법’¹⁰으로 자료 구축연도를 맞추어야 함

14.4 정책적 함의

- 이 연구는 행복지수의 지표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들의 내용 검토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표구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행복은 주관적 개념으로 개인의 감정에 따라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측정이 주관적인 측정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음
- 행복이란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람들 간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보다 정확하고 타당도가 높은 지표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타당도가 보다 높은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행복에 대한 정의가

¹⁰ 일본의 신생활지수처럼 기준연도에서 변화되는 값을 백분율로 전환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 지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들의 표준화와 통합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셋째, 지표의 구성에서는 여러 분야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정책부서의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지표개발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15 소결 : 행복지표의 종합 및 함의

-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외 행복지표와 삶의 질 지표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체계를 리뷰하고 소개하였음. 행복지표 연구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라고 하면 삶의 질 지표는 좀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지표체계임. 이러한 시기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질(質)을 제고하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두 가지 지표체계는 동일한 목적과 중복적인 측면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음
- 다음 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리뷰한 행복지표체계들이 어떤 공통성을 보여주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것임. 대부분의 지표체계는 개인속성적 요인과 외부속성적(external or social)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적 속성은 거의 공통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 연령, 교육, 건강, 가족요소 등이 그러한 영역임. 외부적 속성은 측정기관의 성격이 일정정도 반영되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나, 일자리, 커뮤니티, 사회적 가치영역, 심리적 안녕, 문화여가 등이 공통적인 영역임.

표 2-29 행복지표체계 종합

<table border="1"> <tr> <th>외부요인</th> <th>개인요인</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직업 · 사회적 자본 · 가치 · 종교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가족 · 교육 · 성별 · 나이 </td> </tr> </table>	외부요인	개인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직업 · 사회적 자본 · 가치 ·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가족 · 교육 · 성별 · 나이 	<p>GNH 지표 (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선 (33%) · 주거 (33%) · 주거 소득 (33%)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능력 (30%) · 의사소통 (30%) · 자식 (20%) · 가사 (20%)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10%) · 장애 (30%) · 정신 건강 (30%) 생태다양성과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다양성 (10%) · 환경개선 (10%) · 건강양호 (30%) · 자연환경 복개 (60%) 굿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30%) · 서비스 전달 (60%) · 정부 성과 (10%)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50%) · 주면시간 (50%) 문화다양성과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 귀속수준 (20%) · 예술창작활동 (50%) · 사후-문화적 참여 (30%) · 구원 (20%) 지역사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민(사건에 비화) (30%) · 커뮤니티 관계 (20%) · 자선 (20%) · 안전 (30%) 심리적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20%) · 긍정적 감정 경험 (17%) · 부정적 감정 경험 (17%) · 행복유무 (33%) 								
외부요인	개인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직업 · 사회적 자본 · 가치 ·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가족 · 교육 · 성별 · 나이 												
<p>〈UN, The World Happiness Report〉</p> <p>BLI 지표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생활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삶의 조화 · 일과 삶의 자기관리 · 일과 삶의 자선 · 일과 삶의 자선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비 · 주택 환경 개선 · 주거 시설 · 주거 시설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소득 · 소득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성 · 직업안정성 · 직업안정성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 교육비 · 교육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 환경 · 환경 시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 시민참여 · 시민참여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 안전 · 안전 생태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다양성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건강 · 건강 	<p>〈Bhutan, GNH Index〉</p> <p>ONS National Well-be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 개인적 행복 · 관계 · 건강 · 해야 할 것 · 우리가 사는 곳 · 개인 재정 · 교육과 기술 · 경제 · 민주주의와 신의 거버넌스 												
<p>〈OECD, BLI〉</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영역</th> </tr> <tr> <td rowspan="3">HDI/IHDI/MPI</td> <td>건강 및 기대수명</td> </tr> <tr> <td>교육수준</td> </tr> <tr> <td>생활수준</td> </tr> <tr> <td rowspan="3">GII</td> <td>건강</td> </tr> <tr> <td>노동시장</td> </tr> <tr> <td>여성생식건강</td> </tr> <tr> <td>Environmental Sustainability</td> <td>환경</td> </tr> </table>	구분	영역	HDI/IHDI/MPI	건강 및 기대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GII	건강	노동시장	여성생식건강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	<p>〈ONS, National Well-being〉</p> <p>구조개혁적 측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생활환경이 갖추어진 사회 ·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쉬운 사회 · 경제적 여유와 전망을 지닌 사회 · 기회를 찾기 쉬운 사회 ·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쉬운 사회 · 향상심과 향학심을 높이기 쉬운 사회 ·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구분	영역												
HDI/IHDI/MPI	건강 및 기대수명												
	교육수준												
	생활수준												
GII	건강												
	노동시장												
	여성생식건강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												
<p>〈UN, HDI〉</p> <table border="1"> <tr> <th>영역</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주거 · 이동성 · 휴가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재 · 사회-문화적 레저활동 · (사회적)참여/사회적 고립 · 스포츠 </td> </tr> </table>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주거 · 이동성 ·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재 · 사회-문화적 레저활동 · (사회적)참여/사회적 고립 · 스포츠 	<p>〈일본, 생활개혁지수〉</p> <table border="1"> <tr> <th>영역</th>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 · 가족, 결혼 · 개인적 관계 · 지역사회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 경제적 안정 · 일 · 건강 · 주거 </td> </tr> </table>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 · 가족, 결혼 · 개인적 관계 ·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 경제적 안정 · 일 · 건강 · 주거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주거 · 이동성 ·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재 · 사회-문화적 레저활동 · (사회적)참여/사회적 고립 · 스포츠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안정 · 가족, 결혼 · 개인적 관계 ·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 경제적 안정 · 일 · 건강 · 주거 													
<p>〈Netherlands, LSI〉</p>	<p>〈한국, 한국인의 행복수준〉</p>												

- 이러한 영역을 다음과 같은 4차원 축으로 구분한 것이 다음 그림임. 즉, 개인속성적 특성과 외부환경적 특성을 한 축으로 하고, 객관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특성 정도를 다른 축으로 하여 각 영역을 구분하였음. 이렇게 구분해보면 지금까지 다른 행복지표체계의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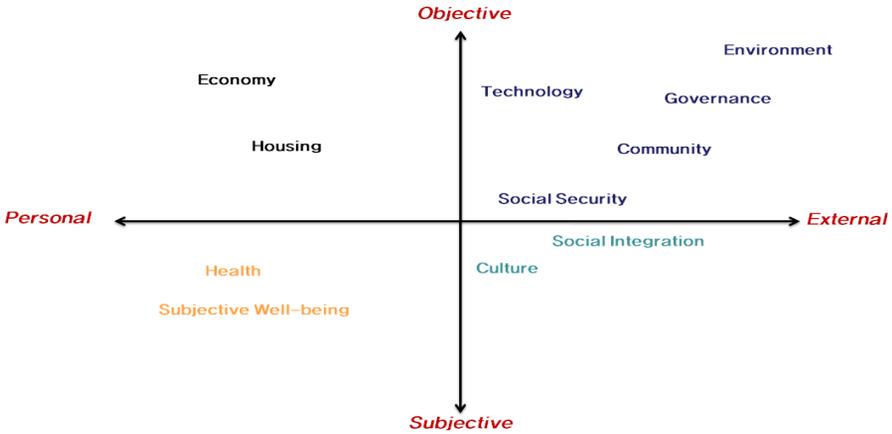


그림 2-42 도시발전 질적 모니터링 영역(area)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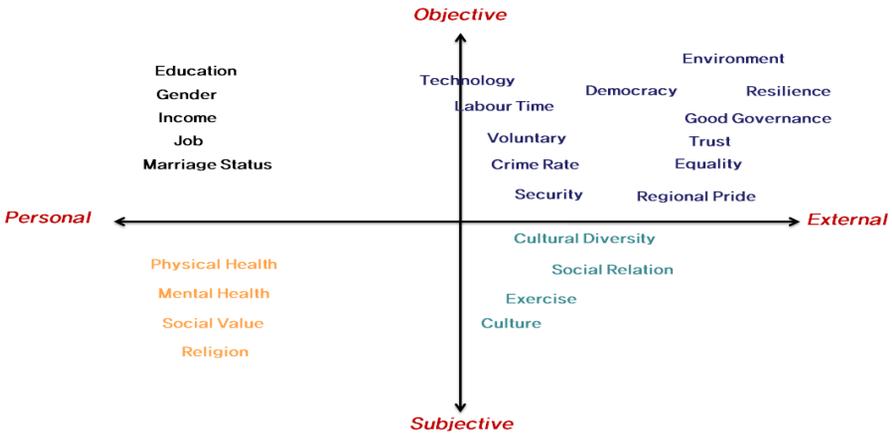


그림 2-43 도시발전 질적 모니터링 지표(indicators) 종합

III Global/Asia Megacity Index 구축

- 1 Global/Asia Megacity Index의 의의
- 2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 3 Global/Asia Megacity Index 지표

III Global/Asia Megacity Index 구축

1 Global/Asia Megacity Index의 의의

1.1 Asia Megacity의 중요성

- 아시아 지역에는 인구 500만 이상 도시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도시 중 이미 고도성장에 이른 도시들도 있으나 발전잠재력이 큰 도시들도 집중 분포되어 있음. 더욱이 대도시 서울의 도시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도시들 많아 아시아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학습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함

1.2 Megacity의 발전 모델에 대한 성찰

- 경쟁적이고 양적 성장이 가진 한계 노출
- Better City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 확장
- 시민행복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환기

1.3 Global/Asia Megacity Index의 목적

-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포괄적 지표 체계
- 포용성장과 인본주의적 가치의 반영
- 아시아 네트워크 역량 강화
-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발전 방향과 역할
- 아시아 메가시티의 도시발전 클러스트 구축 가능성
- 인적자본·객관적 요소 강점 지역군
- 환경적이고 주관적 요소 강점 지역군

- 사회통합과 사회적 소통 역량이 높은 지역군
- o 도시 간 벤치마킹 가능성의 이정표 제시

2 대상도시 선정을 위한 현황분석

2.1 대상도시의 선정 기준

- o 아시아도시는 인구규모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많음. 따라서 서울인덱스 구성의 대상 도시를 선정할 때 인구규모가 일정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전 세계 천만 이상 도시는 12개, 오백만 이상 도시는 35개이며, 아시아의 천만 이상 도시는 8개, 오백만 이상 도시는 19개임. 우리는 아시아메가시티의 연구대상 도시선정을 위해 도시지역, 인구밀도 일정이상 지역 등을 고려함

2.2 ASIA 도시 분석

- o 인구 천만 도시(8) : 상하이, 뭄바이, 마닐라, 다카, 모스크바, 델리, 카라치, 베이징
- o 인구 오백만 도시(19) : 상하이, 뭄바이, 마닐라, 다카, 모스크바, 델리, 카라치, 베이징, 자카르타, 서울, 테헤란, 도쿄, 라호르, 방갈로르, 싱가포르, 양곤, 방콕, 바그다드, 리야드

표 3-1 인구 500만 이상 Megacity

no.	name	calculation 2013	country
1	상하이(Shanghai)	21,982,184	China
2	뭄바이(Bombay)	14,472,081	India
3	이스탄불(Istanbul)	13,203,696	Turkey
4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13,080,908	Argentina
5	마닐라(Manila)	12,825,069	Philippines
6	다카(Dhaka)	12,071,737	Bangladesh
7	모스크바(Moscow)	11,678,650	Russia
8	상파울루(São Paulo)	11,488,559	Brazil
9	델리(Delhi)	11,396,015	India
10	카라치(Karachi)	11,234,872	Pakistan
11	베이징(Beijing)	10,965,844	China
12	라고스(Lagos)	10,599,301	Nigeria
13	자카르타(Jakarta)	9,833,788	Indonesia
14	킨샤샤(Kinshasa)	9,757,236	Congo (Dem. Rep.)
15	서울(Seoul)	9,731,649	Korea (South)
16	테헤란(Tehran)	8,938,318	Iran
17	도쿄(Tokyo)	8,931,845	Japan
18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8,385,742	Mexico
19	카이로(Cairo)	8,334,914	Egypt
20	리마(Lima)	8,257,526	Peru
21	뉴욕(NewYork)	8,200,053	United States of America
22	런던(London)	7,927,008	United Kingdom
23	보고타(Bogotá)	7,632,746	Colombia
24	라호르(Lahore)	6,761,305	Pakistan
25	방갈로르(Bangalore)	6,582,533	India
26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6,433,557	Brazil
27	싱가포르(Singapore)	6,349,572	Singapore
28	양곤(Yangon)	6,021,323	Myanmar
29	방콕(Bangkok)	5,929,273	Thailand
30	이바단(Ibadan)	5,660,233	Nigeria
31	바그다드(Bagdad)	5,534,317	Iraq
32	산티아고(Santiago)	5,300,169	Chile
33	리야드(Riyadh)	5,298,283	Saudi Arabia
34	토론토(Toronto)	5,287,776	Canada
35	현(Xian)	5,264,816	China

주 : ■ 아시아도시

- 세계 도시의 인구는 상하이-베이징-델리-다카-마닐라-서울-자카르타-도쿄-뉴욕-런던-홍콩-방콕-싱가포르-양곤-로스앤젤레스-오사카-파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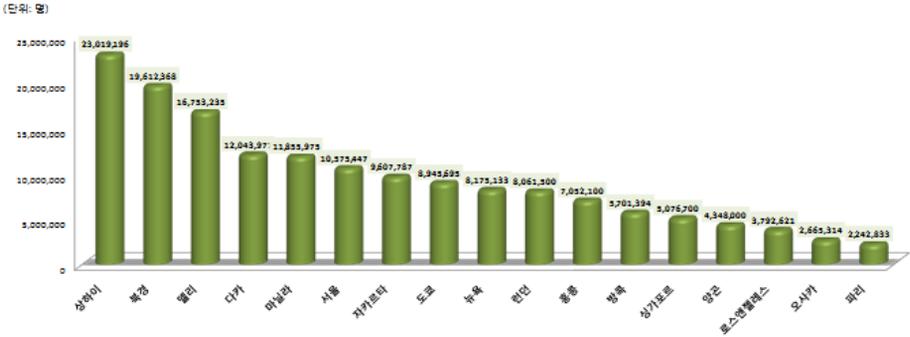


그림 3-1 세계 도시 인구

- 우리가 선정한 도시는 표 3-2에 나타난 17개 도시임
- 전 세계 5백만 이상 도시는 상하이, 마닐라, 다카, 델리, 베이징, 자카르타, 서울, 도쿄, 뉴욕, 런던, 싱가포르, 방콕, 홍콩
- 각 도시의 인구데이터는 도시(국가)별 통계청 및 통계연보 인구데이터(2010)를 기준으로 하되 2010년 데이터가 없을 경우 최근연도 데이터로 대체함. 가령, 다카(Dhaka)와 델리(Delhi)는 인구센서스 조사를 10년 주기로 하며 기준값 2001년, 결과값 2011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2011년 데이터를 사용함
- 마닐라의 인구는 1,625,171명으로 타 도시에 비해 인구수가 현저히 낮음. 초기 인구기준으로 삼았던 월드 가제티어 닷컴의 수치와 비교할 때도 그 차이가 크므로, Metro Manila(=National Capital Region) 값으로 대체 사용함

표 3-2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인구

City	Population(단위 : 명)				최종 데이터 사용값
	월드 가제티어 닷컴	국가별통계청 및 통계연보		모리재단	
	(기준연도 2013)	(기준연도2010)	(최근연도)	(발간연도2012)	
상하이 (Shanghai)	21,982,184	23,019,196		23,019,000	23,019,196
마닐라 (Metro Manila)	12,825,069	11,855,975			11,855,975
다카 (Dhaka)	12,071,737		12,043,977 (2011)		12,043,977
델리 (Delhi)	11,396,015		16,753,235 (2011)		16,753,235
베이징 (Beijing)	10,965,844	19,612,368		19,612,000	19,612,368
자카르타 (Jakarta)	9,833,788	9,607,787			9,607,787
서울 (Seoul)	9,731,649	10,575,447	10,442,426 (2012)	10,529,000	10,575,447
도쿄 (Tokyo)	8,931,845	8,945,695		8,966,000	8,945,695
뉴욕 (New York City)	8,200,053	8,175,133	8,336,697 (2012 추정치)	8,175,000	8,175,133
런던 (London)	7,927,008	8,061,500	8,204,400 (2013)	7,825,000	8,061,500
파리 (Paris)			2,242,833 (2013.1)	2,247,000	2,242,833
오사카 (Osaka)		2,665,314		2,672,000	2,665,314
싱가포르 (Singapore)	6,349,572	5,076,700	5,312,400 (2012)	5,184,000	5,076,700
방콕 (Bangkok)	5,929,273	5,701,394	5,674,843 (2011)	6,870,000	5,701,394
로스앤젤레스 (LosAngeles)		3,792,621	3,857,799 (2012 추정치)	3,793,000	3,792,621
홍콩 (HongKong)		7,052,100	7,173,900 (2012)	7,104,000	7,052,100
양곤 (Yangon/Rangoon)	6,021,323	4,348,000	6,120,000 (2011)		4,348,000

출처 : 1) 월드 가제티어 닷컴(World-gazetteer) 기준 (<http://world-gazetteer.com/wg.php?x=&men=gcis&lng=en&des=wg&srt=2pnn&col=adhoq&msz=1500>)
 2) 국가별 통계청 및 통계연보 기준
 3) 모리재단 Global Power City Index 2012 데이터 값 사용(시·도별로 데이터 연도값에 차이가 있음(2009~2011))

1인당 GDP

- 1인당 GDP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CIA의 The world factbook,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를 정리함. CIA 자료는 타 자료값과 수치 차이가 커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IMF와 CIA 자료는 추정치이며 World Bank 지표는 확정치이자 가장 최근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단, 양곤은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없어 IMF 자료를 대체 사용함
- 1인당 GDP는 싱가포르-뉴욕-로스앤젤레스-도쿄-오사카-파리-런던-홍콩-서울-상하이-베이징-방콕-자카르타-마닐라-델리-양곤-다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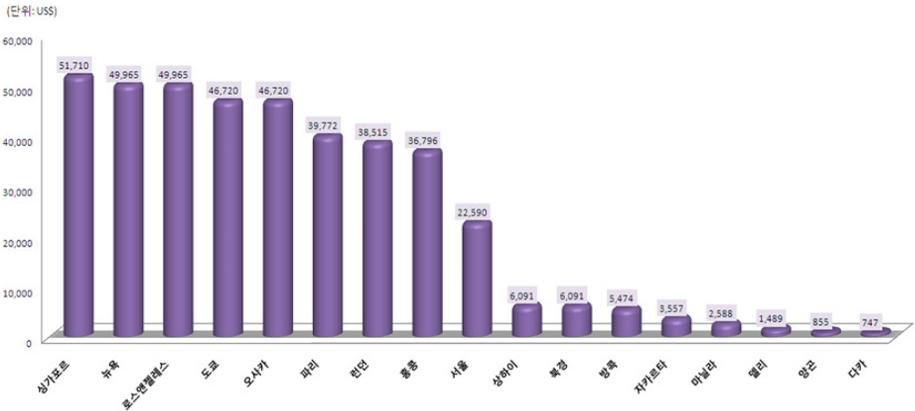


그림 3-2 1인당 GDP

표 3-3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1인당 GNDP

City	1인당 GNDP(단위 : US\$)						최종 확정 데이터
	IMF		CIA		World Bank	국가별 (각 도시 화폐 기준)	
	(US 달러 기준)		(US 달러 기준)		(US 달러 기준)		
상하이 (Shanghai)	US\$ 5,899	2011 추정치	US\$ 9,300	2012년 추정치	US\$ 6,091.0	2012	US\$ 6,091.0
마닐라 (Metro Manila)	US\$ 2,329	2010 추정치	US\$ 4,500	2012년 추정치	US\$ 2,587.9	2012	US\$ 2,587.9
다카 (Dhaka)	US\$701 (US\$766)	2010 추정치 (2011-2012 추정치)	US\$ 2,100	2012년 추정치	US\$ 747.3	2012	US\$ 747.3
델리 (Delhi)	US\$ 1,455	2010 추정치	US\$ 3,900	2012년 추정치	US\$ 1,489.2	2012	US\$ 1,489.2
베이징 (Beijing)	US\$ 5,899	2011 추정치	US\$ 9,300	2012년 추정치	US\$ 6,091.0	2012	US\$ 6,091.0
자카르타 (Jakarta)	US\$ 3,797	2011 추정치	US\$ 5,100	2012년 추정치	US\$ 3,556.8	2012	US\$ 3,556.8
서울 (Seoul)	US\$ 23,680	2010 추정치	US\$ 32,800	2012년 추정치	US\$ 22,590.2	2012	25,447,000 (k\$ won) (2012) US\$ 22,590.2
도쿄 (Tokyo)	US\$ 46,973	2011 추정치	US\$ 36,900	2012년 추정치	US\$ 46,720.4	2012	US\$ 46,720.4
뉴욕 (New York City)	US\$ 49,601	2011 추정치	US\$ 50,700	2012년 추정치	US\$ 49,965.3	2012	US\$ 49,965.3
런던 (London)	US\$ 38,891	2007 추정치	US\$ 37,500	2012년 추정치	US\$ 38,514.5	2012	US\$ 38,514.5
파리 (Paris)	US\$ 42,793	2011 추정치	US\$ 36,100	2012년 추정치	US\$ 39,771.8	2012	US\$ 39,771.8
오사카 (Osaka)	US\$ 46,973	2011 추정치	US\$ 36,900	2012년 추정치	US\$ 46,720.4	2012	US\$ 46,720.4
싱가포르 (Singapore)	US\$ 65,045	2012 추정치	US\$ 61,400	2012년 추정치	US\$ 51,709.5	2012	65,048(S\$) (2012) =(US\$52,051) US\$ 51,709.5
방콕 (Bangkok)	US\$ 5,851	2011 추정치	US\$10,300	2012년 추정치	US\$ 5,473.7	2012	US\$ 5,473.7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US\$ 49,601	2011 추정치	US\$ 50,700	2012년 추정치	US\$ 49,965.3	2012	US\$ 49,965.3
홍콩 (HongKong)	US\$ 36,218	2010 추정치	US\$ 52,300	2012년 추정치	US\$ 36,795.8	2012	285,403 (HK\$) (2012) US\$ 36,795.8
양곤 (Yangon/Rangoon)	US\$ 855	2006 추정치	US\$ 1,400	2012년 추정치	-	-	US\$ 855

출처 : 1) IMF(국가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http://www.gfmag.com/gdp-data-country-reports.html#axzz2ZkRH780Y>

2)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3)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4)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연보 기준

1인당 GRDP

- 1인당 GRDP 자료를 제공하는 도시정부는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정도임. 따라서 모리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모리재단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Asian Green City Index에서 제공된 GRDP 자료를 사용함
- 다카는 도시정부, 모리재단, Asian Green City Index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없음. 하지만 인터넷 자료 중 Dahka Metropolitan Area의 1인당 GRDP가 3,800달러라는 자료가 있어 대체 사용함
- 양곤은 도시정부, 모리재단, Asian Green City Index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없음. 이에 따라 양곤의 1인당 GRDP는 미얀마의 23%라는 신문기사의 정보를 토대로 자체 계산함
- 1인당 GRDP는 파리-도쿄-오사카-뉴욕-런던-로스앤젤레스-싱가포르-홍콩-서울-상하이-베이징-방콕-자카르타-마닐라-다카-양곤-델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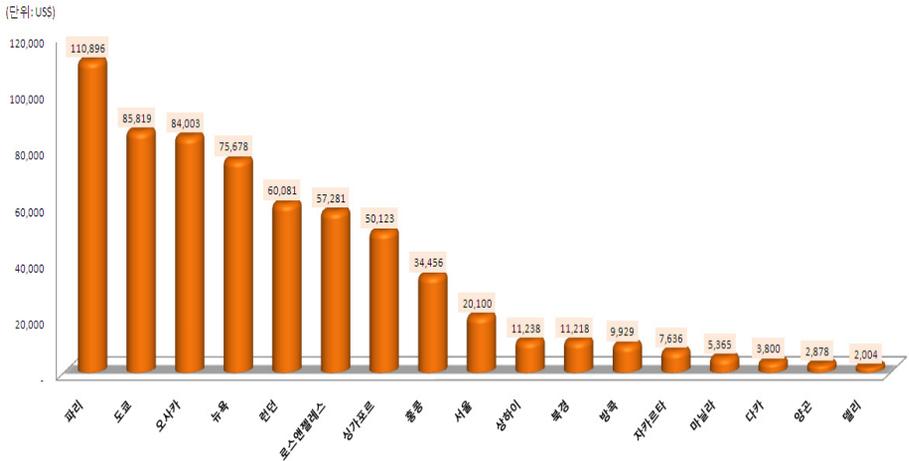


그림 3-3 1인당 GRDP

표 3-4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1인당 GRDP

City	1인당 GRDP(단위 : US\$)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연보	모리재단 (발간연도 2012)	Asian Green City Index (발간연도 2011)	최종 확정 데이터
	(각 도시 화폐 기준)	(US 달러 기준)	(US 달러기준)	
상하이 (Shanghai)	76,074(yuan) =US\$11,238 (2010)	US\$ 11,238	US\$ 11,464	US\$ 11,238
마닐라 (Metro Manila)			US\$ 5,365	US\$ 5,365
다카 (Dhaka)				US\$3,800
델리 (Delhi)			US\$ 2,004	US\$ 2,004
베이징 (Beijing)		US\$ 11,218	US\$ 10,137	US\$ 11,218
자카르타 (Jakarta)			US\$ 7,636	US\$ 7,636
서울 (Seoul)	28219,800(k\$won)(2011) =(US\$25,466.6)	US\$ 20,100	US\$ 19,597	US\$ 20,100
도쿄 (Tokyo)		US\$ 85,819	US\$ 70,760	US\$ 85,819
뉴욕 (New York City)		US\$ 78,678		US\$ 78,678
런던 (London)		US\$ 60,081		US\$ 60,081
파리 (Paris)		US\$ 110,896		US\$ 110,896
오사카 (Osaka)		US\$ 84,003	US\$70,927	US\$ 84,003
싱가포르 (Singapore)	65,048(S\$)(2012) =(US\$52,051)	US\$ 50,123	US\$ 36,520	US\$ 50,123
방콕 (Bangkok)		US\$ 9,929	US\$ 9,095	US\$ 9,929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US\$ 57,281		US\$ 57,281
홍콩 (HongKong)	285,403 (HK\$) (2012)	US\$ 34,456	US\$ 29,991	US\$ 34,456
양곤 (Yangon/Pangpon)				US\$ 2,878

출처 : 1)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연보 기준

2) 모리재단 Global Power City Index 2012 데이터 값 사용(시·도별로 데이터 연도값에 차이가 있음(2009~2011))

인구밀도

- 인구밀도는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시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모리재단의 데이터를 사용함
- 양곤은 도시정부, 모리재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없어 총인구/총면적으로 계산함
- 인구밀도는 뉴욕-파리-마닐라-서울-자카르타-로스앤젤레스-도쿄-델리-오사카-다카-싱가포르-양곤-홍콩-런던-방콕-상하이-베이징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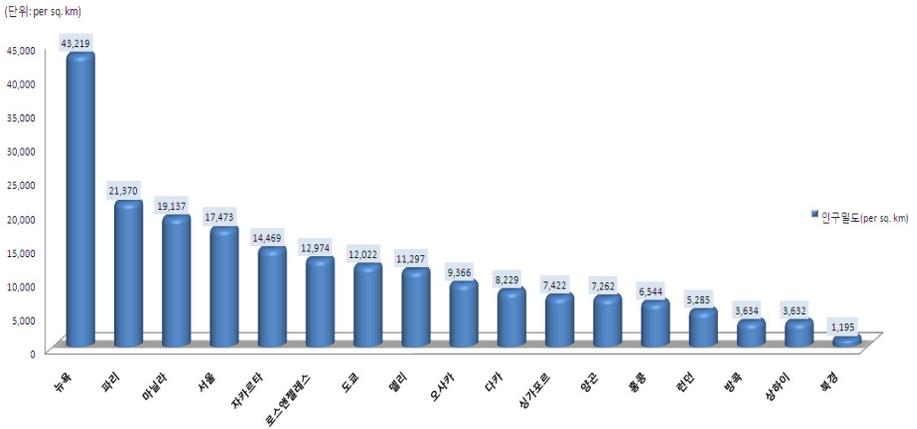


그림 3-4 인구밀도

표 3-5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인구밀도

City	인구밀도(per sq.km)		최종 확정 데이터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연보	모리재단 (발간연도2012)	
	(per sq. km)	(per sq. km)	
상하이 (Shanghai)	3,632(2010)	3,630	3,632(2010)
마닐라 (Metro Manila)	19,137(2010)		19,137(2010)
다카 (Dhaka)	8,229 (2011)		8,229(2011)
델리 (Delhi)	11,297 (2011)		11,297(2011)
베이징 (Beijing)		1,195	1,195(2012)
자카르타 (Jakarta)	14,469 (2010)		14,469(2010)
서울 (Seoul)	17,473(2010)	17,396	17,473(2010)
도쿄 (Tōkyō)	12,022 (2010)	14,415	12,022(2010)
뉴욕 (New York City)	43,219 (2010)	10,355	43,219(2010)
런던 (London)	5,285 (2010)	4,977	5,285(2010)
파리 (Paris)	21,370 (2013)	21,319	21,370(2013)
오사카 (Osaka)	9,366 (2010)	11,981	9,366(2010)
싱가포르 (Singapore)	7,422 (2012)	7,257	7,422(2012)
방콕 (Bangkok)	3,634 (2010)	3,630	3,634(2010)
로스앤젤레스 (LosAngeles)	12,974 (2010)	3,124	12,974(2010)
홍콩 (HongKong)	6,544 (2011)	6,432	6,544(2011)
양곤 (Yangon/Rangoon)	7,262 (2010)		7,262(2010)

출처 : 1)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연보 기준

2) 모리재단 Global Power City Index 2012 데이터 값 사용(시·도별로 데이터 연도값에 차이가 있음(2009~2011))

GNDP by Population

Global Meg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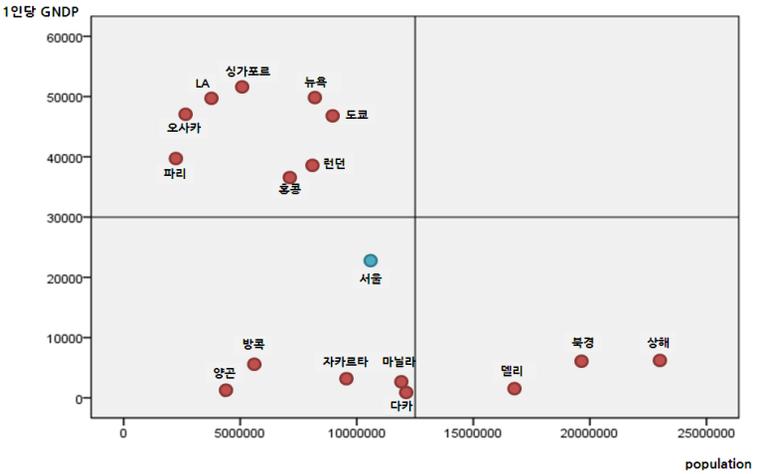


그림 3-5 Global Megacity의 1인당 GNDP by Population

Asia Meg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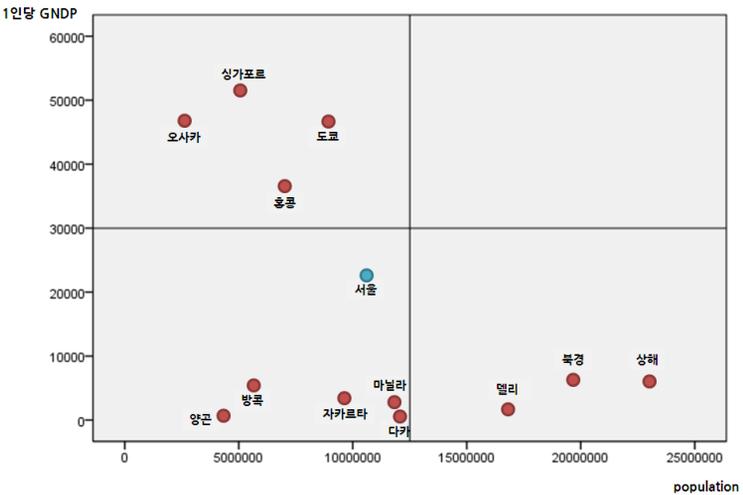


그림 3-6 Asia Megacity의 1인당 GNDP by Population

GRDP by Population

○ Global Meg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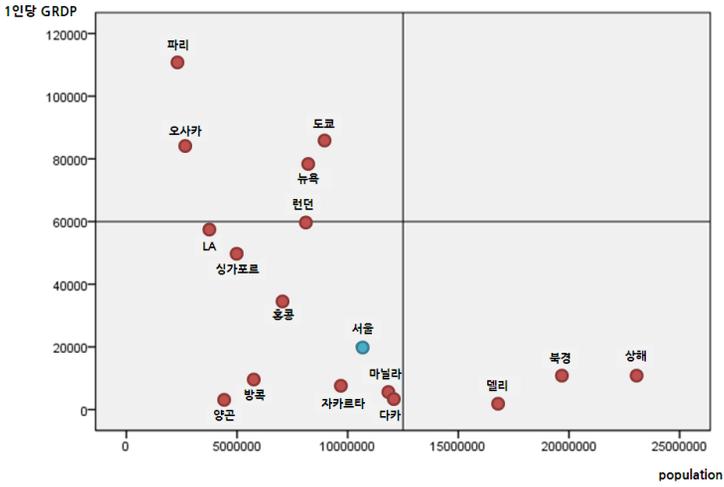


그림 3-7 Global Megacity의 1인당 GRDP by Population

○ Asia Meg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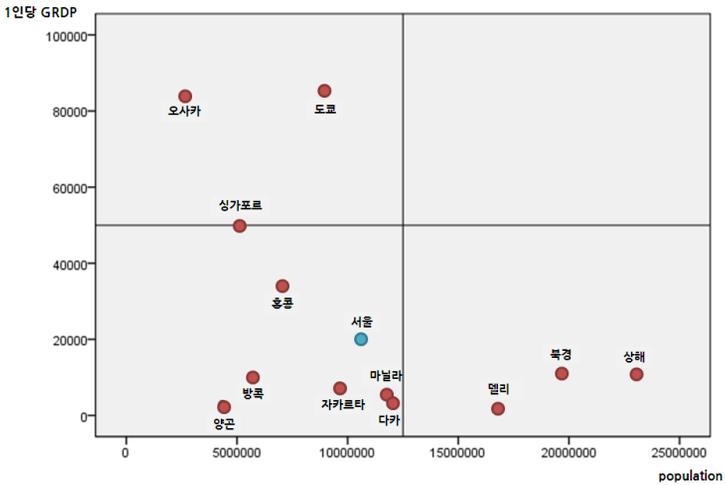


그림 3-8 Asia Megacity의 1인당 GRDP by Population

Density by Population

○ Global Meg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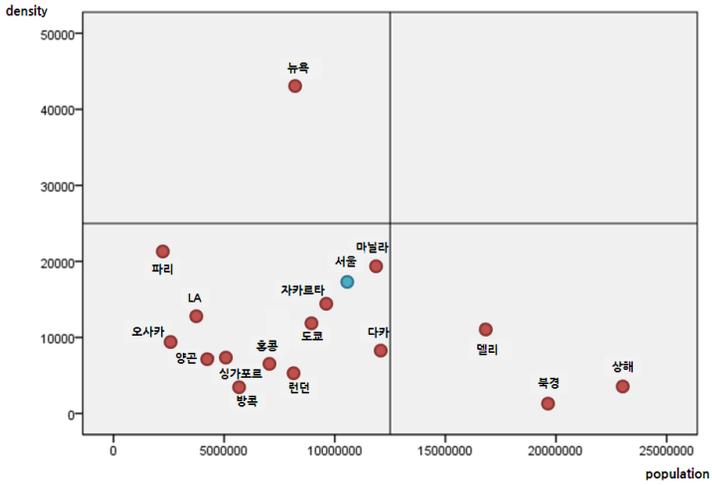


그림 3-9 Global Megacity의 Density by Population

○ Asia Meg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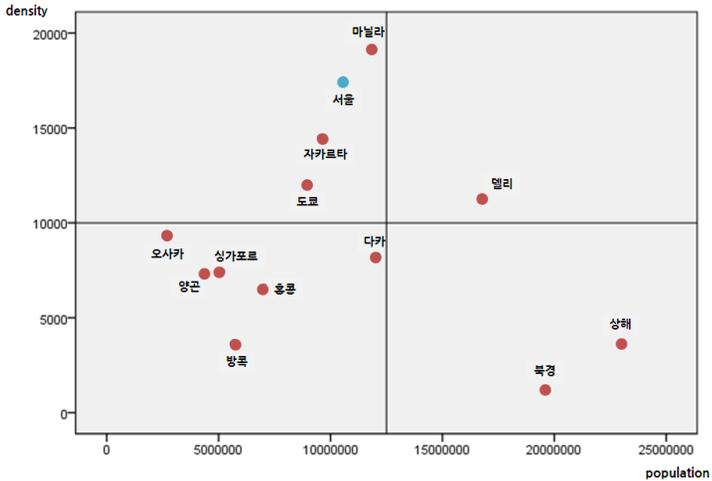


그림 3-10 Asia Megacity의 Density by Population

Global/Asia Megacity Index 지표

3.1 Global/Asia Megacity Index 평가대상도시 선정

- 현황도시 분석을 통해 Global/Asia Megacity Index 평가대상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17개 도시이며 그림 3-11과 같음



그림 3-11 Global/Asia Megacity Index 평가대상도시

3.2 Global/Asia Megacity Index 지표(가안)

- 서울인덱스 지표 구성 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양자를 반영하되, 아시아 도시를 주로 평가하고 있는 세계은행, OECD Better Life Index, UN의 행복지표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도시민의 행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 지표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만들어졌음. 첫째, 지표 자체의 중요성 정도와 그 지표가 구축될 수 있는 데이터 가용성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지표를 선정하였음. 더욱이 도시발전의 미래지향성까지 담아내는 포괄성이 일정정도 반영되었음. 둘째,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음. 셋째, 도시별 서베이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할 것임. 마지막으로 도시적 특성으로서의 정주성 정도, 도시 어메니티 등의 성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주거, 일자리, 기술혁신과 교육, 교통환경, 문화여가, 사회통합, 건강, 안전 등의 8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개별 지표들을 구성하였음. 이 지표안은 1차안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다 정교하게 보완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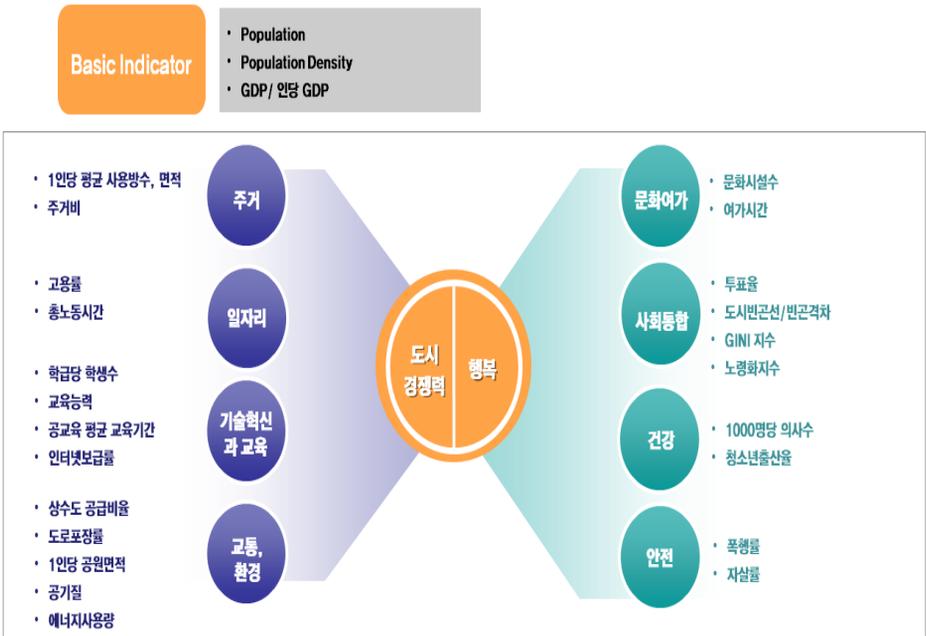


그림 3-12 서울 인덱스 지표

- OECD는 지표구성단계를 그림 3-13과 같이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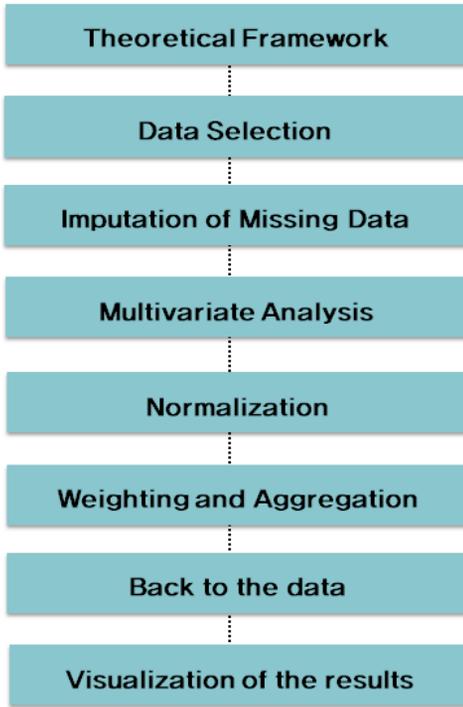


그림 3-13 지표구성 단계(OECD 권고안)

출처 : OECD,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pp20-21

- Megacity Index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5단계가 필요함. 1단계에서는 서울시, 연구원, 시립대가 Megacity Index 팀을 구성함. 2단계에서는 지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단계에서는 아시아 메가시티 인덱스 네트워크를 구성함. 4단계에서는 1차 Asia Megacity Index Summit를 개최하고, 5단계에서는 아시아 메가시티 인덱스 네트워크를 확산시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14와 같음



그림 3-14 Megacity Index 구축 거버넌스

표 3-6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데이터 출처

City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 관련 사이트
상하이 (Shanghai)	인구 : http://www.stats.gov.cn/english/statisticaldata/censusdata/rkpc2010/in dexch.htm 인구밀도 : http://www.stats-sh.gov.cn/tjnj/nje11.htm?d1=2011tjnj/E0205.htm GRDP : http://www.stats-sh.gov.cn/tjnj/nje11.htm?d1=2011tjnj/E0305.htm GDP(China)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 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 State.
마닐라 (Metro Manila)	인구/인구밀도 : http://nso-ncr.ph/special%20release/2010%20CPH%20Special%20Release_N CR.pdf
다카 (Dhaka)	인구/인구밀도 : http://www.bbs.gov.bd/WebTestApplication/userfiles/Image/Ce nsus2011/Dhaka/Dhaka/Dhaka%20at%20a%20glance%20General.pdf GDP : http://www.bbs.gov.bd/WebTestApplication/userfiles/Image/BBS/GDP_ 2012_13.pdf GRDP : Mainsources : ADB-EIU-HDR-UNIDOInfobase-WorldBank-WorldEcon omicForum-WorldFactBook

표 계속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데이터 출처

City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 관련 사이트
델리 (Delhi)	인구/인구밀도(2011) : http://www.delhi.gov.in/wps/wcm/connect/doi_t_des/DES/Our+Services/Statistical+Hand+Book/ GDP(India)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State.
베이징 (Beijing)	인구 : http://www.stats.gov.cn/english/statisticaldata/censusdata/rkpc2010/indexch.htm GRDP : 신문기사 http://www.china.org.cn/business/2012-01/20/content_24450081.htm GDP(China)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State.
자카르타 (Jakarta)	인구/인구밀도 : http://www.bps.go.id/eng/hasil_publicasi/si_2012/index3.php?pub=StatistikIndonesia2012
서울 (Seoul)	인구 : 주민등록인구(http://stat.seoul.go.kr/jsp/WWS8/WWSDS8111.jsp?cot=017) 인구밀도 : http://stat.seoul.go.kr/jsp/WWS8/WWSDS8111.jsp?cot=017 GRDP : http://stat.seoul.go.kr/jsp2/WWS100/WWSDP10000.jsp?cot=043 GDP(Korea)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State.
도쿄 (Tokyo)	인구/인구밀도 : http://www.stat.go.jp/english/data/nenkan/1431-02.htm GDP(Japan)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State.
뉴욕 (New York City)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36/3651000.html GDP : (미국) http://www.bea.gov/national/pdf/dpqa.pdf
런던 (Greater London Authority)	인구(2010) : http://www.ons.gov.uk/ons/datasets-and-tables/index.html?pageSize=50&sortBy=none&sortDirection=none&newquery=population&content-type=Reference+table&content-type=Dataset 인구(2013) : http://www.ons.gov.uk/ons/datasets-and-tables/index.html?pageSize=50&sortBy=none&sortDirection=none&newquery=population+inner+london 인구밀도 : http://www.ons.gov.uk/ons/rel/regional-trends/region-and-country-profiles/key-statistics-and-profiles---august-2012/key-statistics---london--august-2012.html GDP(UnitedKingdom)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State.
파리 (Paris-Petite-Cournonne)	인구/인구밀도(2013) : http://asp.zone-secure.net/v2/index.jsp?id=1203/1515/34675&lng=en GDP(France)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State.

표 계속 서울인덱스 지표 비교 대상 선정 17개 도시의 데이터 출처

City	시·도별 도시정부 통계 관련 사이트
오사카 (Osaka)	인구 : http://www.stat.go.jp/english/data/nenkan/1431-02.htm GDP(Japan) : TheWorldBank,WorldDevelopmentIndicatorsDatabase.RetrievedJuly5,2012.U.S.BureauofEconomicAnalysis,EstimatesofGrossDomesticProductbyState.
싱가포르 (Singapore)	인구(2010) : http://www.singstat.gov.sg/statistics/browse_by_theme/population.html 인구/인구밀도(2012) : http://www.singstat.gov.sg/statistics/latest_data.html#12 GDP : www.singstat.gov.sg (또는 http://data.gov.sg/common/search.aspx?q=gdp&s=default&o=a&a=DOS&count=10&page=2)→LastUpdated : 22Feb2013
방콕 (Bangkok)	인구(2010) : http://office.bangkok.go.th/pipd/05_Stat/08Stat(En)/Stat(En)53/stat_eng2010.pdf 인구(2011) : http://office.bangkok.go.th/pipd/05_Stat/08Stat(En)/Stat(En)54/pdf%20(not%20edit)/stat_eng2011%20(not%20edit).pdf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인구 :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06/0644000.html GDP : (미국) http://www.bea.gov/national/pdf/dpga.pdf
홍콩 (Hong Kong)	http://www.censtatd.gov.hk/hkstat
양곤 (Yangon/Rangoon)	인구(2010)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96%91%EA%B3%A4) 인구(2011) : http://www.asean-cn.org/Item/4655.aspx 인구밀도 : 2010년기준,면적(598.75km2),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C%96%91%EA%B3%A4)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자료〉

김승권, 2009,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김계연, 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월 15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지범, 2011, 「국민행복 결정 요인분석 및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황명진·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권 3호, pp93-117

한국사회학회, 2011, 「국민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Jeroen Boelhouwer, 2010, **Wellbeing in the Netherlands : The scp life situation index since 1974**,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2012, **World happiness report 2012**, The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2013, **World Happiness Report 2013**,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ONS, 2011,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Measuring what matters**

UNDP,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Michalos, A. et al., 2011,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Technical Report 1.0. Waterloo, ON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nd University of Waterloo.

Nielsen, 2013, **Quality of Life Survey 2012 Six Councils**

New Economics Foundation, 2012, **The Happy Planet Index 2012 Report**

Yoshiaki TAKAHASHI, 2010, Japanese Experience of Social Progress Indicators since 1970s([http://www.stat.si/StatisticniDnevi/Docs/Radenci%202010/Takahashi\(Slovenia101110\)final_ppt.pdf](http://www.stat.si/StatisticniDnevi/Docs/Radenci%202010/Takahashi(Slovenia101110)final_ppt.pdf))

〈인터넷 사이트 검색〉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articles/>

부탄연구 및 GNH 조사센터

<http://www.ons.gov.uk>

영국통계청

http://hdrstats.undp.org	인간개발보고서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더 나은 삶의 지수
http://ciw.ca	캐나다 행복지수
http://www.happyplanetindex.org	행복한 지구 지수
http://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2/nov/20/happiness-index-anxiety-satisfaction-uk	Happiness index: the UK in happiness, anxiety and job satisfaction
http://www.scp.nl/english	영국 가디안신문 네덜란드 사회연구소

〈보도자료 검색〉

기획재정부,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 2012년 5월 11일자 보도자료

〈신문기사 검색〉

“불가 비싼 도시 20, 서울 순위권 밖…1위 오슬로,” 「MTN」, 2012.10.02.

캐머런 총리, 국민행복지수 “GDP보다 GWB”, 문화일보, 2010.11.26.

David Cameron defends plans for wellbeing index, theguardian, 2010.11.25

서울연 2013-OR-57

도시발전과 질적 성장 모니터링 : 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텍스 구축 연구

발행인 이창현

발행일 2013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비매품 ISBN 978-89-8052-594-2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